LS Networks

Walk & Talk | Winter 2012 | vol. 007

보보담

LS Networks

Walk & Talk

Winter 2012
vol. 007

보보담

보보담 步步譚 은 아웃도어 walk 와 문화 talk 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꿈꿉니다. 보보담 步步譚 은 LS 네트웍스에서 만드는
VIP 매거진으로 연 4 회 발행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길을 잃고,
누구나 한 번은 길을 만든다.

-셰릴 스트레이드, 『Wild와일드』 중에서

© 김도원

Contents

01 Outdoor Aphorism

03 Editor's Choice 01 『Wild와일드』라는 책

05 Editor's Choice 02 세계 최대 포토 페어 제16회 <파리 포토>

06 Contributors 도움을 주신 분들

148 편집실에서

Walk

34 Thinking with My Knee 무릎으로 생각하다
나는 가이아가 되리
글 · 사진 박상미

08 Outdoor Drama 자연의 길, 마음의 길
강릉 바우길 4박 5일 트레킹
글 박명욱 | 사진 김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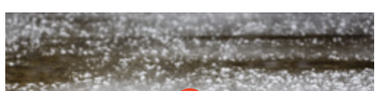
40 Uncovering Artists 진옥섭의 풍류기행
동편의 소리, 동편의 춤
글 은유 | 사진 이한구 | 길잡이 진옥섭

25 The World of the Wheel 바퀴가 그리는 세상
자출, 그 즐거운 불편에 대하여
글 은유 | 사진 김도원

47 Korean Home Brew 가양주家釀酒 견문록
안동 노송정 종택의 좁쌀술을 찾아서
글 최성우 | 사진 이동춘

Special Theme:
Walk & Love

Talk



89 Literature 문학이 말하다
사랑, '나'라는 나라에서
'너'라는 나라로 가는 일
글 함돈균

54 Directions 맨 앞에서 말하다
길도 아픕니다
글 정진홍 | 그림 김돈수

94 Film 영화가 말하다
길에서 만난 사랑, 길에서 떠난 사람
글 정성일

60 Architecture 건축이 말하다
폐허의 건축, 사랑의 시간
글 · 그림 임형남 노은주

100 Art 미술이 말하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글 박영택

『Wild와일드』라는 책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4,285km 종주기

길에서 진정한 나를 찾다

셰릴 스트레이드Cheryl Strayed라는 한 여자가 있다. 26세, 바야흐로 자신의 진짜 삶을 시작할 나이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유일한 의지처였던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과는 이혼했고, 작가의 꿈에 매진하는 대신 식당 종업원 같은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아무 남자하고나 자고, 심지어 마약에도 손을 댄다.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벗어날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떠한 희망도 일말의 자존감도 없이, 자신에 대한 환멸만을 곱씹는, 출구 없는 아픔의 나날들.

어느 날 우연히 상점 가판대에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acific Crest Trail, PCT' 안내서를 접하게 된 후, 그녀는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으로 가르는 4,285km에 달하는 이 길을 걷겠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엄청난 무게의 배낭과 함께 미국 남부의 모하비 사막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9개의 산맥과 사막과 우림과 황무지와 설산을 통과하고, 추위와 더위, 갈증과 허기, 온갖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며, 마침내 3개월여 만에 컬럼비아 강을 가로지르는 '신들의 다리'에서 끝을 맺는다. 그녀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수행자처럼 이 고행을 감내하며,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지난 과거와 화해하고,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에 이른다. 『Wild와일드』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지닌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토록 염원했던 작가로서의 삶을 되찾게 된 그녀가 15년 후 이 여정을 회고하며 쓴 책으로 상실, 좌절, 슬픔, 외로움, 용기, 도전, 희망 등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과 삶에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묘파하고 있다. 글 | 편집부

© 임종진

Power Talk
MUSIC 음악이 많이 말하다
책임 편집 김갑수

66
Interview & Innerview 가수 한대수를 만나다
떠돌고 사랑하고 노래하다
글 김갑수 | 사진 박정훈

88
Just One Song 이 한 곡
사랑, 아름답고 불가능한
글 김갑수

74
Multi-Listening Guide 세상의 모든 음악
모든 음악은 하나다
글 김갑수 | 그림 조용우

78
Multi-Listening | Classical Music
슬픔을 구원하다
글 정윤수

80
Multi-Listening | Pop & Rock
저기, 사랑이 걸어온다
글 조용범

82
Multi-Listening | Jazz
여자들, 사랑을 찾아 떠돌다
글 김영훈

84
Multi-Listening | World Music
유팡키의 '투쿠만의 달'
글 우석균

86
Multi-Listening | 가요
신중현의 순수와 사랑이 되돌아오다
글 임진모

After Walk & Talk

106
Bicycle Gallery 자전거에 탐닉하다
두 바퀴의 존재 체험
글 반이정 | 사진 김도형

112
Place Names in Literature 문학과 지명
어둑어둑한 갯벌 너머 오이도가 있다
글 · 그림 윤후명

116
Outdoor Spirit 김화성 기자의 소요유逍遙遊
푸하하! 나, 살찐 보름달 아래 늑대 되리!
글 김화성

120
A Taste of Korea 한국의 맛
만두, 맛있는 호기심
글 황교익 | 사진 박정훈

128
Wayfarer Tales 과객열전過客列傳
사라진 부안행궁을 찾아가다
글 안대회 | 사진 이한구

133
Life & Brands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발림무용단 이지선 단장의 액티브 아웃도어 라이프
진행 정재연 이은선 | 사진 김도형

세계 최대 포토 페어 제16회 <파리 포토>
2012/11/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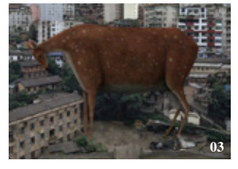
나라, 인종, 시대, 언어를 초월하는

사진의 힘

사진의 역사가 시작된 나라답게, 해마다 가을이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포토Paris Photo>가 열린다. 세계 각지의 갤러리가 참여해 사진을 전시 · 판매하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드는, 세계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사진 예술 시장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파리 포토>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궁전이라는 뜻의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 열렸다. 에펠탑을 '철로 짠 레이스'라고 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말을 빌자면, 그랑 팔레는 거대한 유리 구슬을 철로 짠 레이스로 마감한 모양새다.

천정 유리를 통해 들어온 자연광이 전시장 내부를 경계 없이 비추듯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여 개가 넘는 갤러리가 참가한 전시 부스들도 현실의 세계지도와는 전혀 다른 지도를 그리며 경계 없이 한 공간 안에 펼쳐져 있다. 암스테르담 곁에 베이징이, 시애틀 옆에 도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파리 포토>의 공간과 너비라면, 전시작들은 <파리 포토>의 시간과 깊이를 보여준다. 1920년대 사진 옆에 2012년 사진이 있고, 전통적인 스트레이트 사진 옆에 현대적 기법의 사진이 나란하다. 책에서만 보았던 다이안 아버스Diane Arbus의 빈티지 사진을 지나면, 요즘 상종가라는 중국 작가 리우 디Liu di의 최근작이 걸음을 막아선다. 그 길목에서 우리 나라 작가 배병우나 이정진의 사진을 만나게 되면, 무람없이 오래 머물러 서 있게도 된다. <파리 포토>에서, 사람들은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사진 시장의 현재 경향과 미래의 전망까지를 본다. 유럽을 포함해 아시아와 아랍, 아프리카에서까지 찾아든 관람객들도 다채롭기 그지없다. 그들과 섞여 흐르면서 전시를 관람하다보면, 나라와 인종, 시대와 언어를 초월해 공감하는 이 시각예술의 힘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된다. 리포팅 | 박미경(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 관장)

01


03

© 이한구

02

01 파리 포토에 출시된 이정진의 작품 <사물Thing 06-63> **02** 파리 포토가 열린 '그랑 팔레' 내부 전경 **03** 리우 디의 <동물 규제Animal Regulation> 연작 중 작품 No.8.

도움을 주신 분들 | Contributors

글 | 편집부, 사진 | 김도원

정진홍

1956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원 시절 성경교사로 일하면서 신학이 아닌 종교학에 눈을 떴다. 종교를 신앙의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의 담론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청년 창업지원, 해외연수 추진 등 젊은이들에게 꿈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일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하늘과 순수와 상상』 『열림과 닫힘』 등이 있다. <보보담> 필진의 좌장으로, 창간호부터 '걷기'에 대한 웅숭 깊은 사유가 담긴 글들을 쓰고 있다.

안대회

국문학을 선택하면서 한문을 공부하게 되었고, '근원을 파는 성미' 덕분에 고전에 매료되었다. 탄탄한 사료 발굴을 토대로 현대적 해석에 정진하는 한문학자이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써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 파워라이터다. 『선비답게 산다는 것』 『정조 치세어록』 등의 저서, 『천년 벗과의 대화』 『추재기이』 등의 역서가 수두룩하다. 이번 호에는 '과객열전' 집필을 위해, 사라진 부안행궁의 흔적을 찾아서 부안 일대를 답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일

<로드쇼>, <키노>를 이끌며 영화 비평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2009년 겨울, 청계천을 걷고 또 걸으며 첫 번째 장편영화 <카페 느와르>를 찍었다. 현재는 '시네마 디지털 서울'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언젠가 세상은 영화가 될 것이다』 『필사의 탐독』 등이 있다. 곧 다큐 영화를 찍는 왕빙Wang Bing 감독을 대상으로 한 다큐 영화를 촬영할 예정이다. 리뉴얼 호 영화 특집을 기획할 때, 대낮에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이어졌던 그와의 마라톤 기획회의를 잊을 수 없다.

김화성

공식 직함은 동아일보 스포츠 전문기자다. 자신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건달'이라고 칭하지만, 역사, 문학, 철학에 두루 해박하고, '한국 편집기자 대상'도 받은 베테랑 기자다. 폐소공포증이 있어 사각형을 싫어하고, TV와 자가용 없이 산다. 두 발로 전국팔도를 안방처럼 누비고 다닌다. 책, 축구, 마라톤, 걷기, 술을 좋아한다. 『책에 취해 놀다』 『길 위에서 놀다』 『꽃밥』 등을 썼다. 인문적 색채가 짙은 그의 호방하고 무외無畏한 글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김갑수

중학생 때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해, 40여 년 간 3만여 장의 판을 구입하면서 음악의 전 장르를 돌았다. 요즘은 YTN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아침을 연다. 문화평론가, 시인, 음악 칼럼니스트, 방송인 등으로 불리나, 세상을 껴안고 연애하며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는 사람이다. 『지구 위의 작업실』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 등을 썼다. 이번 호 '파워토크'를 책임편집했다. 가수 한대수와의 인터뷰, '멀티 리스닝' 총론 집필, '이 한 곡' 선정 등 노고가 자심滋甚했다.

박영택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으나, 그 대신에 그림 보고, 그림에 대해 쓰고, 그림에 대해 강의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마음과 감각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 골동과 문구, 음반과 책 등을 수집하고, 완상하고, 글로 쓰길 좋아한다.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로 일하며 『테마로 보는 한국 현대미술』 『수집 미학』 『예술가의 작업실』 등을 펴냈다. 현재 경기대학교 예술학과 교수로 있다. 매 호 변하는 <보보담>의 토크 섹션 주제에 맞춰 옛 그림과 오늘의 그림을 폭넓게 소개해주고 있다.

W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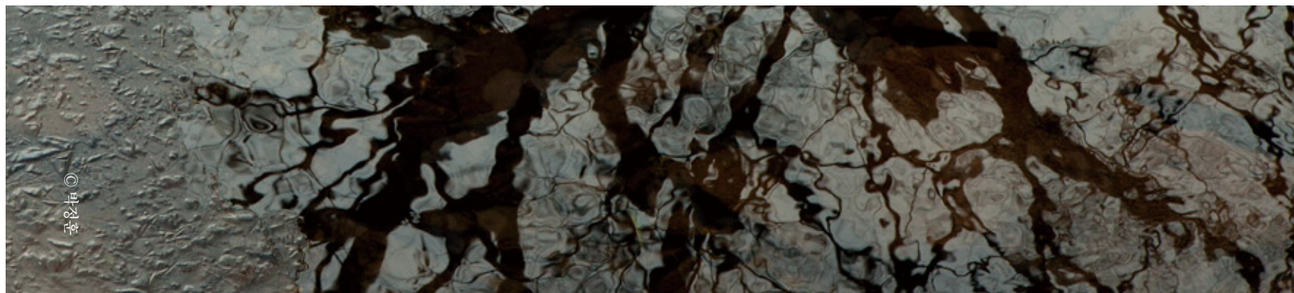
Outdoor Drama 자연의 길, 마음의 길
강릉 바우길 4박 5일 트레킹

The World of the Wheel 바퀴가 그리는 세상
자출, 그 즐거운 불편에 대하여

Thinking with My Knee 무릎으로 생각하다
나는 가이아가 되리

Uncovering Artists 진옥섭의 풍류기행
동편의 소리, 동편의 춤

Korean Home Brew 가양주家釀酒 견문록
안동 노송정 종택의 좁쌀술을 찾아서



강릉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린 동해와 푸른 대관령이 앞과 뒤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천혜의 요람이며, 우리 국토의 가장 바른 동쪽에서 매일 아침 이 땅의 첫 빛을 받는 곳이다.

-이순원, 『강릉에 가고 싶다』 중에서

강릉 바우길 4박 5일 트레킹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Walking and Singing : Five Days on Gangneung's Baugil Tr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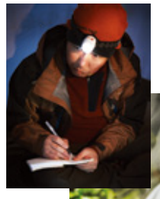
글 | 박명욱 사진 | 김도원 그림 | 김돈수

강릉 바우길은 산과 계곡과 숲과 들과 바다를 모두 거느린 아름답고 다채로운 길이다. 4박 5일 동안 대관령 옛길을 오르고, 선자령을 지나고, 마을과 들을 건너가, 바다 기슭의 솔숲길을 걸었다. 우리는 그 길을 웃으며 노래하며 걸었다. 우리의 길은 복되었다. 이 글은 그 길 위에 가득했던 웃음들, 그 길 위에 울려퍼졌던 노래들에 대한 기록이다.

강릉고속버스터미널 – 금산 – 성산 – 보광리 – 바우길 게스트하우스(13km)

한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리다

▲걸어가는 사람들 | 김대장, 7대륙 최고봉과 로체를 등정한 여성 산악인. 우대원, 강릉대 산악부 출신의 전 바우길 사무국 운영팀장. 임작가, '달팽이 사진골방'을 운영하며 1인 NGO를 꿈꾸는 사진작가. 김실장, 감각과 열정을 겸비한 프랑스 유학파 사진작가. 박편집장, 자유기고가이자 잡지 에디터. ▲몇 개의 원칙 | 단 한 발짝도 탈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매일 야영하고 직접 취사한다. 배낭은 풀패킹한다. 식재료나 행동식 일체를 현지에서 구입하는 '공정 트레킹' 원칙을 준수한다. 일정의 편의를 고려해 몇 끼 매식을 한 것 외에 나머지 원칙들은 모두 준수했다. 텐트와 침낭 등 장비 일체와 식량을 모두 지고 움직이는 풀패킹 원칙은 평지도 언덕길로 만들어, 내내 모두를 지치게 했다. ▲아, 울릉도 | 이번 여정은 울릉도 둘레길 종주가 목표였으며, 모두들 울릉도가 초행이어서 기대들이 대단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쉽게 들고날 수 있는 섬이 아니었다.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했다. 다들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다. 길이 막혔다. 어떡할 것인가. ▲플랜 B | 이번에 쓰고 싶지는 않았으나 만약을 위해 준비했던 두 번째 카드, 즉 바우길 트레킹을 택했다. 우리는 대관령 옛길, 선자령, 죽헌저수지, 경포호를 지나 강릉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딱딱한 길 | 딱딱한 포장도로가 주는 충격이 조금씩 무릎에 쌓인 것 외엔, 국도변을 따라 첫날 야영지인 바우길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가는 반나절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볕이 좋았고, 약간 설레고 긴장되고 불안했으며, 조금 행복했다. ▲불안 요소 | 결국 임작가의 무릎에 탈이 났다. 시큰거리는 모양이다. 김실장은 카메라짐 외에 옷짐과 개인장비가 든 배낭을 지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박편집장도 연일 계속된 격무와 음주로 상태가 좋지 않다. ▲희망 요소 | 경험이 많은 김대장이 있고, 노련한 젊은 산꾼 우대원이 있다. ▲뱅 쇼 | 김대장이 와인에 계피와 레몬을 넣고 끓여 '뱅 쇼Vin Chaud. '뜨거운 와인'이라는 뜻'를 만들어 주었다. 뱅 쇼와 야크 치즈를 곁들인 텐트 안에서의 저녁식사는 호사스럽고 근사했다.



트레킹 리더

김영미
산악인
(주)트라이씨클 소속
33세

부드러우면서 강한, 강하면서 섬세한

김대장은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Seven Summits 등정 기록을 갖고 있다.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 그의 삶은 오로지 산으로 향해 있다. 그는 산악스키, 사이클에도 일가견이 있는데, 그 또한 산에 가기 위한 단련이며, 산에서 더 자유롭기 위해서이다. 산에서는 강해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그는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하기도 한 리더다. 혼자보다는 모두를 생각하고, 무모함보다는 안전을, 엄숙보다는 웃음을 중시한다. 그의 원정 보고서 카피는 '한 사람의 세 걸음보다 세 사람의 한 걸음', '안전을 위주로 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원정대' 같은 것들이다. 그가 있어서 편안했고, 많이 웃었고, 행복했다. 그의 대원이 되어 그와 함께 걸은 것은 무상無上한 즐거움이었다.

Song of a Lifetime 01

이상은의 <삶은 여행>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김대장 안에는 노래가 한 서 말쯤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는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그도 아니면 뭔가를 흥얼거렸다. 산사람 특유의 맑은 기운이 배어 있는 그의 흥은 모두를 기분좋게 감염시켜서 트레킹 내내 일행 사이에 노래나 허밍이나 휘파람이 떠나지 않았다. 아끼는 노래 한 곡을 꼽으라고 하자, 그는 이상은의 <삶은 여행>을 선택했다. 삶은 여행이며,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며, 강해지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는 노래 가사는 곧 그대로 김대장의 생각이자 다짐일 것이다. 이런 엄숙한 다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깜짝 놀랄 만큼 청아하다. 전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바우길 게스트하우스 – 옛길 주막 – 반정 – 대관령휴게소(1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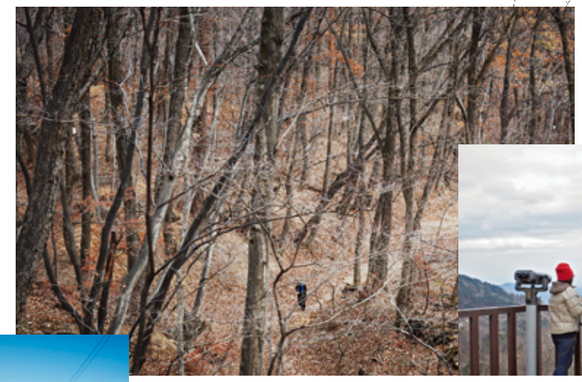
해뜨기 전이 가장 춥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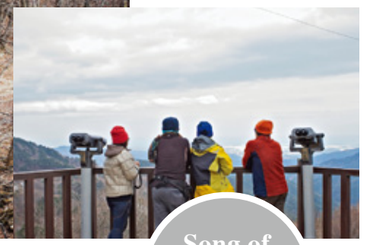
▲추운 아침 | 으슬으슬 추워서 잠이 깼다. 늦가을인데도 이미 대관령 기슭의 새벽은 몹시 차가워서, 잠시 얼이 빠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추운 법이며, 해를 생각하며 조금만 견디면 이 추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더운 밥 | 바우길 게스트하우스는 우대원이 바우길 간사로 2년간 몸담았던 곳이다. 덕분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서, 추운 새벽에 밥 짓는 수고를 면했다. ▲옛길 | 오늘 걸어야 할 길은 '대관령 옛길'이다. 신사임당이 어린 율곡을 데리고 넘던 길이고, 송강 정철이 감찰사로 부임해 넘어오던 길이다. 이런 사실들이야 인간의 것이고,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만히 등을 내줄 뿐이다. 인적이 없고 적막해서 걷기에 좋았다. ▲자작나무 | 길가에 자작나무가 많았다. 탈 때 '자작, 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로 불린다고 우대원이 말했다. 자작나무 껍질에 편지를 쓰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행 중에 막 사랑을 시작한 이가 있는데, 그에게는 이런 말도 심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애칭 | 임작가가 얼마 전에 장만한 '로시'라는 오토바이를 자랑하자, 김대장은 '수컷'이라는 자전거 얘기를 한다. '로시'는 돈키호테의 말 '로시난테'에서 따온 것일 텐데, '수컷'이라는 자전거 애칭이 좀 수상하다. 알고 보니 'SCOTT'이라는 자전거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었다. 김대장이 얼른 시집을 가야겠구나, 생각했다. 하하하. ▲지청구 | 점심은 콩나물과 떡을 넣은 인스턴트 면이다. 국물이 뜨끈해서 술 얘길 꺼냈다가 김대장에게 한소리 들었다. "운행 중에는 술 마시지 말죠. 운전하면서 술 마시지 않잖아요!" ▲배려 | 김대장에게 배운 산행 예절 중 하나는, 운행 중 쉴 때는 뒷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배낭을 어깨에서 내린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풍속이다. ▲진눈깨비 | 대관령휴게소에 도착하니 스산한 진눈깨비가 흩날린다. 전화기와 씨름하며 한참 동안, 서울에서 따라온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다. ▲공터 | 휴게소에서 멀찍이 떨어진 주차장 뒤편 숲속 공터를 야영지로 삼았다. '공터'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비어 있는 터. 비어 있으니 햇빛과 바람과 비와 눈이 머물고, 우리 같은 나그네들도 깃든다. ▲낭만 텐트 | 텐트를 후두둑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오랜 로망 하나를 실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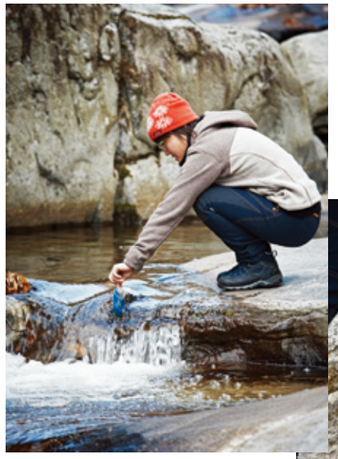
느린 것은 두렵지 않으나, 멈추는 것이 두렵다

김도원
사진작가
스튜디오 'Wonderboy' 실장
36세

김실장의 첫인상은 '까칠한 도련님'이었다. 4박 5일 동안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거운 카메라짐을 지고 작업을 해야 하니,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없지 않았다. 그는 우선 '까칠'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마당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도련님도 아니었다. 그는 옷짐과 카메라짐을 지고 좋은 촬영 포인트를 찾기 위해 종아리에 알이 박히도록 뛰어다니며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 날 밤, 모닥불 토크를 할 때, 그는 조소를 하다가 늦게 시작한 자신의 사진 작업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을 드러냈다. 하지만 계속 걷기만 한다면 결코 느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트레킹 중에 깨달았노라고 말했다. 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의 사진이 이미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멀리 갈 것이라는 사실을.







Song of a Lifetime 02

샤를 아즈나부르의 <La Bohème>

"추운 겨울을 잊기 위해 시를 읊었어요"

김실장은 파리에서 미술과 사진을 공부했다. 파리 유학 시절, 그를 사로잡은 노래는 살아있는 샹송의 전설 샤를 아즈나부르Charles Aznavour의 <방랑자>다. 모든 유학 시절은 궁핍하기 마련이다. 비록 몽마르트르 언덕의 싸구려 하숙집에 살지만,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명예와 성공을 염원하며 시를 읊고 밤새 그림을 그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고 있는 이 노래를 그는 마치 자기 노래인 양 들었을 것이다. 그는 이 노래가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고 간단히 표현했다. 수다스러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서 더욱 그의 파리 시절이 보였다.

대관령휴게소 – 선자령 – 대공산성 – 술잔바위 – 강릉휴게소(17.5km)

멈추지만 않으면 멀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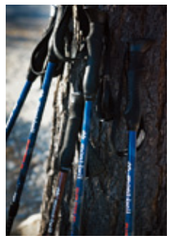
▲ 바람 소리 | 텐트를 뒤흔드는 요란한 바람 소리에 밤새 뒤척였다.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던 터라, 잠결에도 하루의 일정을 생각하니 걱정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기다릴지 기대되기도 했다. ▲ 어떤 의식 | 출발 전 김대장이 둥글게 원을 지어 서로의 손을 잡고 각자 하루의 염원을 비는 의식을 제안했다. 일정이 멀고 날씨도 좋지 않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는 듯했다. 김대장은 힘들수록 단단해지는 법이니 서로 양보하고 돕자는 덕담을 건넸고, 임작가는 스포츠 테입을 붙인 아픈 무릎이 악화되지 않기를 빌었고, 우대원은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 오보 | 악천후에 대비해 배낭에 커버까지 씌우고 출발했으나, 비도 눈도 오지 않았다. 덕분에 운행이 쾌적했으며, 시야와 전망이 좋아 마음이 후련했다. ▲ 바람개비 | 선자령의 명물은 커다란 바람개비를 닮은 풍력발전기들이다. 하얗게 상고대 핀 나무들을 지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흰 바람개비 돌아가는 능선을 걷고 있자니, 깜빡깜빡 이 세상이 아닌 듯했다. ▲ 노래들 | 선자령을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대원이 씩씩하게 <산 사나이> 같은 몇 곡의 산노래를 불렀고, 김대장이 <비밀의 화원>을 불렀고, 박편집장이 못 이기는 척 <어디로 갈꺼나>를 불렀다. ▲ 서른 즈음에 | 임작가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금 빼더니 '서른 즈음에는 절대로 이해 못 하는 노래, 마흔 즈음이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노래'라는 사설을 풀고는 <서른 즈음에>를 구성지게 불렀다. 그럴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젊음도 사랑도. ▲ 지나온 길 | 강릉휴게소 못 미쳐 임작가가 뒤를 돌아보다가 감회에 젖는다. 저길 어떻게 걸어왔나 싶게, 지나온 선자령 능선이 아득했던 것이다. 걷기는 생각보다 우리를 멀리까지 데려다준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 다시, 노래들 | 낮의 노래는 밤의 텐트 안으로 이어졌다. 밤이 이슥해지도록, 각자 즐겨 듣는 노래를 사연을 곁들여 함께 듣기도 했고,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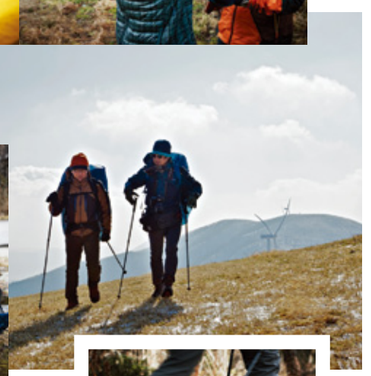
트레킹 후기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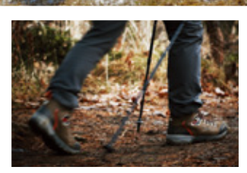
우상렬
산악인
전 바우길 운영팀장
28세

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한때는 강릉 일대 산자락을 내 집처럼 누비고 다녔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살림살이를 모두 등에 지고 바퀴에 의존하지 않은 채 걸어 다녔다. 동이 트면 길을 나설 채비를 하고, 허기가 지면 버너에 불을 붙이고, 해가 지면 텐트를 펼쳤다. 갈림길이 나오면 지도를 보고, 지도가 막히면 경험과 본능에 따라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4박 5일을 함께 먹고 자며 한 가족이 되어갔다. 세상 그 누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칼잠을 자며, 씻지 않은 부스스한 모습과 발 냄새와 코 고는 소리를 나누고 싶겠는가. 산이니까, 산에 있으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산은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 이것이 산이 부리는 마법 중의 하나이고, 날 한사코 산으로 이끄는 주술이다.







Song of a Lifetim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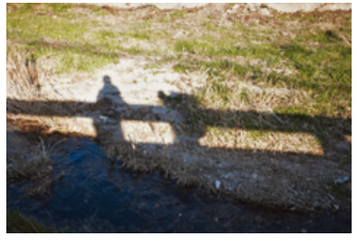
박은옥의 <꿈꾸는 여행자>

"꿈꾸는 그대, 그리운 여행자"

우대원은 바우길 운영팀장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할 때, 그곳을 다녀간 어떤 손님을 통해 우연히 이 노래를 알게 되었다. 몽골은 막연히 가보고 싶은 여러 여행지 중의 하나일 뿐이었는데, 노래 가사의 '고비 사막'에 꽂혀 그해 안식월을 이용해 20일 동안 몽골 여행을 감행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미션을 부여했다.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엽서 한 장'이라는 가사에서 착안한 것인데, 고비 사막에서 누군가에게 엽서 쓰기, 바다 같은 거대한 호수 '홉수골'에서 얼음 깨고 수영하기, 넓은 초원에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으며 책 3권 읽기. 그는 지난 9월, 몇 년 동안 일했던 바우길 사무국 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비행기표는 편도다.

강릉휴게소 – 솔바위 – 골아우 – 송양초교 – 죽헌저수지(1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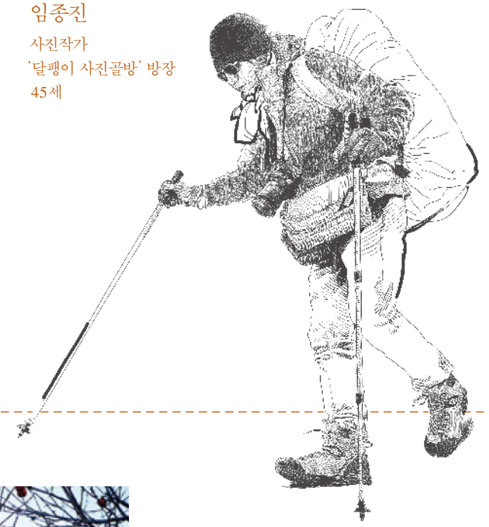
스테파노의 뒤를 따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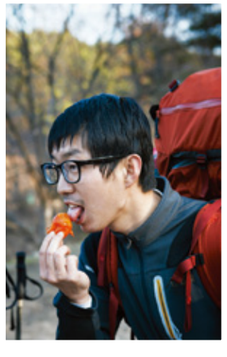
▲노래의 뜻 | 간밤의 노래 열기는 대단했다. 즐겨 듣거나 부르는 노래에는 은연 중에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정서와 지향이 실리기 마련이니, 긴 저녁 내내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느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았던 것이다. ▲심스테파노의 길 | 오늘 걸어갈 길은 조선말 병인박해 때 순교한 심스테파노라는 천주교인이 서울로 압송되어 가던 길이다. 그는 가혹한 고문에도 늘 활달했으며, 치사致死의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 분명한 확신과 초연超然의 세계를 생각하면, 그저 아연할 뿐이다. ▲또 한 명의 스테파노 | 김대장이 오늘의 길잡이로 임작가를 내세웠다. 늦게 알았는데, 그의 세례명이 스테파노다. 우연치고는 별스러웠다. 임작가의 사진 작업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어져 왔다. 티베트 난민촌, 이라크 분쟁 지역, 캄보디아 빈민촌과 장애 청소년 직업 학교 등, 그의 카메라는 늘 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향하곤 했다. 세례명이 아니었어도 그는 심스테파노길의 길잡이로 적임자였다. ▲구름 속의 산책 | 초반에 멍에재를 지나 솔바위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른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길이 순하고 평탄해서 하루 일정이 평온하고 고즈넉했다. 죽헌저수지의 명소인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카페 앞 공터를 오늘의 야영지로 정했다. ▲추억은 방울방울 | 우대원이 강릉대 산악부 시절의 추억을 얘기했다. 죽헌저수지 둘레길과 80년대 풍의 이 카페는 강릉 젊은이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인 듯하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카페 실내에서 각자 지난 추억에 잠겼다. ▲모닥불 토크 | 강릉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 모닥불을 지피기로 했다. 불에는 내면의 빗장을 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불가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하다 보니 쉽게 발설하기 힘든 생각들, 느낌들, 고민들이 누설되었다. ▲달밤의 혈투 | 카페 주인장과 달밤에 1대 4의 배드민턴 시합이 벌어졌다. 50대의 주인장 혼자를 20대, 30대, 40대가 연합한 넷이 이기지 못했다. 약이 오른 김대장과 우대원이 한밤중까지 혈투를 벌였고, 승리 대신에 발의 물집과 근육통을 얻었다.

세상에는 소리가 있다

임종진
사진작가
'달팽이 사진골방' 방장
45세



짙푸른 하늘은 눈이 부셨지만 이내 익숙해졌고, 선자령 능선의 눈꽃도 고혹적이었지만 오래 시선을 잡아놓지는 못했다. 정작 내 마음을 잡아끈 것은 소리였다. 내 몸이 자연과 부딪칠 때마다 나는 온갖 소리들. 융단처럼 쌓인 낙엽을 디딜 때마다 발걸음 밑에서 들려오는 매번 다른 버석거리는 소리들, 눈길을 걸을 때의 미끄러운 소리들, 계곡과 능선을 따라 매섭게 날아온 칼바람이 몸을 훑고 지나갈 때의 날카로운 소리들, 흙과 잔돌과 바위와 마른 들풀들이 내 걸음과 어울려 내는 각기 결이 다른 그 소리들. 걸음마다 들려오는 그 환상의 변주곡에 마음이 이끌려, 걷는 내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랐다. 내가 세상과 더불어 내는 소리들, 세상이 내게 되돌려주는 나의 소리들.



Song of a Lifetime 04

김광석의 <내 사람이여>

"내가 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는 김광석의 오랜 팬이다. 한겨레 사진부 기자 시절부터 그의 공연을 쫓아다니며 많은 사진을 찍었고, 『김광석, 그가 그리운 오후에』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에게 김광석은 마음의 떨림 없이는 상기할 수 없는 이름이다. 당연히, 그는 '내 인생의 노래'로 김광석 노래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내 사람이여>.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작은 별이 되어도 좋고,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꽃이 되어도 좋고,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새가 되어 내가 가진 시를 들려주겠다는 내용인데, 특정한 한 이성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세상 사람 모두에 대한 노래라고 애써 주장하는 품이 아무래도 미심쩍다. 그 사람이 '너무 멀리 서 있'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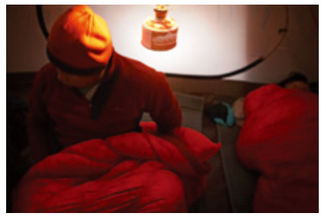
mont-bell
mont-bell
mont-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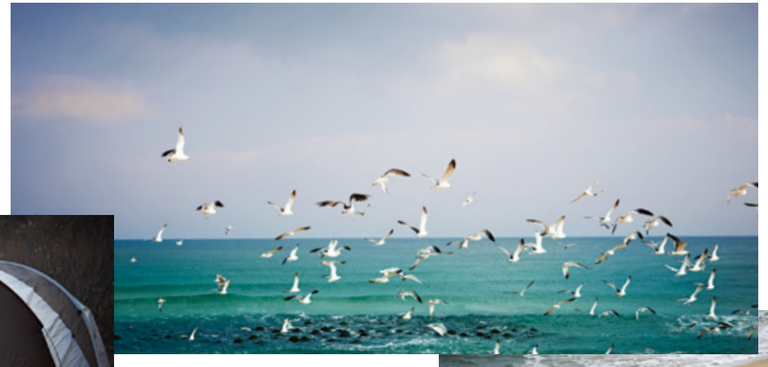
mont-bell

죽헌저수지 – 오죽헌 –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 – 해송 숲길 – 강릉항(14km)

길은 다시 시작되고

▲늦잠 | 김대장의 "일어나세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7시가 다 되어 있었다. 늦게까지 모닥불에 홀리고, 술과 얘기에 취하고, 심야 배드민턴에 몰두한 여파였다. 비가 가늘게 흩뿌리는 촉촉한 아침이었다. ▲적응 | 분명 날은 더 추워진 것 같은데, 몸이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덜했다. 야영 첫날이 가장 추웠다. 모든 쓰라린 첫 기억처럼. ▲콤비 | 김대장과 우대원은 강릉대 산악부 선후배 간이다. 울릉도 둘레길에서 바우길로 갑자기 코스가 바뀌었는데도 일정이 물 흐르듯 차질없이 이어진 데에는 오누이처럼 살가운 이들 콤비의 일사분란하고 프로페셔널한 팀웍 덕이 컸다. ▲바다 | 오죽헌을 지나고 경포호를 지나니 바다, 바다다. 간절기의 바닷가는 게으른 갈매기들만 이리저리 몰려다닐 뿐, 한산했다. 여기서부터는 해송 숲길로 강릉항까지 이어질 것이다. ▲해피 트레킹 | 4박 5일 내내, 날씨도 좋았고, 길도 좋았고, 사람들도 좋았다. 그리고 많이 말하고, 웃고, 노래했다. ▲강릉항 | 마침내 점심 무렵을 지나 강릉항에 도착했다. 예정대로라면, 강릉항은 출발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강릉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를 보자, 누군가 그랬다. "한 게임 더?" ▲후일담 |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대장은 '남에 번쩍' 남해에 가서 MTB 라이딩을 하고 돌아온 후 '수컷'을 다른 '수컷'(색깔만 다른)으로 바꿨고, 김실장은 약간의 종아리 통증에 시달린 후 패션 사진 현장으로 복귀했고(길이 그립다는 전언이다!), 우대원은 볼더링 대회에 참가했다가 다리를 다쳐 오래 꿈꾸어온 인도 여행을 연기했고(빠른 쾌유 기원!), 임작가는 사진 강의하고 온갖 사람들 만나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다(다정도 병이다!). ▲행복의 수사 | 그리고 박편집장. 트레킹 원고와 오래 씨름했다. 인간의 불행에 익숙한 그의 문장으로는 걷는 내내 웃음과 노래가 떠나지 않았던 이 '해피 트레킹'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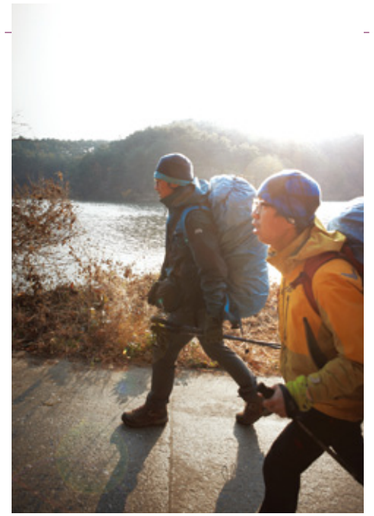




길에서 만난 사람

이순원
소설가
강릉바우길 이사장

바우길을 조성한 주역인 소설가 이순원 선생은 우대원이 얼마 전까지 모셨던 직장 어른이기도 하다. 선친의 묘역을 정비하러 우추리에 내려온 이순원 선생을 마침 뵐 수 있었다. LS네트웍스에서 발행하는 <보보담> 트레킹 취재팀이라고 밝히자, 바우길 개척 초창기에 프로스펙스에서 후원해 준 얘기를 거론하며 반가운 기색을 표했다. 그는 바우길의 성격을 묻자, '친환경'과 '힐링'이라고 규정했다. 200km 정도 되는 바우길 전 구간에 인공 목재 데크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의 이러한 '친환경'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다. '관광'이 아닌 '힐링' 개념 또한 바우길을 삿된 잇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온전히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길'이 되게 해줄 것이다. 바우길 자체도 건강하게 지켜낼 것이고. 바우길은 좋겠다. 이런 굳세고 든든한 어른이 계시니.



‘공정 백패킹 윤리 지침’ 제안

Fair Backpacking Ethics, FBE

트레킹과 백패킹 동호인이 늘면서 지역의 자연 환경 오염이라는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도보 여행자에게 ‘꿈의 산책길’로 불리는 존 뮤어 트레일을 단독 종주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올바른 백패킹 문화의 정립을 위해 애써온 이현상 트레커가 가칭 ‘공정 백패킹 윤리 지침’의 초안을 제안한다.

▲동행 인원을 적게 하라 무리가 많아질수록 도덕심은 반비례하여 해이해진다. 무리는 가능한 한 적게 하라. 가급적 혼자가 좋으며, 최대 4명 이하로 하라. 무리가 많아지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다른 여행객들과 주변의 뭇짐승들에게 해롭다.

▲ 패킹을 가볍게 하라 배낭을 메고 산으로, 숲으로, 강가로 가는 것은 자연과 동화되어 내면을 돌아보고, 벗들과 나지막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제 무겁게 메고 온 배낭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마저 고기 기름과 술과 음식 찌꺼기와 배설물로 오염시키려고 한다. 가볍게 가라. 그리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보며, 더 많이 생각하라.

▲ 음식을 줄여라 1박의 백패킹에서 음식이 부족해 조난당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매번 음식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많은 음식은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스토브의 연료를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제한된 지구 자원인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탄소 배출도 많아진다. 먹는 즐거움은 저잣거리에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지방과 단백질로 주5일을 보내고 있다.

▲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라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며, 더러는 존경하는 조상님을 모신 곳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그곳은 엄숙한 곳이며, 존중해야 할 곳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초청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다. 방문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존중하라. 예의바르고 겸손하게 행동할 것이며, 큰 소리 내지 말라. 마주치는 그들과 진정성 있는 인사를 나누어라.

▲ 지역 경제에 기여하라 가능한 한 로컬 푸드Local Food를 이용하라. 사소한 것이지만 방문하는 지역의 시장,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를 이용하라. 돌아오는 길,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한 끼를 먹으며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그 동네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라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는 희귀한 철새가 계절을 달리하며 찾아오고 있으며, 그곳에만 식생하는 풀과 나무가 있다. 우리가 작은 관심만 가져준다면 우리는 평생 볼 수 없는 진귀한 동식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방문으로 상처 입을 지역의 자연 환경을 위해 기여할 바를 찾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 지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져라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어느 산, 어느 길모퉁이를 돌아가도 저마다의 사연과 숨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투박한 봉우리 이름 하나를 더 알려고 애쓸 것이며, 마을 어귀의 나무 한 그루가 가진 사연에 귀 기울여보라.

글 | 이현상 2011년 존 뮤어 트레일을 단독 종주했다. 제로그램ZEROGRAM의 장비 개발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자출, 그 즐거운 불편에 대하여

An Inconvenient Pleasure : Enjoying the World in All Its Beauty

송인혁(촬영감독), 주권(성형외과전문의), 위진복(건축가), 안영춘(기자). 이들은 일터와 집을 자전거로 오가는 시티라이더다. 혼잡한 교통, 과중한 업무, 고단한 육신, 궂은 날씨에도 자전거 출퇴근은 계속된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음주량이 감소하고 뱃살이 들어가는 온갖 효과는 덤. 안장 위의 명상으로 생의 균형을 잡아간다.

글 | 은유 에디터. 수년 간 자유기고가로 일했으며 『황제처럼』(공저) 『올드걸의 시집』을 펴냈다.

사진 | 김도원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후 프랑스에서 조형예술과 사진을 공부했다. 세계적인 사진가이자 아트디렉터 장 폴 구드Jean Paul Goude의 어시스턴트로 3년 간 일하고 2009년 귀국, 현재 <하퍼스 바자> <마리 끌레르> <메종> <엘르> 등 패션잡지에 감각적인 사진들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서양에서 자전거를 가져와 고종황제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인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박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브란스의과대학 설립자이자 선교사인 그는 1893년 조선을 방문했다. 궁궐로 출퇴근할 때 가마나 인력거도 탔지만 자신이 가져온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전한다. 이후 자전거는 사람과 세상을 잇는 메신저로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다. 산업이 발달하고 노동이 분화되고 도로가 복잡해지면서 일상에서 멀어졌던 자전거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반려기기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하는 곳을 원할 때 데려다 주고, 인간의 질주 본능을 충족시키고,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고, 기름 값이 들지 않는 자전거의 ‘착한 본성’ 때문이다.

“어른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면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영국의 소설가 H. G. 웰즈는 말했다. 자전거 도로가 전국에 실핏줄처럼 번지는 요즘, 자출 권하는 사회가 됐다. 이미 한 발 앞서 자출족 대열에 나선 이들을 만났다.

나는 지구를 아름답게 즐기는 사람

–

MBC 촬영감독 송인혁

송인혁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등 '지구의 눈물' 시리즈를 담당한 MBC 촬영감독이다. 황제펭귄의 생애주기를 담은 <남극의 눈물> 촬영 당시에는 영하 70도의 혹한을 견디며 300일간 남극에서 살았다. 극지탐험에 가까운 일정을 마치고 나자, 그는 존재변이를 경험한다. 취미가 바뀌고 습관이 변하고 출퇴근 수단이 달라진 것이다.

"남극에 1년 갔다 왔더니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자전거가 유행이더라고요. 한 후배가 직접 조립해서 자전거 타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해봐야지 싶었어요."

그는 자전거 정비 지침서를 보고 연구한 끝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자전거'를 조립한다. 그의 민트색 자전거는 프레임은 룩셈부르크, 바퀴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수공예 조립품.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세팅하느라 제작에만 6개월이 걸렸다.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취미에서 자출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올해 초부터 170일간 이어진 MBC 파업이다. 이전에는 촬영 스케줄에 따라 새벽 5시나 아침 7시 등 출근시간이 들쑥날쑥했으나 파업 기간 중에는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면서 자출이 가능했다. 자출 동선은 장안동 중랑천에서 여의도까지. 처음에는 1시간 20분 걸렸는데 지금은 50분에 주파한다. "몸의 성능이 무척 좋아졌다."

업무 복귀 후, 일산 MBC 사옥으로 가는 날을 제외하고 여의도 본사로 출근할 때 주3회 정도 자전거로 회사를 오간다. 자출을 못한 날은 집에 와서 뚝섬까지 왕복 40분 거리를 달린다. 이 밖에 근무 중 잠깐 우체국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점심시간에 냉면 먹고 싶으면 마포대교를 훌쩍 넘어가서 먹고 온다. 자전거를 곁에 두자 자동차와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이는 '지구의 눈물'을 본 자의 소박한 결심이기도 하다.

"남극에 있으면 저절로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황제펭귄은 먹이 활동 하고 새끼 낳고 기르고 삶이 간단명료해요. 자연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거기서는 담배를 피우고 꽁초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아들이랑 영화보고 햄버거를 먹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회용품 덜 쓰고 커피 마셔도 빨대는 안 쓰려고 해요. 자전거 출퇴근도 평소에 할 수 있는 작고 쉬운 일이죠. 자전거가 매연은 안 내보내니까요."

나는 자전거 고수가 아니다, 환경운동가도 아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죽기 살기로 타는 것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는 송인혁. 그에게 자전거는 '생활 속의 자전거'다. 황제펭귄이 눈밭을 뒤뚱뒤뚱 오가듯 그는 오늘도 자전거에 몸을 싣고 대지를 달린다. "저는 그냥 아름답게 지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JK성형외과에는 10여 명의 '자출팀'이 있다. 좌로부터 홍보실장 박상옥, 전문의 배준성, 전문의 백혜원, 대표원장 주권, 수술팀장 이영옥, 전문의 김성식

자전거 타는 의사에게 '바른 의술' 나온다

–

JK성형외과 대표원장 주권

성형외과가 밀집한 서울 압구정동. 오전 9시가 되자 JK성형외과 건물로 자전거 대여섯 대가 속속 도착한다. 'JK' 영문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에 헬맷까지 갖춘 이들은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맞이할 의료진. 그 중심에 주권 대표원장이 있다. 그는 명동에 병원을 개원한 97년부터 지금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자출 1세대'다. 그리고 안면기형전문 개인병원이 직원 100여 명의 JK종합성형전문센터로 성장하는 사이에 자전거 출퇴근은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 '바른 정신, 바른 신체에서 바른 의술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JK전 의료진에게 자출을 권장한 것.

"우리 원장들은 수술대에서 10시간 넘게 서 있는 큰 수술이 많죠. 저런 머슴이 없을 정도로 일합니다. 대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는데 저희는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합니다. 의사들이 술을 마시는 건 선배들에게 본 게 그것뿐이라 그렇거든요. 누가 타면 재미있어 보이니까 따라 타더라고요."

JK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외에도 중국인, 일본인 등 성형관광 환자의 큰 수술이 많다. 또한 성형외과의 특성상 수술 집도는 물론 상담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JK성형외과 의료진은 평소 자전거로 기초체력을 길러 놓기 때문에 밀려드는 상담과 수술을 무리없이 해낼 수 있다고 주권 대표원장은 말했다. 자출 문화는 또한 직원들 소통에도 기여한다. 둘만 모여도 자전거 용품 뭐가 있더라, 자전거 라이딩 어디로 갈까를 얘기한다. 공통의 관심사로 똘똘 뭉쳤다. 주권 대표원장은 "자전거 얘기하는데 대표가 어디 있고 사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CEO로서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에 자전거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JK성형외과 자출족은 10여 명, 사이클팀이 20여 명이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파워 훈련법을 실시하는 등 거의 선수급 기량을 갖췄다. 회식날은 한강변 라이딩 후 저녁을 먹고, 홍천으로 워크샵을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

주권 대표원장은 자전거 마니아로 유명하다. 골프장의 푸른 잔디를 봐도 자전거 탈 생각에 가슴이 부푸는 소년이고, 국내에 딱 두 대 수입된 자전거 '콜나고 페라리Colnago Ferrari'를 보유한 수집광이다. 이촌동 집에서 압구정동 병원까지가 너무 가까워서 퇴근할 때는 방화대교나 팔당대교를 돌아서 귀가하니, 해질녘에는 안장 위의 명상가가 된다. '주선일미走禪一味', 달리는 맛과 참선의 맛이 같다고 그는 말한다.

"간화선(화두를 보는 선禪)이라고 하죠.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화두를 붙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항상 문제는 보지 않고 행할 때 생기거든요. 자전거는 생각을 벗어나서 제대로 상황을 보게 합니다." 직시直視. 정확히 보고 진실을 보는 일을, 자전거는 돕는다는 얘기다. 그가 의료인이자 경영인으로서 생의 중심을 잡아가는 방법은 자출 경력 15년 장수 비결과도 일치한다.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도로 나눠 쓰는 영국의 자출 체험

–

건축가 위진복

그는 승용차가 없다. 9년 간 영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자 운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 복잡해진 도로, 더 늘어난 차들. 마침 집과 회사가 가깝다. 서래마을에서 서초역까지 10분 거리. 영국에서 그랬듯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짧은 시간 반복되는 거리를 통과하면서 몸에 육박해오는 많은 것들을 본다. 자전거가 제공하는 시각적 이로움을 즐기는, 그는 건축가다.

"영국에서 다니던 설계사무소 직원이 150명이었는데 40명이 자출을 했어요. 회사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면 30%를 지원해주고 보험에 가입해주고 샤워실도 있었죠. 무엇보다 자전거 길이 좋아요. 사슴이 뛰어다니는 리치몬드 파크를 가로질러서 가는데 석양이 지면 너무 아름다워요. 아스팔트도 매끄럽고 자전거 타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위진복은 런던 리치몬드에서 헤머스미스까지 2년간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왕복 1시간 30분 거리. 유년 시절에 잠깐 자전거를 타던 초보자가 비즈니스 셔츠와 신발을 가방에 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출족 대열에 합류했으니, "문화가 사람을 바꿔주더라"고 말한다.

위진복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재충전을 위해 영국의 명문 건축학교 AA스쿨로 떠났다. 교육 과정을 마치고 킹스턴 대학교에서 1년 간 학생을 가르치고 영국 왕립 건축사(ARB)로 6년을 일했다.

생의 노른자위를 영국에서 보낸 그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아름다운 공존이었다.

"차들이 자전거와 도로를 같이 쓴다는 인식이 있어요. 자전거를 탄 채 자동차 지붕을 잡고 도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차도에서 클락숀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할머니도 운전을 하거든요. 자전거랑 차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도 자출이 가능했죠. 자전거로 일하러 가는 게 중요하지 레저는 덜 중요합니다. 레저는 남은 근육을 쓰는 행위지만 출퇴근은 누구나 하잖아요. 기름 5리터 쓸 일을 자전거 타면 안 쓰니까요."

영국은 비가 거의, 매일, '짜증나게' 자주 온다고 한다. 그래서 자전거용 물 빠지는 신발과 비를 가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타고, 폭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타야 한다. 타기 전에는 격정스러워도 막상 타면 좋단다. 살면서 여러 가지 탈 것을 이용하지만 속도마다 경험의 스케일이 다르다. 유리창이 없는 자전거는 있는 그대로 보고 가까운 걸 볼 수 있었다. "자전거는 몸에 직접 영향이 오니까 여긴 오르막, 여긴 자갈길 등 주변을 해석하고 다녀야 해요. 길에 예민해지죠."

건축은 예술이고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건축가 77인에 선정된 위진복은 자전거를 통해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서울의 시공 문화에도 녹여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일일 2시간 자전거로 운동 · 숙취 해소 · 명상

–

월간 <나·들> 편집장 안영춘

소년은 자전거로 중학교를 통학했다. ‘자전거하고 나하고’ 40분 거리를 초고속으로 냅다 달리며 쾌감을 맛보았다. 아버지랑 고물상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하고 고쳐가면서 자전거를 탔다. 고등학교 때 스쿨버스를 타게 되어 페달을 밟지 못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자전거를 오매불망 그리워하면서도 선뜻 돈을 쓰지 못하는 ‘가난한 기자’를 연민한 한 친구가 자전거를 선물했고, 그때부터 자출을 시작했다. 자출 3년차. 경기도 화정에서 공덕동 로타리 지나 만리동 고개의 <한겨레> 사옥까지, 자전거로 약숫물 같은 아침 공기를 가른다. 편도 25km 난코스다.

“번잡한 길은 차라리 안전해요. 갓길을 달리면 되죠. 가장 놀랄 때는 자전거가 가는데 맞은편에서 확 좌회전하는 경우예요. 차들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뒤편에 차가 있든 없든 수신호를 보내야 하죠. 가장 위험 구간은 램프인데, 그때는 자전거 속도를 애매하게 해야 해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돼요. 차가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영춘 기자는 지난 10월 한겨레가 창간한 사람매거진 <나·들> 편집장이다. 잡지 창간을 앞두고 밤을 낮 삼아 일할 때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막판에 딱 3일만 화석연료를 태웠다.” 교통량 많고 운전 난폭한 ‘비정한 거리’ 서울 도심을 자전거로 통과하다니, 남들은 목숨 걸고 타는 걸로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목숨 지키기 위해 탄다고 말한다.

“자전거 출퇴근이 고될 꺼라 생각하는데 버스나 승용차를 타는 것보다 10분 밖에 차이나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고 바람이 도와주면 자전거로 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몸이 버텨주는 거죠. 바쁠 때는 자정이 다 돼서 집에 가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복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바람에 날려요. 어쩌다 차를 가져가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자전거 타고 집에 가면 바로 자요.”

아침에 눈 떠 몸이 아주 힘든 날은 경의선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출근한다. 신촌 기차역에 내려서 회사까지 자전거를 탄다. 과음한 다음 날은? 당연히 자출이다. “낑낑거리며 헛구역질 하면서 땀을 빼니까 술이 잘 깬다.” 속이 부대껴 자전거 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숙취 해소에 자전거만한 게 없다고 너스레다. 땀이 많은 여름철에는 한겨레 사옥 지하 발송장 옆 샤워장을 이용하고 평소에는 ‘내 코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씻는다. 에피소드도 많다. 그의 자출 복장은 등산바지에 윈드재킷. 근무복은 가방에 넣어 다닌다. “하루는 옷을 안 챙겨 왔어요. 하필 그날 사장실에 불려 갔죠. 어떡해요. 선배가 입고 있는 정장바지 뺏어서 입고 선배에게 내 등산바지 입혀 놓고 사장실에 갔죠.(웃음)”

도로 사정, 잦은 술자리, 야근, 샤워 시설 등 어느 하나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그에게는 외려 자출의 이유로 고스란히 환원됐다. 대다수 도시인은 일터와 집을 오갈 때 첨단 운송수단에 의탁하고 비노동시간에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지만, 그는 반대다. 자꾸만 멀어지려는 노동과 삶을 두 바퀴로 매끈히 잇는다.

조지아 오키프의 대지 '산타페'

나는 가이아가 되리

Something in the Air : Geogia O'keeffe and Santa Fe

01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 산타페는 대지의 맨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광대무변한 붉은 사막과 짙푸른 하늘은 태초의 기운과 영감을 제공한다. 꽃과 짐승과 뼈를 즐겨 그렸던 오키프는 "이곳에서 나는 내 자신이 된다"고 말했다. '사막의 고독한 영혼'으로 살아간 예술가, 땅처럼 늙어간 여자 오키프의 흔적을 찾아 떠났다.

글 · 사진 | 박상미 작가, 번역가. 『뉴요커』와 『취향』을 펴냈고, 스콧 슈만의 포토 에세이 『사토리얼리스트』와 『앤디 워홀 손 안에 넣기』 등을 번역했다. '시몬느 핸드백 뮤지엄'의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난 2년간 일했고 최근 『사토리얼리스트 2』를 번역했다.

멀리 있는 땅, 멀리 있는 여자

나는 산타페를 생각하면 악몽부터 떠오른다. 산타페에 도착한 첫날 평생 기억할 만한 악몽을 꾼 것이다. 팔다리가 동강나고 유혈이 낭자한 끔찍한 꿈이었다. 내가 이 꿈을 꾼 곳은 정확히 말해 산타페에서 30km쯤 떨어진, 산타페와 앨버커키 사이에 위치한 쎄릴로스라는 허허벌판 사막 동네였다. 넓게는 산타페 카운티 안에 있다. 앨버커키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굴곡이 많은 산길로 들어서니 갑자기 건조한 지대의 풍경이 펼쳐졌고, 하늘에선 또 날씨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헷갈렸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방향 감각을 잡기 힘들었다. 작은 표지판들을 따라 겨우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 어도비 하우스스타일흙, 모래, 찰흙을 재료로 뾰족한 모서리 없이 둥글둥글하게 지은 건축 양식의 건물이 정말로 허허벌판 위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황당했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정할 때 "사막에서 자고 싶어. 사막에서 자보고 싶어"라고 어린애처럼 중얼대던 나였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날 밤 자야 할 집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은 일종의 충격이었다. 지대는 높았고 공기는 건조했다. 어색하게 반기는 주인 여자의 얼굴은 건조하고 맑은 바람을 오래 맞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여러 차례 벗겨진 듯 억세면서도 순수하고 동시에 저 멀리 있는 듯 거리감이 느껴지는 얼굴. 밤에 자기 전에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게 코요테였다는데, 동물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다. 그 날 밤 꿈에 동강 난 사지가 날아다니고 주인여자는 투숙객들을 꼬드겨 해치우는 악마로 변했다. 가까스로 잠에서 깬 후에도 그 생각에서

산타페를 벗어나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붉게 변했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년가 살던 고스트 랜치Ghost Ranch와 애비큐Abiquiu에 올라가는 길이었다. 땅의 색깔이 이렇게 선정적일 수 있나 싶었다. 피가 나기 직전 붉게 변한 살 같기도 했다. 이렇게 선연한 색의 땅이 또 이렇게 거칠다니 뭔가 뒤집어진 느낌이었다. 어쨌든 세상은 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총천연색이었다. 붉은 땅과 드문드문한 녹색과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오키프의 그림을 당장 다시 보고 싶어졌다. 동시에 그녀도, 그녀의 그림 속 관능도 정말로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떤 여자였을까. 도대체 어떤 여자였기에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02

01 오키프가 살던 산타페 인근 애비큐로 가는 길. **02** 오키프는 애비큐와 고스트랜치 저택을 사막에서 주워온 뼈 · 해골 · 뿔 등으로 장식했다.

03

깨지 않아 한참동안 끔찍한 공포감에 시달렸다. 건조한 바람과 높은 고도와 자주 바뀌는 기압과 짐승의 울음소리와 소원한 주인 여자의 얼굴 등 모든 것이 악몽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척박하기로 유명한 땅으로 온 거였다.

“공기 중에 뭔가 있다”

“이곳은 어떤 생물이 살아가기에도 척박한 환경이다. 이곳에서 살려면 식물이건 동물이건 자신으로부터 뭔가 ‘터프’한 것을 끄집어내야만 한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터프함을 보고 싶다.” 뉴멕시코에 사는 한 예술가는 언젠가 그곳에 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키프도 그랬을까? 액상프로방스하면 세잔이 떠오르듯 산타페하면 오키프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해 뉴멕시코에서 시간을 보냈고, 1949년부터는 완전히 이주하여 1986년 죽는 날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말년에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보자마자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기 중에 뭔가 있었지요. 여기가 나의 땅이라고 말해주는. 이렇게 떠벌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싫으니까”라고 말했다.

조지아 오키프 미술관은 산타페 시내에 있지만 실제로 오키프는 고스트 랜치와 애비큐에서 살았다. 애비큐는 산타페에서 80km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고스트 랜치는 그 위로 좀 더 가야 한다. 1934년 고스트 랜치에 처음 가본 오키프는 ‘이 세상 최고의 장소’라고 했다. 애초에 그녀를 생각하며 계획한 여행이었지만 사실 난 그녀의 그림을 그다지 좋아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가 살기로 선택한 곳의 풍경은 대단했다. 고스트 랜치는 지금은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지만 원래는 가축 도둑들이 훔친 가축을 숨겨 놓는 곳이었다고 한다. 도둑들은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도록 유령이 떠도는 곳이라고 소문을 내었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나중에 한 자선가가 이곳을 사들여 장로교에 기증했는데 오키프는 그 작은 일부를 특별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머무르며 그림을 그리곤 했다는 조그만 오두막에 앉아 2억 2천 년 전 땅의 흔적이 남아 있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림은 어쩌면 조지아 오키프라는 커다란 퍼스낼리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가가 창조하는 것은 예술가 자신이라고, 어떤 평론가가 말한 적이 있다.

사진가 스티글리츠의 여자

조지아 오키프는 1887년 위스콘신 주 선프레이리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인 그녀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당시는 여자가 예술가가 되는 일이 드물 때였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남자 예술가들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견해준 것 역시 남자였다. 뉴욕에서 ‘291갤러리’라는 아방가르드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Alfred Stieglitz는 1916년 처음으로 오키프의 작품을 보게 된다. 오키프의 목탄 드로잉을 본 스티글리츠는 “마침내 여자의 그림이구나!”라고 감탄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남자들만 있는 세상에 드디어 여자 화가가 등장했다는 뜻이었고, 둘째는 그녀 작품의 소재에 관한 것이었다. 오키프의 꽃 그림이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은 유명하고도 자명한 사실이다. (여성의 성기를 소재로 한 작품인 쥬디 시카고Judy Chicago의 ‘디너 파티’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그 이전 시기에 그려진 이 추상의 드로잉도 어딘가 ‘여성’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다. 스티글리츠의 말은 그 전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어떤 여성성, 여성의 감성을 종이 위에 표현했다는 사실에 대한 감탄이기도 했던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그 이듬해인 1917년 파격적으로 오키프에게 첫 개인전을 열어주었다. 그러고 3일 후 미국이 독일에 전쟁을 선언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라 갤러리 문을 닫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나는 끝났지만 세상에 한 여자를 주었다.” 그즈음 그들 간에는 열렬한 편지가 오가고 있었다. 1년 후 23살 차이의 이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스티글리츠의 이 언명은 그로부터 몇 년 후 더욱 진실이 되었다. 1921년 스티글리츠는 자신의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 전시에 오키프를 모델로 한 사진들을 전시한 것이다. 코트 깃을 쥔 그녀의 인상적인 손가락들, 나이트가운만 걸친 부스스한 모습, 그리고 누드. 그 중 일부는 대낮의 정사 후 침대 위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스티글리츠가 세상에 여자를 준 것은, 그것도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던 여자를 ‘몸째’ 선사한 것은 분명했다.

그렇게 해서 오키프는 미국의 현대미술사에서 유명한 ‘여자’가 되었다. 남자들의 직업을 가진 드문 여자였고,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내는 여자였고 (그녀는 그 연관 관계를 끝까지 부인했다), 예술계의 유명 인사 스티글리츠의 여자였고 (스티글리츠의 이혼은 시간이 걸렸고 1924년 결혼할 때까지 오키프는 불륜의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대중에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인 여자였다. 오키프는 이 모든 ‘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유명해졌고 유명세는 작품 판매에 도움이 되었다. 화가로서 오키프는 이 모든 사실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얽혀 있었다. 작품은 추상적이었지만 큐비즘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고, 뉴멕시코에서 살면서 그 풍경을 그렸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적’이라는 수식어가 ‘여자’라는 수식어에 따라붙기도 했다.

03 뉴멕시코 특유의 어도비 양식으로 지어진 고스트 하우스. 오키프가 머물며 그림을 그리곤 했던 곳이다.

04

멀리서 혼자 땅처럼 늙어가다

오키프를 처음으로 뉴멕시코의 타오스로 초대했던 마벨 도지 루한Mabel Dodge Luhan은 이곳을 두고 '세상의 시초' 같다고 했다. 오키프가 이곳에 드나들 무렵은 스티글리츠에게 애인이 생긴 직후였다. 스티글리츠의 새 애인 도로시 노먼Dorothy Norman은 젊고 예뻤고 그에 대한 경외로 넘쳤다. 스티글리츠는 사실 피그말리온 같은 삶에 익숙해졌을 만도 했다. 오키프 전에도 패밀라 콜만 스미스Pamela Colman Smith라는 젊은 여자 예술가를 발굴하여 그의 멘토가 되었고 그녀의 경력을 키웠다. 오키프가 더 성공적인 케이스였고, 이제는 노먼이었다. 노먼은 사업가의 부인으로 부유했기에 스티글리츠의 제자인 동시에 경제적인 후원자까지 되었다. 늙어가는 피그말리온에게는 보내고 싶지 않은 여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오키프와 이혼하지 않았고 노먼과의 관계도 포기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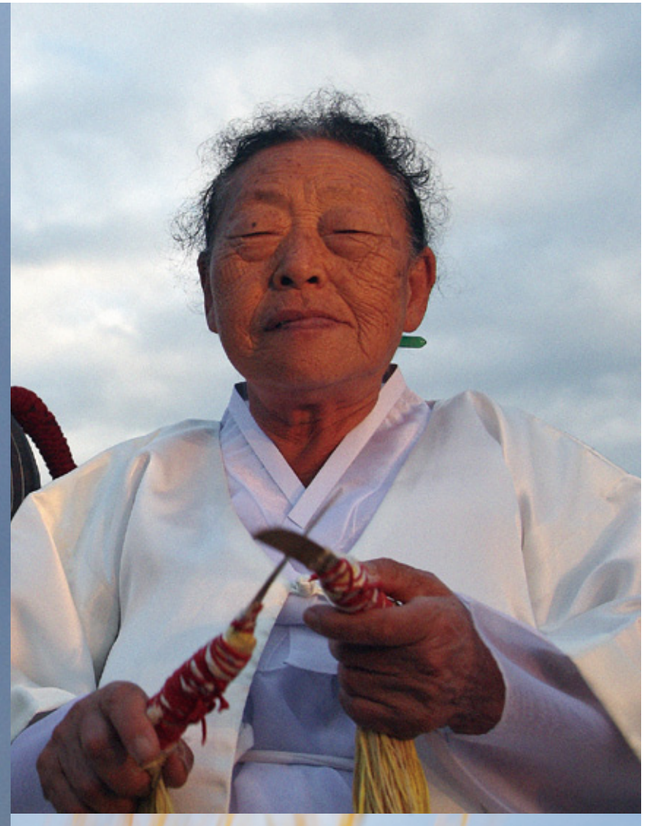
고대 로마에서 결혼식 때 신부는 신랑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고 한다. "당신이 가이우스가 되는 곳에서 나는 가이아가 되리라"라고. 가이아는 땅의 여신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남녀의 결합이 장소와 관련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오키프는 남편 곁을 지키지 않았고 스티글리츠는 뉴멕시코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오키프는 마치 스티글리츠와의 사랑을 포기하며 이 땅을 택한 듯했다. 뉴멕시코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사막으로 나갔다고 한다. 풍경에 대한 기억을 안고 돌아와 그림을 그렸는데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이 언덕들은 정말 부드럽다. 진정 멋진 대지다. 나는 가끔씩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언덕들에 누웠으면 한다." 몸의 친밀함에 실존을 내걸어 기대는 행위,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05

고스트 랜치의 지층은 2억 년 전의 트라이아스기와 1.5억 년 전의 쥐라기의 지층들이 쌓여 형성되었다. 스티글리츠가 죽은 후 오키프는 이 오래된 땅으로 영구히 이사했다. 근처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지만 오키프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뉴욕의 예술계와 어울린 것도 아니었다. 멀리서 혼자인 채 그림을 그리며 오키프는 땅처럼 늙어갔다. 늙은 오키프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깊은 주름들과 함께 이상할 정도로 아름답다. 실제로 봤다면 땅에 부는 건조한 바람이 느껴지는 소원한 표정의 얼굴이었을까. 오키프의 애비큐 집에서는 멀리 페더널 산Mt.Pedernal이 보였다. 오키프는 종종 이 산을 '나만의 산이고 내 소유'라고 했다. 이 산은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던 산으로, 원주민들은 이 산이 대지와 시간을 상징하는 '변화시키는 여자'의 탄생지라고 믿었다. 오키프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유언대로 화장되어 페더널 산 위에 뿌려졌다. 오키프는 이 산을 '멀리faraway'라고 불렀다.

06

04 고스트랜치 내 오키프 저택의 마당 풍경. **05** 고스트 랜치 입구. **06** 오키프는 애비큐에서 말년을 보냈고 1986년 산타페 세인트 빈센트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해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산 '멀리'에 뿌려져 산타페의 붉은 땅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글 | 은유 에디터.

사진 | 이한구 다큐멘터리 사진가. 1992년부터 청계천을, 1993년부터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을 등반하며 산을 찍고 있다. 서촌에서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을 운영한다. 지난 가을 류가헌에서 20년 전 찍은 군대 사진으로 사진전 <군용軍用>을 열었다.

길잡이 | 진옥섭 전통예술 연출가, 한국문화의집(KOUS) 예술감독. 2006년 <풍물명무전>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북치고 장구치고』『명인에게 길을 묻다』『노름마치』 등이 있다.

동편의 소리, 동편의 춤

오만하고 담담연한 속멋 드리우다

Living Musical Heritage : The Singers and Dancers of Estern Honam

우리 나라 판소리의 본류는 섬진강이다. 강을 중심으로 소리의 결과 파장이 다르다. 서편제가 끝을 무장무장 늘여 애절하고 처연하다면, 동편제는 망치로 탁탁 내리치듯 격하고 차지다. 순천 · 구례 · 남원을 돌며 동편 소리와 춤의 탯자리를 둘러보고, 전라도 마지막 세습무와 남원 춘향제 전설의 명무를 만났다. 이 기행에는 '한국문화의집' 진옥섭 예술감독과 국립국악원 명현 학예사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마을회관 당산나무 아래. '한국문화의집(KOUS)' 주최 전통문화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풍류로드팀 80여 명은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써 놓은 글로 전통을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용어에 갇히는 거죠. 어른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전통의 모든 것이 압축돼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인藝人을 가까이서 보고 숨소리를 들으며 전통을 이해하는 일은 살면서 자주 오지 않는 기회다. 전라도 마지막 세습무 박경자의 집을 향하는 일행의 발걸음이 그래서 바쁘다. 마당 한가득 너른 들판이 들어차는 오래된 집 한 채. 무복이 아닌 꽃무늬 몸뻬로 일행을 맞는 당골(무당) 박경자는 농사일로 등이 휜 시골 할매의 입성 그대로다. 얼굴은 쪼글쪼글 주름지고 머리숱이 줄어들어 옥비녀는 아슬아슬 매달렸다. 마루와 안방을 꽉 차지한 관객들이 그를 둘러싸자 북채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린다. "가심이 뛰야 죽겄다"며 침을 꼴딱 삼킨 당골의 목젖을 타고 바리공주 경전이 우렁우렁 흘러나왔다.

버려진 것들을 위해 울다
순천 삼설량굿 보유자 박경자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의 일곱째 딸이다. 딸이라 내다버렸다고 '바리데기'로 불렸다. 훗날 오구대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죽은 혼백이나 간다는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약수를 구해 와 오구대왕을 살린다. 후에 바리공주는 저승을 오고가며 인간의 수명을 관리하는 무당의 조상 무조신이 됐다. 버려진 것들이 버려진 것들을 위해 운다던가. 바리공주의 사연이 당골의 곰삭은 목소리에 얹혀지자 더욱 애달프다. 20여 분쯤 감상했다. 당골의 입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던 풍류로드 참가자 오계숙 씨는 "바리공주 설화를 높낮이에 따라 불러주어서 더 좋아요. 내용에 공감하니까 자꾸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싶네요" 했다. 몸은 정직하다. 배가 아프면 자꾸만 배로 손이 가듯이 마음에 밀려오는 말들을 주워 담느라 저도 모르게 가슴께로 두 손이 모아지는 것이다. 원래 바리공주 무가를 끝까지 구송하려면 1시간 20분가량 걸린다. 그 밖에도 박경자의 몸에 저장된 사설무가는 삼국지 7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한다. 진 감독은 "박경자는 꽃등심처럼 소금기가 전신에 퍼져 우러나는 소리를 가진 마지막 분입니다. 바리공주 무가는 서울 사람은 급해서 못하고 남도에는 아는 사람 없어서 못합니다. 무가 구송자도 이제 전국을 통틀어 두 세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이 자리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경자는 1931년 낙안면 일대에서 대대로 세습무로 활동해 온 무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세습무계끼리 통혼通婚을 했던 당대의 습속대로 28세 때 김순태1926~1994년와 결혼한 후 시아버지가 남긴 무가집을 보며 사설을 익히고 본격적인 당골의 길로 들어섰다. 굿판에서 잔뼈가 굵은 남편이자 스승인 김순태와 장단을 맞춰가며 굿의 기본기를 철두철미하게 익혔다. 박경자는 2008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3호 순천 삼설량굿 보유자로 지정됐고 현재 유일하게 순천 굿을 제대로 전승하고 있다. 요즘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마음이 병든 이를 위해 굿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리고 몸이 성치 않다. "순천에 매일 침 맞으러 댕김서 더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요" 한다. 그렇게 간신히 지탱한 몸을 일으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경우에만 치병과 풍요를 비는 삼설량굿 판을 벌인다.

01

02

01 '삼설량굿'이란 치병굿뿐만 아니라 씻김굿의 마지막 절차에서 행해지는 굿거리로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굿'과 놀이로서의 '극'이 어우러진 일인다역극 형태의 민속극이다. 순천 삼설량굿 기능보유자 박경자가 바리데기 무가를 구송하고 있다.
02 빗속의 풍류로드. 일행 80여 명이 진옥섭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으로부터 '판소리가 센 곳으로 굿 음악의 진원지'라는 순천을 중심으로 전통 무계의 뿌리를 잇는 세습무 박경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03 동편의 고장 구례 '동편제 판소리전수관'에서 바라본 지리산. 백두대간의 기운이 모이는 이 땅 등골의 산소리에서 동편제 소리가 움트고 전승됐다.
04 '동편제 판소리전수관'에 세워진 송만갑 국창의 동상. 왕 앞에서 소리하는 광대를 '어전광대'라 불렀다. 그들은 '국창'이란 존대와 더불어 벼슬을 하사받았다. 옛말에 "광대 집안에 국창 나기는 양반집에 정승 나기보다 더 힘들다"했으니, 대개의 광대는 국창에 이르지 못하고 '또랑광대'로 종신했다. 또랑광대는 또랑을 경계로 한 작은 마을 안에서나 행세하는 광대라는 뜻이다.

03

동편제와 서편제 소리를 섞다
구례 판소리 명창 고故 송만갑

04

구례는 동편제의 발상지다. 송만갑1865~1939년은 동편제 소리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명창으로 꼽힌다. 그를 기리기 위해 지은 '동편제 판소리전수관'을 찾았다. 풍류로드 팀은 국립국악원 명현 학예사로부터 판소리에 얽힌 명창들 이야기를 들었다.
판소리 역사가 300년이다. 1940년대 판소리를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누기 이전에는 김씨가문, 송씨가문같이 가문의 소리로 나누었다고 한다. 구례는 송흥록-송광록-송루룡-송만갑-송기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송문일가宋門一家의 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송만갑은 고종의 총애를 받아 어전에서 판소리를 불렀고 감찰직을 제수받기도 했다. 1902년 고종의 명으로 조선팔도에서 명창과 춤꾼, 기생들을 불러모아 '협률사'를 만들 때도 참가했다. 허나 송만갑이 근대 최고 명창으로 불리는 이유는 독창성 때문이다. "송만갑은 탁탁 끊는 동편제 소리에 질질 끄는 서편제 소리를 가미한 독특한 창법을 개척한 소리꾼입니다."

지금은 대궐 같은 전수관에서 명창의 삶을 돌아보지만 당대의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명창의 뿌리는 대부분 당골이다.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당골의 대를 잇고 남자는 소리와 악기를 하는 식이다. 어찌나 소리광대로 냉대를 받고 배를 주렸던지 '광대 밥그릇의 반은 눈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참다 못해 그들은 삶터를 떠났고 후손들은 입을 닫았다. 그래서 판소리 명창의 자취를 찾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고 한다. 박봉술 명창 생가를 가는 길. 광대의 눈물이 흩뿌려지는 듯 겨울비가 척척하다. 박봉술은 소년시절 목이 좋고 공력이 있어 시골에서 소년 명창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과도하게 수련하다가 목을 다쳐 고

06

07

음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다시 목을 얻었지만 목이 탁하고 고음이 나지 않아 가성으로 소리했다. "임금 앞에서 창하던 사람인데 고향 오면 하대가 심해서 이사를 갔지요. 명창들은 호적세탁을 많이 했습니다." 명현 학예사는, 박봉술 명창이 집을 내놓은 지 5년이 되었는데 당골네 집이라 재수 없다고 사는 사람이 없었고 겨우 임자를 만나 쌀 일곱 가마니에 집을 팔았다는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솔길 굽이굽이 걸어가야 만나는 외딴 집에서 그의 쓸쓸한 소리길을 되짚어보았다. 다음 행선지는 남원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육모정'이다. 육모정은 국창 권삼득1771~1841년의 득음터로 유명하다.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글보다 소리를 좋아해 집안에서 쫓겨난 양반광대다. 육모정 아래 넓고 편편한 마당바위에서 그가 소리 한 곡 하고 계곡물에 콩 한 알 던진 것이 무려 콩 서 말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단련된 소리는 '산소리'라는 장르를 낳았다. 송씨 소리, 김씨 소리 같은 가문 소리처럼 산 소리, 마당 소리, 방안 소리의 구분이 생겼다. 소리꾼의 필수 코스가 된 육모정은 예서 듣는 소리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귀머거리 빼고는 다 노래 들으러 튀어나오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땅거미 질 무렵, 지리산이 풀어 놓는 유장한 물소리가 더욱 거센 가운데 풍류로드팀은 전남숙 소리꾼과 배양순 고수의 '홍보가'를 들으며 흥취에 젖었다.
공연이 끝나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비를 피해 자리를 옮긴 일행은 숙소의 넓직한 홀에서 여성농악단 '팔산대'의 오채질굿과 오방진굿의 화려한 판굿을 감상했다. 호남우도농악의 신명나는 가락에 어깨부터 흥이 오르자 박수장단으로 호응했다. 호남우도농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1960년대, 여성농악단이 순회 공연을 가면 마을 촌로들이 양말 틈에 꼬깃꼬깃 감춰둔 종이돈을 서슴없이 꺼냈다고 한다.

05 남원 육모정 마당바위에서 전남숙 소리꾼이 홍보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있다. '일고수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판소리에서는 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06 구례 박봉술 생가를 방문하고 돌아나오는 풍류로드팀.
07 호남우도농악은 1950~70년대까지 유랑했던 여성농악단에서 크게 발달했다. 우도농악은 장구가 발달해 북을 쓰지 않고 쇠(꽹과리), 징, 장고, 소고로 구성한다. 다채로운 변주를 구사하는 장구와 상쇠가 쓴 화려한 부포가 여성에게 잘 맞아 인기가 좋았다. '팔산대'는 여성농악단의 예능을 잇고 있다.
08 2011년 6월 19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공연 <춤> 무대에서 조갑녀가 민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남원 춘향제의 전설로 불리던 조갑녀는 열여덟에 결혼한 후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인 2006년 <어머니의 춤>에 다시 나섰고, 2008년 <천년만세>, 2009년 <춤 조갑녀>에 출연했다. 2012년 10월, 풍류로드팀을 위해 광한루에서 동편 춤의 춤사위를 보여주었다.

08

"춤은, 흥금을 들키지 마라"
남원 민살풀이춤 조갑녀

'춤은 조갑녀'. 남원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말이다. 조갑녀는 아홉 살 나이로 제1회 춘향제에 화동으로 참가하고 열두 살에 이미 승무를 선보여 "남원에서 명무가 났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남원 승사고 낙성식에서 열세 살 조갑녀가 승무를 추면서 190m다리를 건너니 남원 사람들 사이에서 "선녀가 다리를 건너는 것 같더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전래동화 속 주인공 같은 인물. 남원 춘향제 전설의 명무가 광한루 내 광한누각에 버선발을 드리웠다. 망구십望九十의 나이다. 피천득이 묘사한 대로 '모시같이 섬세하고 깔끔하고 옥양목같이 깨끗하고 차가운' 어머니가 된 명무. 딸의 부축을 받고 지팡이에 기대어 발걸음을 뗀다. 아침햇발 드는 자리에 새하얀 한복 차림으로 살포시 앉은 모습은 눈사람같이 영롱하고도 아슴아슴하다. 진 감독의 간청으로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선 조갑녀. 일순 아득한 정적이 지나가고 시나위의 애잔한 가락 위로 느리게 두 팔을 띄워 올렸다. 부드럽고 조촐하나 사려 깊은 춤사위. 무심한 마음에 고도의 몰입으로 나아가고 들어가던 명무의 소맷자락이 스르르 가라앉으며 꾸벅 절로 이어졌다.

"춤은 좀 서운하다 싶을 때, 박수 치기 전에 끝내야 해요. 박수 친다고 계속 하지 말고. 조갑녀 선생님이 그러셨죠. 춤을 출 때는 "흥금을 들키지 마라". 남이 빤히 수를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춤이냐는 거죠. 우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동편제 민살풀이춤, 조갑녀님의 춤을 보았습니다. 지팡이만 짚고 있어도 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또 이 춤을 볼지 아무도 모릅니다. 60년 전 남원에 사는 노인들 빼고 광한루에서 조갑녀의 춤을 본 게 우리가 유일합니다."

09

조갑녀는 1923년 전북 남원에서 다섯 자매 가운데 맏딸로 태어났다. 부친 조기환은 남원 권번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선생님이었고, 고모 조기화는 남원춘향제 첫 회 행사부터 총연출을 맡았던 유명한 예기였으며, 훗날 전주의 명무 장녹운은 조갑녀의 조카딸이었으니, 뿌리 깊은 예인 집안이다. 권번券番은 예기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조선시대 예능인 양성소다. 조갑녀의 춤을 놓고, 고종 때 어전에서 춤을 춘 명무 이장선1866~1939년은 "조갑녀의 몸 안에 춤이 들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렇게 만개하던 조갑녀는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결혼과 동시에 홀연히 사라졌다. 이후 71년 광한루 경내 완월정이 완공되어 그 해 춘향제에 승무를 추고 76년 춘향제 행사에 축하공연으로 살풀이춤을 추었다. 그리고 36년 만에 광한루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춤에 오만한 뼈가 들어 있는 듯 꿋꿋한 동편의 춤'을 본 일행은 진 감독의 제안에 따라 다 같이 조갑녀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 무대의 진한 여운이 고인 자리는 다섯째 딸 정명희의 승무로 채워졌다. 정명희는 "광한루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출 수 있어 기쁘다"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동편 춤이 전승되는 중요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한 시절 생을 꽃피운 삶의 자리, 광한누각을 내려가는 조갑녀의 뒷등은 처연하고,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예인을 바라보는 눈길은 숙연하다. 가슴에 이는 파문을 어찌하지 못하고 몇 사람은 눈가를 적시고 어떤 이는 다가가 건강을 빌어드린다. 소매 끝을 잡고 이별한다는 뜻의 메별袂別의 장면이다. 예인의 삶을 가까이서 호흡하는 풍류로드. 어르신 한 명이 돌아가시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자리였고, 오래된 미래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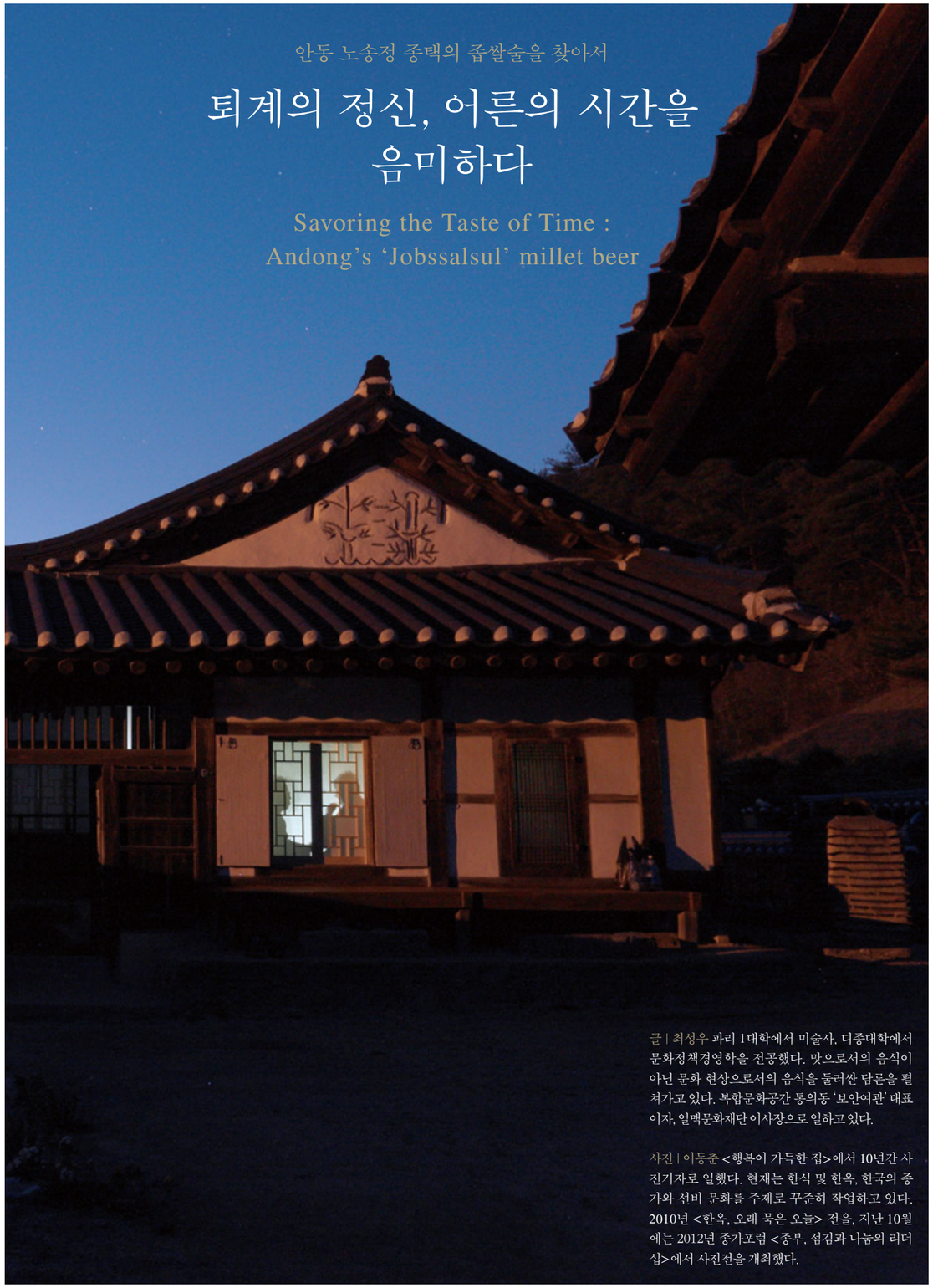
09 조갑녀가 광한루에서 36년 만에 민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살풀이는 원래 수건 없이 추는 겨. 명색이 춤꾼이라면서 수건 덕이나 볼라고 허면 쓰겄능가. 나는 수건 들고 살풀이 추는 사람들을 보면 참말로 요상하다니께.(2009. 7. 19 <경향신문> 인터뷰 중)"
10 조갑녀에게 사사를 받은 제자이자 딸인 정명희가 광한루에서 민살풀이춤을 추고 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광한루 무대에 오른 정명희가 어머니의 춤 철학을 절제된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안동 노송정 종택의 좁쌀술을 찾아서

퇴계의 정신, 어른의 시간을 음미하다

Savoring the Taste of Time : Andong's 'Jobssalsul' millet beer



글 | 최성우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 디종대학에서 문화정책경영학을 전공했다. 맛으로서의 음식이 아닌 문화 현상으로서의 음식을 둘러싼 담론을 펼쳐가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통의동 '보안여관' 대표이자,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 | 이동춘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10년간 사진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한식 및 한옥, 한국의 종가와 선비 문화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하고 있다. 2010년 <한옥, 오래 묵은 오늘> 전을, 지난 10월에는 2012년 종가포럼 <종부,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01

대학시절부터의 오랜 지기 이문재 시인과 함께 가양주 취재차 안동 노송정 종택老松亭 宗宅을 방문하게 되었다. 시인을 처음 만난 것은 이범용, 한명훈이 대학가요제에서 <꿈의 대화>를 부르며 "우리들의 꿈속엔 외로움도 서러움도 없다"고 열창하던 대학시절이었다. 당시 그는 '지상에서 가장 독특한 생명체' 중 하나였고, 시인 지망생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시를 쓰는지는 알 수 없었고, 설혹 그가 시를 쓴다고 해도 향후 한 세기 동안은 그의 이름이 시인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는 기를 쓰고 정반대의 길을 걸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시인이 되어, 퇴계 이황의 태실이 있는 노송정 종택의 가양주 취재에 동행하게 되니, 그의 시 제목처럼 '농담' 같은 세월이 많이 흐른 줄을 알겠다.

이문재 시인과 함께 노송정 종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어스름이 한참 지나 사위가 어두컴컴할 때였다. 퇴계의 어머니인 춘천 박 씨가 꿈에 공자가 문 앞에 오신 것을 기념해 이름 붙였다는 큰 대문인 성림문聖臨門 앞에 서니 그야말로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성림문 뒤로는 558년의 세월을 머금은 노송정이 묵직하게 검은 실루엣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땅마다 정해진 주인이 따로 있는 듯하다. 퇴계 이황의 태실이 있는 노송정 종택老松亭 宗宅. 이곳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는 원래 의성 김씨들이 살던 곳인데 터가 자신들과는 맞지 않는다 하여 떠났다고 한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1454년, 퇴계의 조부 이계양李繼陽이 옮겨왔다. 그리고 여기서 퇴계 이황이라는 조선의 대학자가 탄생하게 된다. 항간에는 주변에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서 '노송정'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졌으나, 종손 이창권 선생에 의하면 노송은 당시 정자 옆에 있던 향나무를 말하는 것이며, 그 향나무 옆에 바위가 하나 있어 천년학 암수 한 쌍이 날아오곤 했다고 한다.

소박한 성찬, 농염한 빛깔의 술

시골 마을의 습속으로는 벌써 전에 저녁을 마쳤을 시간인데도 종부 최정숙 여사는 예정보다 늦은 객들을 나무라지 않고 동그란 접이식 상에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만든 이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지는,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 맛깔나게 무쳐진 각종 나물과 안동 간고등어, 그리고 기분 좋게 심심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청국장이 각기 서울과 부산에서 달려온 우리들의 시장기를 달래주었다.

퇴계 이황 선생과 당시 영의정을 지낸 권철 선생의 음식에 관한 일화가 떠올랐다. 퇴계 선생은 권철 선생이 찾아오자 보리밥에 콩나물국, 가지잎 나물이 오르는 평소의 저녁상에 명태 무침을 하나 더 내어 식사의 예를 갖추었으나, 권철 선생은 찬이 너무 소박한 탓에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음식 탓이었는지 일정을 당겨 떠나는 권철 선생에게 "제가 대감께 대접해 드린 식사는 일반 백성이 먹는 것에 비하면 성찬이었습니다. 농부들의 밥상엔 꽁보리밥에 된장국 하나가 고작입니다"라며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뜻을 정중히 전했다고 한다. 퇴계 이황이 누군가. 성리학의 근본 진리는 학문적 이론보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했던 그가 아닌가. 노송정 종택에서의 저녁밥은 그야말로 성찬이었고, 또 남다를 것 없는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비범하고 특별한 맛을 내니 이것이 바로 퇴계의 정신이 아닐까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노송정 종택의 내력과 가풍, 이황 선생에 대한 종손의 말씀이 이어지고, 불원천리 좁쌀술이 궁금해서 찾아온 객들의 조바심을 읽었는지, 종부께서 술상을 내오셨다. 종부께서 한지 공예로 직접 만들었다는 노란 국화무늬 상 위에는 내심 궁

01 좁쌀술과 북어보푸럼 안주가 정갈하다. 좁쌀술은 맛이 깨끗하고 맛깔스러우며 쑥 또는 솔잎을 섞으면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02** 곁상에는 족편, 삼색나물, 연근전이 차려졌다. 족편은 차게 식혀서 얇게 썰어 접시에 담아낸 후 초간장에 찍어 먹는다.

02

금해하던 노송정 종택의 가양주 좁쌀술(조술,粟米酒)과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안동 어리굴젓, 고추튀각이 놓여 있었다. 우선 큼직한 잔에 담긴 좁쌀술의 황홀한 노란 빛이 인상적이었다. 화가 피카소가 음울한 '청색시대'를 벗어나면서 사랑한 술이 '스즈Suze'라는 황금색 리큐어라고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술이 분명 이보다 더 농밀한 노란 빛을 띠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색이든 그 색이 짙어지면 처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노랑은 농염해지면 희망의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다.

생각을 가지런히 해주는 단순하고 깊은 맛

좁쌀술은 강원도와 제주 같은 쌀이 귀한 지방에서 많이 빚어지는 술이다. 그러니 노송정의 좁쌀술이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노송정의 좁쌀술은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되었다. 좁쌀술은 삭힌 좁쌀과 누룩을 섞어(가끔 솔잎을 추가한다) 밀봉한 후 찹쌀죽에 엿기름을 넣어 삭혀 끓인 것을 항아리에 담아 발효시킨 술이다. 찹쌀이 들어가야 더 깊은 맛을 낸다고 한다. 국산 좁쌀 가격이 한 되에 이만 원이라고 하고, 다섯 되를 해도 좁쌀술 두 병이 나오지 않으니 좁쌀술의 대량 생산은 애시당초 불가능해 보인다.
노송정의 좁쌀술은 일단 그 노란 빛깔로 사람을 취하게 했다. 그 맛은 어떤가. 대개의 술이 지니기 마련인 복잡한 풍미가 아니라 알콜향조차 느낄 수 없는 단순하고 깊은 맛을 지녔으며, 복잡한 생각을 가지런하고 단순하게 해줄 수 있는 깊이 같은 것이 느껴졌다. 좁쌀술을 서울로 좀 얻어 와서 모 남성지 편집장과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 그 편집장 왈 "착하게 사니 이런 날도 오는 군요"라고 할 정도였다.
술을 빚는 데는 물질적 재료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노송정 종택의 좁쌀술은 8일에서 10일 정도의 짧은 숙성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노송정을 지켜온 유자들의 벗이 되었을 그 술 안에는 물리적 시간 10일이 아니라, 558년 노송정 종택의 내력과 가풍, 그 오랜 세월 면면히 이어져온 정신과 기개, 온화하면서도 진득한 어른의 시간이 들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노송정 종택의 긴 전통과 손맛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까.
좁쌀술의 맛을 음미하며 퇴계 정신의 언저리를 더듬는 사이 어느새 밤은 더욱 깊어졌고, 사랑채로 옮겨져 우리들의 술자리가 이어졌다. 종부의 배려로 족편足片이 안주로 곁들여졌다. 우족과 우피, 계란 지단, 실고추, 깨, 목이버섯 등 다양한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노송정 종택의 음식인데, 그 많은 재료들이 입 안에서 하나가 되어 녹으면서 단순한 맛으로 변하는 것이 어딘가 좁쌀술과 닮아 있었다.

노송정, 퇴계 선생의 학교

노송정 종택은 퇴계 선생의 태실이 있는 곳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집은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이자 학교였다. 종손 이창권 선생에 의하면, 노송정에는 퇴계 선생의 부친인 이식 선생의 처가 큰집에서 온 만여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한 집에 책이 만 권이면 엄청난 양이니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였을 것이다. 삼촌 이우 선생이 그 책들로 퇴계 선생을 가르쳐서 후대에 이를 '노송정가학老松亭家學'이라 부를 정도였다. 요즘 홈스쿨링의 시초쯤 될 듯싶다. 그러니 노송정은 퇴계 선생에게는 학교였으며, 퇴계 사상의 대부분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노송정 종택은 진성이씨 가문의 큰집이며, 진성 이씨 집안에서 모시는 아홉 개의 불천위제사 중 일곱 개의 불천위제사가 노송정 종택 직계손에서 나왔다. 경상북도를 통틀어 127개 정도의 불천위제사가 있다고 하니 노송정 종택이 지닌 위상과 중요도를 짐작할 만하다. 이창권 종손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효제孝祭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제사를 자주 지내는 집 아이들의 눈빛은 그렇지 않은 집 아이들과 눈빛부터 다르다며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헛헛한 삶을 견디게 하는 '맑은 오기'

퇴계 선생은 노송정에서 태어나 34세가 되던 1534년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벼슬을 시작할 때까지 노송정에서 살았다. 퇴계 선생은 위대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2,700여 편의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한데, 그가 남긴 많은 시 중에서 27세부터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의 7년 사이에 가장 많은 시를 썼다. 동행한 이문재 시인과 밤이 이슥하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누다보니 그의 아름다운 초기 시 중의 한 편인 「우리 살던 옛집 지붕」이란 시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오면서부터 그 집은 빈집이 되었지만
강이 그리울 때 바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강이나 바다의 높이로 그 옛집 푸른 지붕은 역시 반짝여 주곤 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엄연하다. 고향을 떠올릴 때는

03

04

05

06

03 퇴계태실退溪胎室. 퇴계 선생이 태어난 방이다. **04~06** 유명한 고택에는 건물마다 처마 아래에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건물에 기거하는 사람의 소망이나 풍류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옥호屋號라고 부르기도 한다. **04** 옥루무괴屋漏無愧. '방의 구석진 곳에 있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시경에 나오는 말이다. **05** 산남낙민山南洛閩. 정자程子는 낙수洛水에서, 주자朱子는 민중閩中에서 태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큰 학자가 태어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06** 노송정老松亭. 이계양은 단종이 폐위된 세조 원년(1455)에 호를 노송정이라 짓고 온혜의 거처에 노송정 현판을 내걸었다. 명필 한석봉이 쓴 글씨다.

고향집을 떠올린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고달픈 삶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일은 현악사중주 느린 악장에서 첼로가 붕~ 하고 기분 좋은 가벼운 중저음을 내는 순간과 닮았다. 잘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존재를 드러내는 기분 좋은 음. 그때는 '나' 또는 '우리'를 길러준 원초적 장소가 고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퇴계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문재 시인은 "삶을 견뎌내는 일이 헛헛해지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고향집을 그려보곤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지 하는 '맑은 오기'가 고인다"라고 어느 칼럼에 썼다. 퇴계 선생이 1544년 2월 43세에 홍문관 교리로 소환되었을 때 지은 시를 보자.

邇來京輦苦相憶 淸夢夜夜飛丘園
근래 한양으로 와서 괴롭게 그리워하며
맑은 꿈이 밤마다 고향집 정원으로 날아가네

07 좌로부터 종손 이창권 선생, 이문재 시인, 최성우 필자. 세 사람이 좁쌀술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08** 노송정老松亭 종택 옆 세 그루 소나무가 인상적이다. 소나무에는 권세와 부귀를 좇지 않으며 학문에 정진하고자 했던 선비들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이 배어 있다.

07

08

우연일까. 시대를 넘어 한 시인은 고향을 '맑은 오기'의 근원이라 하고, 한 시인은 맑은 꿈이 밤마다 고향집 정원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고향은 맑고 타향은 흐리다는 걸까. 아닐 것이다. 고향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시작은 맑았다는 것이리라.

술이 익듯
삶도 익어간다

수백 년의 시간을 응축시켜 보낸 듯한 하룻밤이 지났다. 아침에 떠날 채비를 하고 마당에 서니 긴 사랑채에 온천정사溫泉精舍라는 현판이 보인다. 특이한 현판이라 종손 이창권 선생에게 연유를 물었더니, 앞산 개울가에 온천이 있었는데 피부질환에 효험이 있어 전국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그 후 다시는 그 발원지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얘기 말미에 근방에 도산온천이라고 동네에서 운영하는 온천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늦은 밤 도착해 술과 얘기로 긴 밤을 지내고 동북쪽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분기지대에서 불어대던 안동의 새벽 찬바람을 쐰 탓에 온몸이 굳어버린 나와 이문재 시인은 눈빛으로 온천행을 동의했다. 온천이라지만 말이 그렇지 동네 목욕탕과 다름 없었다.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뜨거운 탕에서 녹여본 사람은 알리라. 몸과 마음이 눈 녹듯 흐물흐물해지는 그 상태를 말이다.

서울 가는 기차 시간 탓에 정신을 수습해 탕에서 나올 때 이문재 시인의 몸을 보았다. 오십이 넘은 남자의 몸치고는 꽤 단단한 몸이었다. 대학 시절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생명체'라 불리던 이문재 시인. 잡지사 기자, 시사주간지 문화부장 등 수십 년 기자 생활 동안 마감 한번 어기지 않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학교의 교수로 끈기와 근성과 우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새삼스레 다시 보였다. 그것은 그가 당대 시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시인이란 것보다 더 빛나는 일이다. 그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순수하게 빛나는 것은 분명 그의 고향집 푸른 지붕이 여전히 그에게 반짝이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나는 이해했다. 그리고 술이 숙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삶이 익어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irections 맨 앞에서 말하다
길도 아픕니다

Architecture 건축이 말하다
폐허의 건축, 사랑의 시간

Power Talk
MUSIC 음악이 많이 말하다

Literature 문학이 말하다
사랑, '나'라는 나라에서 '너'라는 나라로 가는 일

Film 영화가 말하다
길에서 만난 사람, 길에서 떠난 사람

Art 미술이 말하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길의 고고학, 길의 치료학

길도 아픕니다

Injured Roads, Healed Roads

살면서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인 채 내 기억 속에 겹쌓이면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의 층위를 이룬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사물의 고고학'을 지닙니다. 이를테면 '필기도구'의 고고학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필기도구'의 지표地表를 이루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스타일러스 펜Stylus Pen'입니다. 그것을 벗기면 금세 컴퓨터의 자판에 이르고, 이를 조금 파헤치면 타자기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볼펜에 이르고, 이를 지나면 만년필에, 그리고 연필에, 붓에, 비록 내 기억의 지층이 석필石筆을 담지는 못해도 그 고고학의 계보는 자못 장황합니다.

물론 여기 나열한 '필기도구'들은 모두 상존常存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직의 구조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의식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차례차례 깊이의 층위를 가지고 그 사물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 나열된 사물들이 제각기 다른 향수鄕愁를 내게 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글 | 정진홍 종교학자.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울산대 석좌교수,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로 있다. 『종교학개론』『종교문화의 이해』『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등의 책을 펴냈다. 현재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리더 양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 김돈수 일러스트레이터. 스타일 매거진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Dazed & Confused> 등의 매체에 일러스트를 기고했다. 디자인 창작그룹 양체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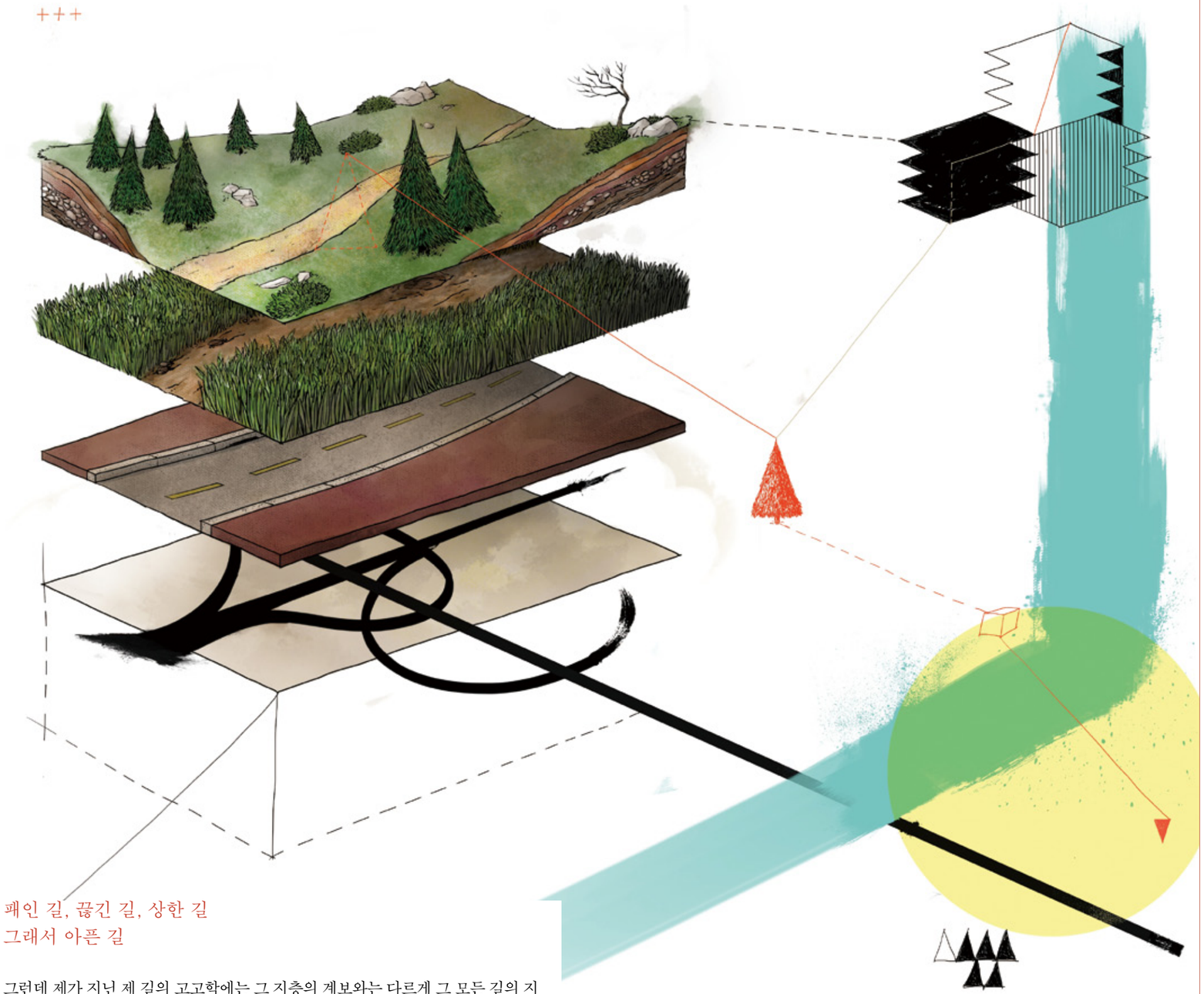
두렁길, 고랑 그리고 신작로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길의 고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길에 관한 온갖 향수의 더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길의 응집은 제 의식 속에서 일정한 층위를 지니고 있는 '길 경험의 전개'를 저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제게 익숙한 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툇마루 끝에 서서 보이는 마당은 어린 내 눈에도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두어 두렁 푸성귀 밭이 있어 철 따라 가지, 열무, 고추, 호박, 배추 등의 서로 다른 여러 소출所出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렁 사이를 두렁길이라 부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길의 이미지는 거기에 이르면서 길에 대한 제 처음 의식의 바닥을 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사이를 그렇게 두렁길이라 부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거기를 밭고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두렁길과 고랑을 '기술적技術的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저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두렁길을 고랑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까닭인즉 두렁길은 그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지 '걸어가는 길'이라기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고랑은 아예 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길에 대한 상념이 어떻게 걸음과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걸은 경험이 처음 길에 대한 회상에 투사되면서 그 처음 길이 두렁길을 길답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라고 해야 제 경험에 대한 설명이 가지런해질 수 있을 것인데, '걸은 길'의 기억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채 두렁길을 길이라고 부르는 데 대한 불편함만이 오롯합니다. 그런데 두렁길만이 아닙니다. 제 길의 고고학의 심층에는 길일 수 없는데 길이라고 불린 숱한 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논배미길도 그렇고 골목길도 그렇습니다. 논두렁길이라고도 불리는 논과 논사이의 좁고 꾸불꾸불한 길도 제게는 길답지 않았습니다. 뚜벅거리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얼키설키 굽어 퍼진 골목을 골목길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가는 일'과 '길을 걷는 일'은 다르다는, 저 스스로도 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차이를 나름으로 제 안에 마련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게는 길이란 무릇 '상당한 너비를 갖고 확 트인 쭉 뻗은 공간'이었고, 그 위를 뚜벅뚜벅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경험한 것은 시골을 떠나 도회에 옮겨 살면서 경험한 '신작로新作路'입니다. 신작로는 좁지 않았습니다. 구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작업을 위한 짧은 이동의 수단도 아니고, 마을을 가기 위해 잠깐 나를 옮기기 위한 매개도 아니었습니다. 신작로는 내 목표를 위해 내 걸음을 실어 날라주는 내 절실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길이란 당연히 신작로와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달리 말하면 길의 끝은 내 목표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게 경험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랬겠습니다만 제 길의 고고학은 그 탐색의 과정에서 연이어 일그러진 길 이미지만을 드러냅니다. 길 같지 않은 길들을 길이라고 했던 마땅찮은 회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패인 길, 끊긴 길, 상한 길
그래서 아픈 길

그런데 제가 지닌 제 길의 고고학에는 그 지층의 계보와는 다르게 그 모든 길의 지층을 꿰뚫고 지속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릇 길은 '걸어가야 하는 확 뚫린 펼침'이라는 것도 그 하나이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현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작로'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싶은 또 하나의 길의 현실은 그것이 '아픈 길'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옛날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하는 부역賦役이 있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조금은 우울했지만 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보낸 집도 있고 돈으로 부역을 대납代納한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모두들 순하게 일터로 나왔습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나온 우리는 읍내 우시장에서 모여 거기서 한 마장쯤 되는 신작로로 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어울렸는데 어떤 사람은 괭이를, 어떤 사람은 삽을, 어떤 할머니는 호미를, 그리고 작은 장도리나 망치를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신작로 옆의 작은 경사 나무 밑 바위에 올라선 '계장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의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길의 흙이 많이 떠내려가기도 해서, 보시다시피 길이 많이 상傷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을 쓸 수 없었지만 이제 봄이 지나기 전에 어서 손을 써서 길을 고쳐야 여름을 납니다."

우리는 가구마다 일정한 너비의 길을 나누어 받고 그 위에 자갈을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갈이 없어 사람들은 땅을 파 돌멩이를 캐어 줍거나 작은 바위를 깨트려 자갈을 만들어 삼태기에 담아 길 위에 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이 있으면 새벽이나 저녁에 와서 그 일을 했고, 그렇게 열흘도 더 해야 할당된 넓이를 덮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곧고 길게 뻗은 길은 색동무늬처럼 토막이 났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자갈들이 다 깔려 길이 덮이면 올 여름 장마를, 길은 견딜 것이었습니다.

'길이 상했다'는 말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온전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길이 패였다'는 말도 자주 들었고, 어떤 길을 저 스스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길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장님의 표현은 제게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래 제 속에 각인된 채 지워지질 않습니다. '상했다'는 표현의 일상적인 용례는 상처나 마음의 근심이 심할 때 쓰곤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저에게 그 표현을 길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낯선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어쩌면 '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표현은 길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이라고 풀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한참 모자라는 다른 짙은 정감情感을 제 안에 서리게 하였습니다.

길이 아픕니다. 길도 아픕니다. 길도 상처받아 아픕니다. 토사에 뒤덮이면서, 물에 휩쓸리면서 길도 앓습니다. 그래서 길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쟁 동안에 참 많은 길들이 끊겼습니다. '상한 길'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들도 아팠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멈추고 복구와 재건이 시작되면서 길도 하나 둘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길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 구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길들은 아주 끊겼고 닫혔습니다. 새 길이 나면서 낡은 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길도 아픔이 심하면 죽습니다. 그 죽음 또한 정일靜逸한 휴식에 들어선 축복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 상처를 안고 신음하다 죽어 사라져 이제는 잊힌 길들이 이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제 길의 고고학은 신작로를 덮은 고속도로의 층을 드러냅니다. 지층의 탐색 작업은 여기에서 지표에 이르며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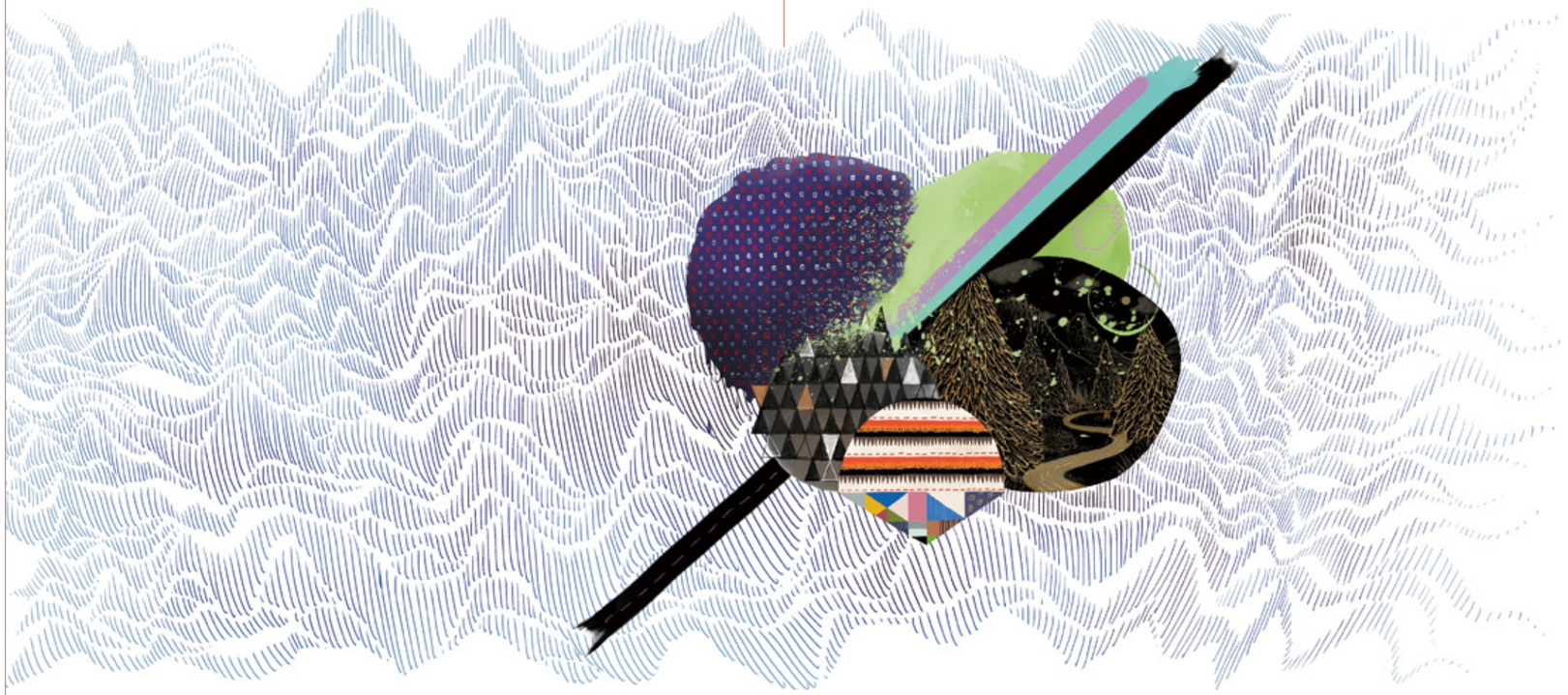
삶의 관계가
끊긴 길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새삼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의 진화가 어디에까지 이를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현실을 낯설어하는 것은 이른바 '공학적工學的인 성취'에 대한 경탄이 아닙니다. '길이 상했다'는 묘사가 불가능한, '길도 아프다'는 발언이 비현실적이게 된, 견고하게 떡 버티고 다가서는, 그 물화物化된 길의 변모 때문입니다. 비록 상처를 입힌 것이 사람이고, 짐짓 그것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길을 아파한 정서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프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도 굳이 아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내달립니다. 그러고 보면 길은 이미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서로 아파하지 않는 관계란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이미 '삶의 관계'는 아닙니다.

지난 추석에 할아버님 산소에 갔었습니다. 산소는 꽤 높은 산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르느라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높이 모시게 된 어떤 사연이 있었다는 이야기조차 이제는 감감할 뿐 너무 높이 자리 잡은 산소에 대한 아쉬움만 제게서 일었습니다. 그러나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길이 흐려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거의 길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산을 타는 사람들 발걸음 탓에 잡초가 듬성듬성한 자리를 따라 이어가면 그 끝에서 산소에 가 닿곤 했습니다. 어쩌면 길이 스스로 자기가 오솔길이기조차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서 그러한 길을 좇아 할아버님께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면서 그 나무 그늘에서 잡초들은 거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온통 낙엽이 여러 해나 쌓여 있었던 탓인지 길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길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라졌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릅니다.
능선의 향방과 커다란 바위들을 좇아 겨우 이른 산소에서 길을 덮어버린 무성하게 펼쳐진 숲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길의 상실이 못내 저리게 제 죄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움에 담아 그 길을 기억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자주 찾아와 보살폈어야 하는 건데, 할아버지에 대한 사모思慕의 그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무심했던 그 길을 아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그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할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이에 길은 홀로 아팠음에 틀림없습니다. 길은 지독히 외로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성한 나무 그늘이 잡초를 한 포기 한 포기 메마르게 하면서 길의 길다움을 지워나갈 때, 어쩌면 길은 자신의 아픔조차 절규하지 못하는 침묵을 안으로 안으로 삼켰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길은 자기가 이제 더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대상이 되었다는 자조自嘲를 낙엽으로 두껍게 덮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길은 사라졌고, 미쳐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저는 이제야 그랬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자학으로도 모자라는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회한은 버림받은 사랑으로도 짐작 못할 나락奈落입니다.

사랑하면 길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러고 보면 '길의 고고학'이란 실은 얇고 얕은 유희遊戱일 뿐입니다. 새로운 길다운 길이 나타나면서 하나 둘 침잠하는 길의 '역사'란 실은 없습니다. 길이 어떻게 정의되든, 어떤 길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든, 그렇습니다. 길은 '현존'할 뿐입니다. 길은 언제나 스스로 길이기를 바라 어디에고 언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내가 사랑하면 나에게 자기를 내줍니다. 사랑하면 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건강하게 있다고 해야 더 바른 묘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비로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길은 아예 길이기를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길은 없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그리워하지 않거나 아끼지 않는 길은 앓고 또 앓다가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제풀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길은 없어지고, 내게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발을 떼지 못합니다. 없어진 길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길은, 내 걸음을 멎게 합니다.
이제는 두렁길을 걷고 싶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걷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논배미길도 걷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골목길도 걷고, 신작로도 걷고, 오솔길도 걷고, 모든 길을 걷고 싶습니다. 길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육중한 몸뚱이도 사랑받지 못하면 않습니다. 어떤 길도 아프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 길조차 고즈넉한 두렁길이 됩니다.
오솔길의 자취마저 간직하지 못하는 아픈 길도 내가 사랑하면 그 길은 나를 할아버지 산소에 고이 이르게 해줍니다. 길은 그렇게 있습니다. 길도 아픕니다.



01

가족과 함께 터키의 고대 도시 에페스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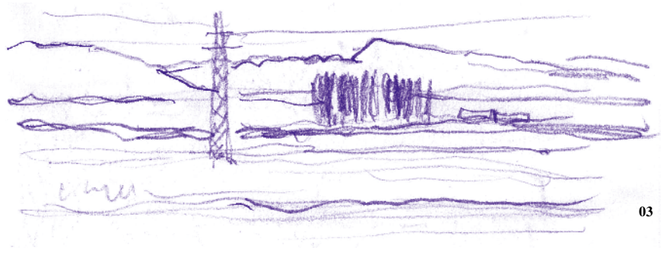
폐허의 건축 사랑의 시간

Love among the Ruins : A Family Journey to Ephesus

터키 에게 해海 연안의 에페스는 4천 년 전에 세워진 고대도시다. 한때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무역도시로 번성했던 그 땅은 지금은 몇 개의 기둥만 남은 황량한 공터가 되었다. 이 '폐허의 건축'에 이끌린 건축가 임형남, 노은주 부부. 쉼 없이 말을 걸어오는 오래된 시간의 축조물 속으로, 두 딸과 함께 걸어 들어갔다.

글 · 그림 | 임형남, 노은주 건축가.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동문 부부다. 금산주택, 의령예술인마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1 공간디자인 대상' '2012 한국건축가협회 아천건축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나무처럼 자라는 집』 『서울 풍경 화첩』 『작은 집, 큰 생각』 『이야기로 집을 짓다』 등이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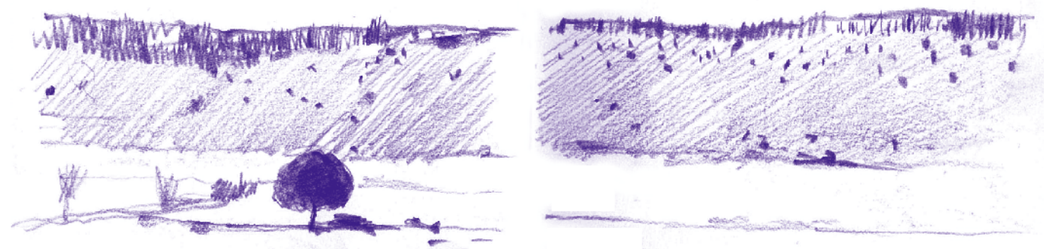


03

01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아시아 대륙, 서쪽은 유럽 대륙에 속해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오가는 유람선에서 바라본 아시아 지역의 신시가지. 가장 높이 솟은 건물의 이름은 갈라타 타워이다.

02 에페스의 아고라에 남은 기둥들. 중요한 유물들은 유럽 도시의 박물관에 건너가고 남은 유적들이 저렇게 나무처럼 뿌리내리고 서 있다.

03~04 터키는 남한의 3.5배 정도 되는 넓은 나라다. 주요 도시를 단기간에 돌아보려면 버스로 하루에 몇 시간씩 달려야 한다. 평원이 계속 이어지다가 문득 숲이 나오고, 마을이 나오고, 도시를 통과하다가 다시 평원이 이어지고 문득 나무 한 그루가 반기는 그 풍경이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워서였는지, 뜻밖에도 그 버스에서의 시간이 그다지 지루하지 않았다.



04

사랑을 보내고
길 떠나는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로 함께 자라 결혼을 하게 된 부부가 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꿈을 꾸는 행복한 부부였다. 그들은 언젠가 남미의 거대한 폭포를 보러 여행을 가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일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마련하느라 여행 계획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아내는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홀로 남은 남편은 완고한 노인이 되어 외롭게 살다가 어느 날 아내와의 추억과 자신의 평생을 담은 집에 수천 개의 풍선을 달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바다를 건너고 구름을 뚫고 산을 넘어서 마침내 그 폭포에 도달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면 좀 유치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를 울리고야 만 영화 〈업UP〉의 줄거리다. 그 노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듯 싶었다. 일상의 삶에 붙들려 정작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채 아쉬움만 안고 늙어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은퇴 후 남들처럼 벽난로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정원의 꽃을 가꾸는 노년의 삶 대신 '걷기'를 시작한 한 남자도 있었다. 그것도 집 앞의 공원 산책 같은 한가한 걷기가 아니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중국의 시안까지, 즉 실크로드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가는 무모한 걷기였다. 전직 기자였던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몇 년에 걸쳐 2, 3천 킬로미터씩을 나누어 실크로드를 걸었고, 그 여정에서 만난 길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검게 화장한 눈매, 살짝 드러난 여인의 장딴지, 몽상으로 가득한 안개 낀 평원 앞에 잠시 멈추는 것. 풀밭에 앉아 코로 바람을 마시며, 빵과 치즈 한 조각을 먹는 것. 걷는 일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 더없이 적합하지 않은가?… 내 박물관은 길들과 거기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고, 마을의 광장이며, 모르는 사람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마시는 수프인 것이다."(베르나르 올리비에, 『나는 걷는다』 중에서)

05

06

07

4천 년 전 고대 도시 에페스로 가다

대상인들이 수십 마리 낙타에 물건을 가득 싣고 오갔던 그 길, 육십 줄의 한 여행자가 고독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지난 가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다. 4년 만에 떠난 가족휴가였다. 우리는 건축가 부부다. 건축사무소를 함께 운영한다. 몇 년 동안 24시간 출근 상태로 지내온 셈이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애들이 훌쩍 컸다. 곧 입시를 치러야 할 두 딸과 함께 여행을 가려면 올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오래된 시간 속을, 아이들과 나란히 걷고 싶었다. 그래서 떠났다. 일주일 동안 이스탄불에서 트로이까지 터키의 일곱 도시를 돌아보는 다소 벅찬 일정이었다.

터키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이으며,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수많은 역사 속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성 소피아 성당이 있고, 블루 모스크가 있고, 지하 8층까지 파 내려간 데린쿠유Deryinkuyu의 지하도시가 있고,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된 카파도키아의 동굴사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고대 이오니아의 중심도시였던 에게 해 연안의 에페스Efes(성서에서 에베소로 잘 알려진 곳)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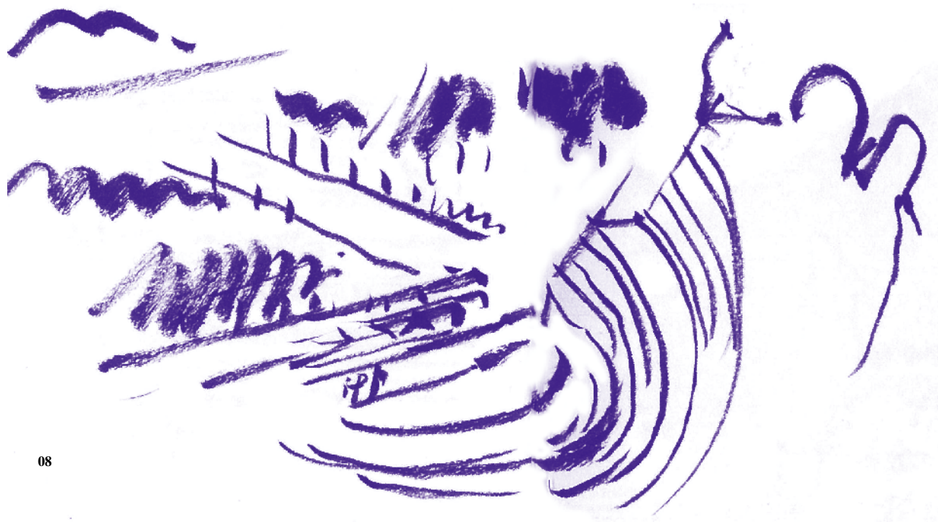
에게 해 연안에는 그리스보다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의 유적들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페스이다. 무려 4천 년 전인 기원전 2천 년경부터 이미 존재했고, 알렉산더의 휘하 장수였던 리시마코스의 통치를 거쳐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한때 인구가 25만에 육박하며 로마의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 역할까지 했던 이 도시는 심지어 사도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바다였던 곳이 진흙으로 메워지면서 무역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자연스레 쇠퇴했다가, 15세기 무렵 오스만 투르크에 정복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05 에페스의 초입.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여행자들은 사천 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이 도시의 위대한 흔적에 할 말을 잊는다.

06 카파도키아 데린쿠유의 동굴. 깊이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로 전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며 2만 명까지 거주했다는 믿을 수 없는 규모의 지하도시다. 마을의 닭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주변을 조사하다 발견했다고 한다.

07 데린쿠유 마을에 남아 있는 그리스 교회. 보존하지도 부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

08 에페스의 원형극장에서 내려다본 풍경. 극장은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객석 위쪽까지 생생하게 들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 길 끝에는 원래 바다가 있었다는데, 진흙이 밀려와 바다를 메우면서 무역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을 저 길에서 지금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로 분장한 배우들의 간단한 공연이 열린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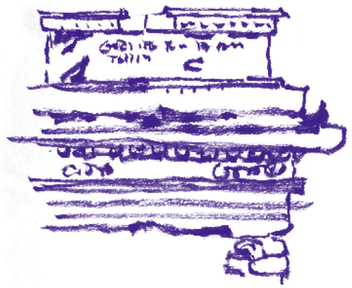
폐허의 건축이 전하는 말

에페스에서 우리 가족은 오래된 폐허의 시간을 거닐었다.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현대의 건축과 빛나는 도시들을 경험하지만, 가장 감동을 주는 건 이렇게 폐허를 거닐 때다. 폐허의 건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덜하지만(심지어 폐사지 같은 곳은 주춧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상할 수 없이 오래된 시간들이 눈앞에서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온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처연하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면서 젖어드는 애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놀라움이다. 인류가 일찌감치 이룩했던 위대한 문명의 흔적이 그저 몇 개의 기둥으로도, 작은 돌덩이로도, 몇 글자의 알 수 없는 메시지만으로도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바로 코 앞에서 장엄하게 우리를 깨우친다. 기술의 힘을 믿지 말라고, 인간의 오만함은 덧없다고, 시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에페스에는 손 씻는 곳까지 제대로 갖춘 공중화장실을 부속시설로 갖춘 목욕탕과 노예들까지 거래하는 시장 역할을 한 110m 규모의 거대한 아고라, 오데온이라 부르는 소형 극장, 2만 5천명이나 수용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원형극장, 시청,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원, 분수, 귀족들의 주택 등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도 자주 방문했다고 하는 이 대단한 도시를 구성했던 유적들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온다. 가을날이지만 햇빛은 무척 강했다. 사람들과, 나무들과,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석상과 열주들이 서로 다른 시간의 그림자를 새기고 있었다.

반들반들해진 대리석 길 양쪽으로는 뒹구는 돌무더기 사이로 헤라클레스의 문, 헤르메스의 조각, 나이키 마크의 유래가 되었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조각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다. 길 모퉁이에는 목욕탕과 그 부속 건물로 알려진 공중화장실, 유곽이 나란히 있다. 그 앞 길바닥에 여행자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는 곳이 있는데, 바닥에 세계 최초의 광고판이라는 발바닥 그림이 하나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유곽의 유녀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 그림에 발을 대보아서 크기가 더 크고(미성년자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의미), 그 앞에 새겨진 홈에 넣을 수 있는 동전을 가진 사람은 찾아오라는 의미라고 한다.

09



10

켈수스 도서관,
놀라운 건축의 한 장면

그 건너편에는 에페스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있다. 에페스의 총독이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아킬라가 아버지 켈수스를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이다. 그 앞에서는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층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기둥들 사이에 지혜Sophia, 미덕Arete, 지성Ennoia, 이성Episteme을 상징하는 여인상을 세운 파사드façade, 건물의 정면와, 그 안쪽에 책들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 90cm 폭의 이중벽을 세운 서가 부분은 형태나 구조에 있어 이천 년 전에 완성되었다고 믿기 힘든 놀라운 건축의 한 장면이다.
켈수스 도서관은 114년에서 125년 사이에 지어져 3세기 후반에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가 1970년대 후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도시 한복판의 도서관 지하에 켈수스의 석관이 안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켈수스 부자가 누렸던 막강한 정치 권력과 부유함이 짐작된다. 당시 도서관에는 12,000여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어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들어 연구를 했다고 한다.

터키의 가을은 여행자가 뜸해지는 시기라고 한다. 그곳을 거니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은퇴한 연령대의 유럽 노인들이었다. 우리처럼 가족이 온 경우는 드물었다. 낯설고 오래된 땅에서, 우리는 어깨를 부딪거나 손을 잡고 걸었다. 붙임성 있게 다가오는 고양이들에게 눈이 쏠려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 따위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는 딸들을 채근해가며 우리는 유유자적 폐허의 도시 위를 거닐었다. 일상에서 우리는 집에서 학교로, 또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점에서 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다보니 점과 점 사이의 과정은 별 의미가 없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낯선 풍경 속을 천천히 걷고 있노라니 매 걸음이 풍요로운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이 모여 그윽한 추억이 되었다. 4천 년 전의 건축 속으로, 그 오래된 시간 속으로 우리 가족이 끼어들어간 시간은 그래서 더 소중했다. 우리가 터키를 다녀온 건 불과 7일이지만, 함께 걷고 본 것은 길고 오랜 시간이었다. 저 폐허의 건축 위에서 우리는 사랑의 시간을 보냈다.

09 에페스 최고의 유적, 켈수스 도서관.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도서관 지하에서 건너편 유곽으로 갈 수 있는 지하 통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최고의 도서관에 모인 학자들이 굳이 그랬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10 건축물 상부의 디테일. 이오니아식과 코린트식 주두柱頭의 흔적들이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11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조각된 부조. 날개가 달린 샌들을 신고 있으며, 손에는 케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11

Power Talk
Music

음악이 많이 말하다

Music 01
Interview & Innerview
가수 한대수를 만나다

Music 02
Multi-Listening Guide
세상의 모든 음악

Music 03
Just One Song
이 한 곡

책임 편집Guest Editor-in-chief 김갑수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풍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잘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대신 경쟁과 승패가 없는 음악 듣기, 책읽기로도 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마치 그걸 증명하려는 듯이 살고 있다. 젊어서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었고 나이 들어서는 방송사 진행자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 사이 여덟 권의 책을 썼고 수만 장의 음반을 수집했다. 수도권의 모든 방송사에서 한 차례씩은 마이크를 잡았고, 사적인 시간 대부분은 판 가게와 '줄라이 홀'이라고 이름붙인 개인 음악감상실 겸 작업실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낸다. 지금은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진행자로서 날마다 정치인들과 입씨름을 하면서 지내고, 또한 이곳저곳 대학과 기업체로 강연을 다닌다. 예술 체험이 인간을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서.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 녀석이 묻는다. "아빤 뭐하는 사람이야?" 아직 답변을 못 해줬지만 언젠가는 말해줄 것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노라고.

-김갑수가 말하는 김갑수

부유하는 영혼 한대수의
음악과 사랑 이야기

떠돌고 사랑하고 노래하다

Journeys to the Land of Happiness : Han Dae-soo on Music and Love

글 | 김갑수

사진 | 박정훈 다큐멘터리 사진가. '도쿄 비주얼 아트'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아시아나> 등 유수의 매체에서 사진 작업을 했고, 사진위주 갤러리 류가헌에서 인물사진전 <between>을 열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해외 홍보용 사진 이미지 작업을 했고,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1년 반에 걸쳐 진행되었던 '북촌 팔경의 사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한대수 韓大洙. 큰 강물이란 이름처럼 그의 삶은 굽이쳐 흘러왔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살았던 한대수는 어느 땅에도 정을 붙이지 못했다. 오직 음악만이 친구였던 그는 스무 살에 귀국해 한국 대중가요 판에 포크 열풍을 일으켰다. 1974년 1집 ≪멀고 먼-길≫에서 2006년 ≪욕망≫까지 12개의 정규 앨범을 냈고, 그 사이 두 번 결혼했다. 유랑의 길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인생은 자유와 사랑을 찾아 헤맨 파랑 같은 날들이라고 해도 좋다. 영원한 자유인 한대수를 만나 그의 음악과 사랑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세상을 주유하다 동네에 머물다

김갑수(이하, 김): 요 몇 년 한대수가 등장하는 모습을 방송 같은 매체에서 자주 봤는데 말이죠, 기분이 이상한 거라요. 레전드가 갑자기 생활인이 됐어, 동네 아저씨가 됐다고요, 기분이 이상한 거죠….

한대수(이하, 한): 으하, 으캬캬캬! (손뼉, 또 손뼉을 치며) 맞어, 맞어, 완전히 동네 아저씬기라!

김: 안 이상하겠어요? 본인은 어떠세요? 아저씨라는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

한: 그래서 그러게, 음악가가 나이가 들면요, 아무래도 조용히 있는 기 최고제. 서태지가 벌써 늙어뿌렀잖아. 자기 자신을 신비화시키는 작전이거등요. 이미지 같은 거고. 그기 제일 편하제.

김: 가령 김민기씨 같은 경우는 아예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잖아요? 자기 젊었을 때 만들어진 강렬한 인상을 대중에게 고스란히 남겨 놓는 거죠.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 멋지지 않아요?

한: 그럼, 그러엄!! 그기 가장 양호한 거죠 사실은.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요절하는 거! 빨리 죽어뿟는 기야. 짐 모리슨, 커트 코베인,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김광석이는 최고인기 아입니까?), 아, 에이미 와인하우스. 근데 그게 안 되면 (요절하지 못하면) 김민기처럼 서태지처럼 아예 모습을 숨콰버리는 거지. 그기 최곤기라. 그기 왜냐면 자기 음악을 좀 더 빛나게 해요. 영원히 남기는 거죠. 사람들은 영원히 최고 좋았을 때를 기억해 주고.

김: ….

한: 근데 저는 그런 럭셔리, 으캬캬캬캬,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단 말이요. 저는. 생활 때문이죠. 매일같이 벌이 때문에. 마누라하고 씨름해야 하고 애기는 날 닮아서 고집이 이만저만 아닌데 이노마 생각하면 돈 벌어야 하는 기라. 에효.

2012년 11월 5일, 한대수가 목발을 짚고 내 작업실로 나타났다. 전설적 뮤지션의 부상이라니 뭔가 '아트'한 사연이 있어야 할 텐데 아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삐끗한 게 발목 인대를 파열시켰단다. 과체중 때문이리라. 참 싱거운 사연인데 그게 한대수다. 하지만 한대수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은 다르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담아 신화를 만들고 싶어한다. 그의 삶은 특별해야 하고 전설로 일관했으리라 믿고 싶어한다. 아니 꿈을 꾼다. 1960년대 말, 군사 통치 문화가 짓누르던 시절, 한국 최초의 히피로 명동 거리에서 장발을 휘날리며 <물 좀 주소!>를 노래한 사나이가 한대수 아닌가. 그런 한대수가 지금 무얼 먹고 사는지 어떤 문제가 생활의 주된 관심사인지 관심일 턱이 없다. 그는 오직 레전드로서 남아있어야 했다.

몇 해 전부터 방송이나 잡지에 한대수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옛날 사연을 풀어 놓는 것이다. 대단히 드라마틱한 인생사인지라 처음에는 호기심이,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식상해하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저렇게 주책맞게 말이 많고 궁상스럽게 과거사를 털어놓는 것은 한대수가 아니야, 하면서. 1970년대를 말할 때 김민기의 <친구>와 <아침이슬> 의 비장함을 어찌 빼놓을 수 있으랴. 그와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이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바람과 나> <물 좀 주소!> 같은 노래들은 시대의 노래이자 예언자적 아우라가 감도는 상징 가요였다. 게다가 그는 '엽전한국인을 자조적으로 비하해서 부르던 말'을 벗어난 국제인이었다. 70년대 한국인이 전혀 알 수 없는 뉴욕 현장의 분위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온몸에서 풍겨났던 그였다.

그 70년대 초반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유별나게 포크음악에 심취했던 나는 증언할 수 있다. 절판되어버린 김민기 음반을 친구들과 돌려서 듣고 소련의 공훈 음악가 쇼스타코비치의 제5번 교향곡 <혁명>을 마치 불온문서 대하듯이 몰래몰래 테이프로 구해듣던 시절에 전설로만 떠돌던, 특별히 불온한 뮤지션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한대수와 양병집. 어디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판 가게에서 만나는 음악쟁이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고서 비밀스럽게 말했다. 송창식, 윤형주,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대수, 양병집을 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구!

잠시 내 작업실에서 만난 현재의 한대수로 되돌아오자.

유랑을 멈추고 사랑을

김: 손숙 씨와 방송한 게 꽤 오래 됐더라고요. 한 삼 년?
(한대수는 CBS 라디오에서 아침 프로그램 <손숙,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를 진행하고 있다)
한: 사 년이 넘었지. 근데 내는 아이가 없이 사는 걸 일종의 프라이드로 여겼던 거라. 여자야 내가 재미있으면 머물기고 안 재밌으면 떠날 거고 뭐, 언제나 내 혼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생긴 거 아입니꺼. 상상도 몬했죠.
김: …. (방송을 물어보는데 웬 아이 얘기?)
한: 우리 마누라한테 작전이 있었어. 내가 자주 한국에 돌아가 공연하고 한참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 여자가 '부부일'이 벌어지고 나면 꼭 다리를 천정 위로 올리고 한참씩 있는 거라. 애를 만들어서 나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지. 마누라 마흔 살에 우리 딸 양호가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니오. 작전이었어, 작전, 으캬캬캬.

여기서 잠깐 한대수 언어를 언급해야겠다. 그는 몇 가지 인상적인 한국어를 발굴해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 가령 긍정적인 모든 것을 일컬어 '양호'하다고 표현한다. 딸 이름도 그래서 '양호'인데, 사용 빈도가 무척 많은 걸 보니 그의 삶이 어쩌면 양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 '화폐'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쓴다. 돈이라는 의미이면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표현할 때의 범칭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줄곧 '화폐가 큰 문제'라는 개탄을 하고는 했다. 그 당시 그는 세상의 화폐 만능을 개탄하고는 했는데, 지금은 거리낌없이 자기 자신의 화폐 부족을 한탄하는 단계로 변화했다. '작전' 역시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부인 옥사나의 출산 열망을 그는 '작전'으로, 앞서 서태지의 신비주의도 악의 없이 '작전'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언어 구사 습관은 물론 이중언어 사용자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쓴 몇 권의 책, 그 중에 『한대수, 사는 것도 제기랄 죽는 것도 제기랄』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한대수에게는 자기 언어가 있었다. 텔런트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언어적 감각을 한대수 역시 타고났다. 그가 쓴 노랫말을 찬찬히 음미해 보라. 대단한 감각이라고 할 수밖에!
방송 활동을 질문했을 때 곧장 딸아이 이야기로 답이 돌아온 것은 짐작대로 생활의 문제였다. 노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원고를 쓰는 일이 생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 하물며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는 일임에야.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왜 전설의 인물이 그처럼 통속한 활동으로 자기를 깎아먹느냐고 묻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도 밥벌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소설가 김훈 식 철학에 동의한다. 더욱이 한대수는 레전드로서의 삶과 동네 아저씨의 모습 사이에서 괴리를 느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가 유난히 진솔해서가 아니다. 그는 아예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는 DNA를 타고나지 못한 것 같다.

내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 다 함께 가자는 소망

늦가을, 한대수와의 만남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영화감독 이무영을 만났다. 그는 꽤 흥분해 있었다.

"아, 참, 이거 말해야 하나. 아, 참, 이거 비밀로 해야 하나. 아, 참, 그거 뭐 비밀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아, 참! 세상이 뒤집어질 텐데…."

수선스레 "아, 참!"을 연발하며 이무영이 물고 온 비밀인즉, 뉴욕에서 10년 세월 동안 형님 동생 하며 지내온 한대수 형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이다. 그게 뭘까.

"아, 글쎄 대수 형님이 박근혜 후보 캠프 로고송을 녹음했다잖아요!"

그 비밀은 비밀도 아니어서 곧장 현실로 드러났다. 소위 보수우파 여당 후보의 선거 홍보송으로 그의 옛 금지곡이 채택됐고 행사장에 나가 직접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이무영의 예상대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아마 대중이 한대수를 잘 모르는 탓에 큰 화제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정치인으로 변신한 문성근이 했던 말이 있다. 거리에 나가 '백만민란 시민운동'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알아볼까봐 걱정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를 모르더라고. 그러고 보니 화면에서 배우 문성근의 모습이 사라진 지 꽤 된다. 대중의 기억력은 의외로 짧다.

여기서 이념 성향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잠시 떠나 편견 없이 생각해보자. 한대수에게는 '저항 음악가'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유신시절 그의 노래 대부분이 금지곡이었고 그의 언행도 금제의 사슬에 묶여야 했다. 그런 출신들은 대부분 개발 독재기의 자취를 끔찍해한다. <새마을 노래>보다는 영화 <남영동 1985>에 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대수 류라면 일단 진보의 대열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런데 박근혜 로고송이라니?

70년대에 입으로만 떠돌던 전설의 볼온 뮤지션 두 명을 다시 떠올려야겠다. 한대수와 양병집 두 사람은 각기 짧은 활동의 이력을 남기고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수군대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끌려간 것이라고. 정보기관에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변을 당한 것이라고. 나도 그런 소문을 당연한 것으로 믿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 밝혀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게 좀 어처구니없이 싱겁다.

사라진 한대수는 군대에 가 있었다. 1969년 데뷔 리사이틀과 음반 발매 이후 잠시 '세시봉' 등지에 출몰하다가 곧장 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에는 뜻밖에 공무원 생활을 했고(영어에 능통해서 특채된 것이다) 이어서 영자 신문 <코리아 헤럴드>에서 일했다. 그러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미국으로 되돌아가 대학을 다니며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대단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노래를 남겼던 '음유시인' 양병집의 경우는 더했다. 그는 먹고살 길을 찾아 은행원의 길을 택했다. 군대에 있거나 열심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정보기관의 공작'을 의심하던 시절이었다.

한대수는 노래로 '저항'을 했던 것일까. 그러다 지금은 보수주의자로 '변절'한 것일까. 아주 길게 증명해야 할 이야기를 대단히 짧게 정리해보자. 그는 저항을 했으되 정치적이지 않았고, 진보 또는 자유주의적 기질을 가졌으나 태생적으로 보수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 미국에서 자유의 바람을 쏘이며 보낸 그에게 70년대 한국은 너무나 갑갑한 공간이어서 그 불만이 저절로 '저항'이 된 것이다. 홀홀히 갖은 고생을 하며 떠돌아다니니 히피처럼 보이지만 잘 알려진 대로 그의 가계는 이른바 명문세족이었고 그를 둘러싼 밀접한 연고인들 역시 전경련 회장, 국회의장, 피파(FIFA)위원, 대법원장, 대부호 뭐 이런 식이다. 그는 어디에나 걸쳐져 있었고 어마어마한 상층부와 뜬금없이 가까웠다. 박근혜 로고송? 그는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나중에 그가 언론에 한 말이 이랬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모두 훌륭해 보여서 어느 진영이라도 자기 노래를 쓰고자 했다면 다 응해줬을 거라고.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가 어떤 진영의 일원으로 매일 것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 나쁘게 보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다르게 보자면 한국인에게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지형도에 무관심한 것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내 노래의 소망인데, 그것은 어떤 정치 집단이라도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가 비틀비틀 걸어온 세상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파라다이스 와인 한잔 하실래요?”

한: 서유석이하고 명동 ‘오비스 캐빈’에서 번갈아 노래했거든요. 그때 미니스커트 입은 늘씬한 이화여대 학생이 나타났어요. 보그지에 나오는 모델 그 자체인기라. “안녕하세요 한대수 씨, 저 당신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파라다이스 와인 한 잔 제가 살까요?” 김명신, 제 전처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블랙캣’이라고 신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여자였지. 금방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고. 군대 간 3년 내내 기다려줬어요. 신장위동에서 아예 살림을 차려버렸죠.

김: 그럼 이 여자 저 여자 정신없이 방황한 것이 아니군요? 오히려 한 여자에게 일편단심이었네요?

한: 늘 내가 수동적인 역할이었어요. 여자들이 먼저 찾아왔고 나는 고마 받아들이는 역할. 먼저 여자에게 프러포즈한 기억이 없어. 어머니가 어릴 때 나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상처받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떠남이 두려워서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라. 엄마가 나를 떠나 재혼하는 바람에 일생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대수와의 만남에서 두 가지를 물어볼 요량이었다. 대체 어디를 어떻게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느냐고. 또 하나 파란만장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여성 편력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두 문화권을 오가며 살아야 했던 그의 팔자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전처와 지금의 아내 옥사나와의 인연도 여러 경로로 꽤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틈새가 있지 않겠는가. 방황의 장소들, 편력의 여인들. 여인들에 대한 물음을 거듭했다.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앞서 말한 전처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졌다. 나는 또 물었다. “다른 여자는요?”

다른 여자들이 있기는 했다. 그의 대학 시절에 미국인이 아는 동양 언어는 ‘후지’와 ‘게이샤’ 둘뿐이었단다. 동양인 한 대수의 별명이 ‘후지’였는데, 후지를 재미있어 하는 미국 여자애들이 간혹 있었다. 그럭저럭 만나고 사귀며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다. 연애 좀 했고 그 체험으로 곡을 만들고는 했다.

한: 뉴햄프셔에 살 때 여름 바캉스용 리조트에서 접시닦이로 일하면서 동료 웨이트리스 유부녀를 사귄 적도 있어요. 두 살 연상이었죠. 그때 바그너 음악에 심취해 있었는데 촌 여자가 거기에 반해 정신없이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캐주얼 섹스’가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총 맞아 죽을 거 같아서 도망쳐버렸죠. 열여덟 때였으니, 으캬캬캬.

자유롭고 평범한 삶, 특별하고 비범한 노래

대개 이런 식이었다. 짓궂게 묻고 또 물었고, 그도 열심히 답변해줬지만, 평범한 누구나와 다를 것이 없는 연애였고 만남과 이별이었다. 현재 그의 뇌리에는 아내 옥사나와 딸 양호로만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 차례는 고통스럽게 헤어진 전처였다. 애써 끄집어낸 다른 여인의 추억이라야 소소하고 평범한 젊은 날의 연애담일 뿐. 그런 것이다. 한대수는 자유자재했고 그리고 평범했다. 비범과 특별은 그의 노래, 그 음악의 몫이었다.

그를 만나고서 아주 유쾌해졌다. 잡지 기사에서 흔히 보던 대로 약간 괴벽스럽고 특이한 것으로 그의 행적과 사랑을 그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으나 솔직하기로 했다. 한대수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구나와 다를 것 없이 흔들리고 부딪히며 그렁저렁 살아왔다. 내가 세세히 아는 유명 시인, 소설가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시인에게 시가 소설가에게 소설이 있어서 특별하듯이, 그에게는 노래가 있었다. 그의 노래가 불려지던 시대가 특별했던 것이리라. 그것이 그에게 행운인지도 혹은 불행인지도. 어쨌거나 나는 한대수였고 당신도 한대수였고 우리 모두가 일종의 한대수로 살아온 셈이다. 다만, 그의 노래가 아니 그 노래의 시대가 특별했을 뿐. <행복의 나라로>는 계속 불려질 것이다.

길 위를 떠도는
붙박이장의 음악 편력

삶과 사랑이 둘이 아니듯 모든 음악은 하나다

Paths Transcending Time and Genre : Discovering True Musical Freedom through ‘Multi-Listening’

글 | 김갑수 시인. 방송인. LP 3만장을 보유한 음악광이자 오디오광이고 커피 애호가다. 2010년부터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한다. 시집 『세월의 거지』를 펴냈고, 에세이 『지구 위의 작업실』 『나는 왜 나여야만 할까』등을 썼다.

그림 | 조용우 그래픽 디자이너

오디오광이자 음악광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 김갑수가 “음악에는 장르가 있지만 리스너에게는 장르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멀티 리스닝’ 개념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 음악 장르 간의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음악 감상의 길을 제시한다. 그의 감상법을 따라 ‘걷기와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클래식, 팝과 락, 재즈, 월드뮤직, 가요를 ‘멀티 리스닝’ 해보자.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고 싶어라’. 오래 전에 작고한 어떤 코미디언의 유행어다. 인생이 고단하고 피폐해질 때 문득 떠오르는 명언이다. 살다보면 진짜로 어디론가 멀리 떠나 별별 것 다 보고 다 경험한 친구들을 꽤 만난다. 영화나 책에서 본 풍경을 떠올릴 때 그런 친구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술 마시고 여자 만난 이야기를 한다. 부럽고도 질린다! 나는 붙박이장처럼 일생을 살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광화문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를 뱅뱅 이사 다니며 잘 삭은 된장처럼 나이를 먹었다. 요즘 같은 서유견문 주유천하의 희한한 신세계가 도래할지 누가 알았겠는가.

음악 듣기는 혼종적 서구예술 체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붙박이장에게 다국적 다문화 다언어가 마치 제2의 형질처럼 온몸 세포에 알알이 새겨져버렸다. 음악 때문이다. 일생토록 쉼 없이 음악을 들었던 탓이다. 누군가가 배낭여행을 하고 유학이나 이민을 가고 먼 곳에서 주재원, 특파원을 할 때 나는 600년 고도에서 꼼짝 않고 된장을 삭히며 홀로 서유견문을 했다. 국악이나 가요 같은 로컬음악에만 집중해온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음악을 듣는다 함은 선망, 문화 충동, 자아 확장 등등이 버무려진 혼종적 서구예술 체험이 된다. 그 와중에 언제나 헛된 맹세를 하고는 했다. 프로테스트송Protest Song을 중심으로 모던포크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밥 딜런Bob Dylan, 존 바에즈Joan Baez만을 사랑할거야!’ 라는 식으로. 또 언젠가 바흐 칸타타 140번 <눈 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에서 도취의 열정을,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들으며 가슴이 저며지는 듯 쓸쓸함의 극한을 체험을 한 뒤에는 그때까지 사랑했던 모든 대중음악을 한방에 내버리게 됐다. 오직 클래식 음악만을,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계의 내면적이고 성찰적인 음악만을! 아, 또 그 이전에는 아주 일찍 재즈를 만나 10여년을 머물렀던 이력도 있다. 마일스 데이비스Miles Davis,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 텔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 … 또 있다. 칠레 독재정권에 항의하여 검은 상복만을 착용하고 노래하는 그룹 퀼라파윤Quilapayún을 알고부터는 이름 하여 월드뮤직의 미답지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곤 했다.

세대와 장르 넘나드는 '멀티 리스닝'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순정이다.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충성심은 채 10년을 머물지 못하고 이동을 하고는 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각 장르마다 '너무 너무' 좋은 음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미처 몰랐던 것뿐이지 사무치도록 아름답고 슬프고 절절한 곡들이 장르마다 널려 있었다. 에스러운 표현으로 '음악의 오솔길'이 있다면 그 길은 다섯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클래식, 재즈, 팝, 록, 월드뮤직. 그 중 한 길만을 찾아가 주구장창 깊이에 탐닉하는 태도도 근사한 것이지만 어느 결엔가 멀티와 통섭이 대세가 되어 버렸다.

경험해보면 나쁘지 않다. 방금 바흐를 듣고 이어서 솔레다드 브라보Soledad Bravo의 격한 설움의 음성을 듣고 곧장 오아시스Oasis나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의 사나운 사운드를 듣는 것. 그것은 디지털 문명이 세대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시간은 과거로 떠나가지 않고 디지털 부호로 데이터화되어 언제나 현재적 공간에 놓인다. 그리고 이처럼 세대와 장르 구분을 버무려 함께 듣는 것을 편의상 '멀티 리스닝Multi-Listening'이라고 이름 붙여 본다.

음악의 다섯 갈래 오솔길
클래식 · 팝 · 록 · 재즈 · 월드뮤직

먼저 클래식 음악. 갈수록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별히 애호하는 이 장르는 뭐랄까, 헤아릴 수도 측량되기도 힘든 복잡한 속성에서 존재 의의를 갖는 것 같다. 모차르트의 간결한 피아노 소나타를 즐겨하던 사람도 듣기를 지속하면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의 비명 소리같은 음악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다시 모차르트를 재발견한다. 그 과정에 세계의 질서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적 이성과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적 이상이 교차한다. 클래식 음악은 악기나 목소리를 자리에 앉아 감상하는 대상으로 처음 삼았던 바로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고전성과 낭만성이 교차하는 장관의 역사를 보인다. 그 점을 이해하거나 즐기는 것이 요체다.

팝음악은 이 세상에 대중이라는 인간군이 처음 등장하면서 발생한 신생 장르다. 도시, 노동자, 임금 노동,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산물이다. 노동 과정의 피로와 고통을 위무해 주는 소비지향성 음악이기도 하다. 팝은 탐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처음엔 멜로디와 가사가 중요했고 어느 결엔가 비트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팝은 록과 마찬가지로 20세기를 완전히 장악한 영미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팝에서 이탈해 나온 록은 노동자, 젊은 세대, 흑인과 백인 음악의 통합이라는 속성에서 출발한다.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류집단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대세를 이루기도 했지만 극단적이고 사악한 욕망의 최대치를 발현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과거 종교적 열정이 지배했던 시기의 대중적 열정을 지금은 록 콘서트가 대행한다. 열광, 폭발성, 공격성이 부재하다면 그것은 록이 아니다.

재즈는 대중사회의 고급음악으로 볼 수 있다. 한번도 대중적인 적이 없었음에도 단지 탄생시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 분류될 뿐이다. 재즈의 속성은 누구나 말하듯이 자유로움에 있다. 인문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음악적 분방함, 즉 즉흥성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패턴이 제시되면 이후 연주는 뮤지션 간의 인터플레이로 전개된다. 거기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다. 첫 출발인 스윙재즈는 춤의 본질을, 50년대 중반부터의 모던재즈 즉 비밥Bebop은 앉아서 감상하는 음악적 발전을, 70년대 이후 전개되는 퓨전재즈는 팝 · 록 혹은 클래식 음악과의 결합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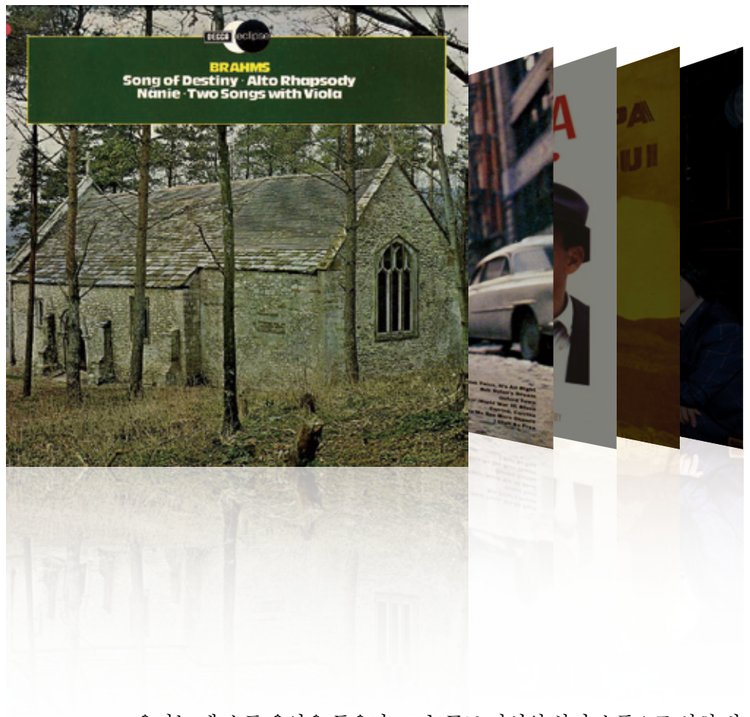
서구문화의 압도를 벗어난 다른 지점에 월드뮤직이 있다. 물론 프랑스의 샹송도 이탈리아의 칸초네도 월드뮤직으로 분류된다. 영미 계열을 제외한 모든 대중음악을 월드뮤직으로 분류하도록 빌보드지가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드뮤직 본연의 색깔을 진하게 보여주는 음악은 비서구권 혹은 제3세계 음악 속에 존재한다. 남미, 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낯선 대중음악을, 그 속에 배어 있는 슬픔의 미학 또는 문명화 이전의 강렬한 단순성을 느끼는 것이 월드뮤직이다.

나는 앞에서 '음악의 오솔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멋진 표현이다. 이 다섯 가지 오솔길은 끊임없이 옆 갈래 길을 유혹하며 보폭을 확장시켜나간다. 걷다보면 길이 먼저 인도해서 데려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나의 가슴, 나의 영혼이다. 얼마나 많은 먼 곳의 길을 나는 헤매어 왔던가. 그리고 숱한 경험을 했던가. 내 몸은 붙박이장이었지만 내 영혼은 늘 음악의 길 위를 걷고 또 걸어왔다. 그리고 그 길을 내처 걸어갈 것이다.

브람스의 <Alto Rhapsody>

슬픔을 구원하다

Composing Universal Sadness



우리는 왜 슬픈 음악을 들을까.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슬픔으로 상처 받고 비극으로 파탄나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왜 슬픔의 미학에 젖어드는가. 대담집 『세 개의 동그라미』에서 김우창은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기가 느끼지 않는 슬픔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아는 것은 더 높은 슬픔의 표현이지요. 남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경우는 남의 슬픔을 존중해서 거리를 갖고 자신의 슬픔을 자제하거나, 적어도 거리를 유지하는 예의를 지켜야지요."
이를테면 브람스의 '알토 랩소디Alto Rhapsody'가 그런 경지의 곡이다. 아니, 김우창의 윤리적 태도가 '남의 슬픔을 존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브람스는 '자기 슬픔을 존중하고, 자기 슬픔과 거리를 갖고, 자기 슬픔을 자제'하는 경지다.

글 | 정윤수 음악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 축구광은 다 아는 축구칼럼니스트. 해설 도중에 축구를 적벽대전에 비유하면서 '적벽윤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역사와 음악을 접목한 친절한 클래식 이야기를 담은 『클래식, 시대를 듣다』와 『인공낙원』 등을 지었다.

사랑을 잃고 곡을 쓰다

<알토 랩소디>는 브람스가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식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제 마음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쓴 곡이다. 그런데 그의 사랑이 이상하다. 이 곡은 브람스가 1869년에 작곡했다. 그 무렵 브람스는 클라라 슈만의 셋째 딸 율리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람스가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주변을 맴돌기만 하자 율리에는 이탈리아의 백작과 약혼해버렸다. 그 슬픔을 담은 곡인데, 브람스는 이 곡의 악보를 율리에의 어머니 클라라 슈만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클라라의 주변을 평생 맴돈 사람이기도 하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정규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으나 문학적 감성이 풍부했던 어머니와 에두아르트 마르크센 같은 함부르크의 스승들로부터 피아노를 익히고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와 함께 중부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를 순회한 후 마침내 로베르토 슈만을 만나게 된다. 중부 유럽의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슈만 앞에서 자작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한 브람스는 바로 그날 클라라까지 만나게 된다. 그날 이후, 브람스는 클라라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슈만이 영혼에 지독한 병을 얻어 라인강에 투신해서 사망한 이후에도. 그런 점에서 <알토 랩소디>는 클라라의 딸 율리에의 고별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자, 동시에 늘 주변을 맴돌았던 클라라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브람스 음악의 위대한 면모는 이런 사적 감정이 보편의 지평으로 상승한다는 데 있다. <알토 랩소디>뿐만 아니라 만년의 대표작인 <교향곡 4번>이나 <클라리넷 오중주> 같은 곡들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까지도 위로한다.
거침없는 형식 파괴와 거대한 스케일로 동시대 음악을 이끌었던 바그너에 비하여 브람스는 어쩌면 옛 형식으로 회귀하고자 했던 '음악적 보수주의자'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 외로움에 시달리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권할 만한 음악은 바그너가 아니라 브람스다. '비극은 깊은 정신적 상혼과 관련되며, 우리를 정화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애처로운 것과 구별'된다고 한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말은 브람스의 음악을 설명하는 데 썩 적절하다.

지금 슬픈 자들이여, 귀 기울이라

브람스는, 말러 같은 신진 음악가가 세기말을 장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1897년 4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평생 동안 가까이 했던, 그러나 '매우 가깝지는 못했던' 클라라 슈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다. 1895년 가을, 프랑크푸르트에서 클라라와 헤어진 브람스는 이듬해 2월, 그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브람스는 클라라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담아 <네 개의 엄숙한 노래>를 작곡했다. 그로부터 2주 뒤, 클라라는 세상을 떠났다.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이 노래의 <2곡>은 신약의 전도서에서 가사를 취하였는데, 그 주요 대목은 이러하다.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런 위안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너무나 강하고 그들은 아무런 위로도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더욱 복되니…"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브람스의 <알토 랩소디>나 <클라리넷 오중주> 혹은 <네 개의 엄숙한 노래>를 권하여 함께 듣기를 바란다. 그가 펑펑 울 때 가만히 등을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 상처로 인하여 허기가 졌을지도 모르니 따끈한 음식을 장만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브람스의 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슬픔을 마음 속으로 끌어안고, 그 지독한 슬픔과 사무쳐버리는, 그런 순간까지 말이다.

밥 딜런의
≪The Freewheelin' Bob Dylan≫

저기, 사랑이 걸어온다

The Dying Heat of Young Love

뉴욕의 한 골목, 눈 쌓인 길을 한 쌍의 연인이 걸어온다. 외투 깃을 여민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등은 어색하게 웅크리고 있다. 오래 전에 내려 더러워진 눈조차 전혀 녹을 생각을 않는, 몹시 추운 날씨.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며 팔짱을 꼭 낀 사랑스러운 여자의 얼굴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 1963년 2월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밥 딜런Bob Dylan과 그의 연인 수지 로톨로Suzie Rotolo를 찍은 이 사진은 ≪The Freewheelin' Bob Dylan≫(1963)의 앨범 커버로 공개되었다. 우연히 찍은 듯 연출된 이 사진의 영향으로 당시 젊은 남자들은 '잔뜩 웅크린 채 먼 곳을 응시하며 여자친구가 다가와 꼭 들러붙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음악적 문화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글 | 조용범 음악애호가. 팝음악지<GMV> 기자였고 <핫트랙스> 매거진 컨트리뷰터였다. 현재 출판기획자로 일하며 음악, 미술, 문학 분야의 책을 내고 있다.

밥 딜런, 첫사랑 수지 로톨로를 만나다

밥 딜런은 미국 저항문화의 아이콘으로 순식간에 떠올랐고 한대수, 양병집 같은 조선 히피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을 술렁이게 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The Freewheelin' Bob Dylan≫ 앨범의 노래들은 <바람만이 아는 대답> <소낙비> <역逆>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으로 번안되어 이연실, 양희은에서 김광석으로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 왔다. 사진 속의 밥 딜런은 이때 불과 스물두 살이었다. 특유의 구수하고 중년남자 같은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 나이다.

수지 로톨로는 열일곱에 밥 딜런을 만났다. 스무 살 밥 딜런이 그리니치 빌리지의 비터엔드라는 카페 무대에 설 때였다. 밥 딜런 같은 무명의 포크 뮤지션이나 우디 앨런 같은 엉뚱한 코미디언이 공연하던 왁자지껄하고 심상치 않은 곳이었다. 이탈리아계 공산주의자 집안의 딸로 태어난 수지 로톨로는 고교 졸업과 함께 좌파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홀딱 반한("마치 로댕의 조각상이 살아나온 것 같았다") 밥 딜런은 그녀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사회와 예술을 배웠다. 그는 수지 로톨로의 그리니치 빌리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그녀의 영향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비터엔드 카페를 오가며 프랑스 시인 랭보를 알았고, 그녀가 활동한 브레히트 극단 객석에 앉아 연극적인 송라이팅 기법을 착안했다고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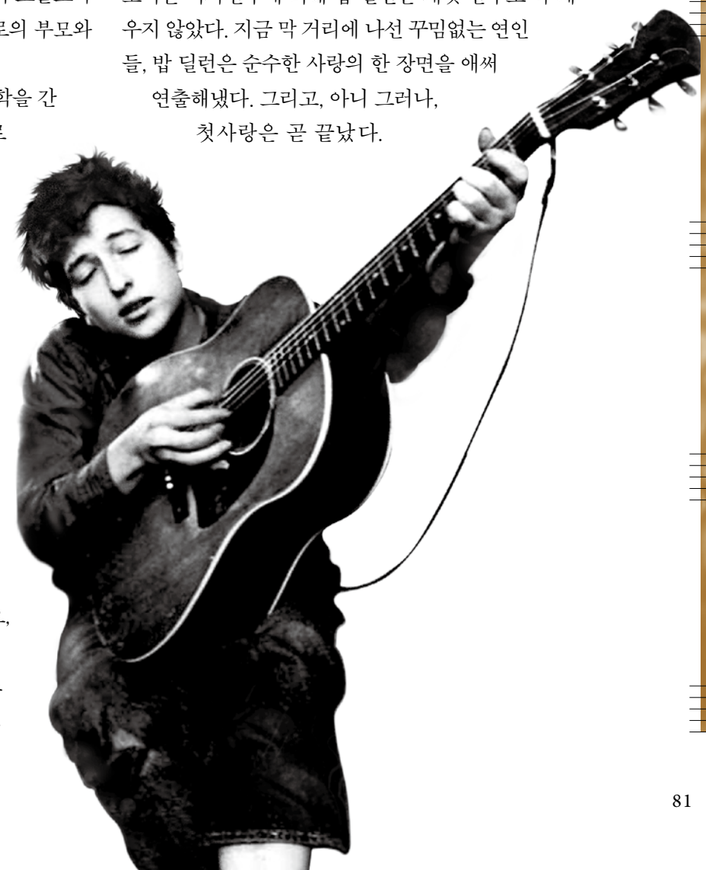
"나는 오래 쓸쓸한 길을 더듬고 있어요"

데뷔 앨범 ≪Bob Dylan≫(1962)에는 그의 자작곡이 별로 없었다. 녹음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린 두 번째 앨범에서 비로소 그의 개성적인 가사, 저항 세대의 대변자로서의 목소리가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 속에는 수지 로톨로와의 사랑과 한동안의 이별이 있었다. 수지 로톨로의 부모와 식구들은 밥 딜런이 탐탁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어머니를 따라 이탈리아에 미술 유학을 간 데에는 그런 배경도 있었다. 이때 수지 로톨로에게 쓴 밥 딜런의 연애편지는 상사병을 앓는 애송이의 절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빨리 돌아와 달라는 밥 딜런의 간청에도 귀국을 미루고 미루는 수지 로톨로를 쫓아 밥 딜런은 급기야 이탈리아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뒤였다. 밥 딜런의 몇 안 되는 명백한 쓰린 사랑의 노래 <고민하지 말아요, 괜찮아요Don't Think Twice, It's All Right>는 이때 쓴 곡이다.

"나는 오래 쓸쓸한 길을 더듬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당신이 냉정했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좀 더 잘해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내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했을 뿐이지요. 고민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 해 겨울 뉴욕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수지 로톨로의 아파트에서 조금 춥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실내에서도 스웨터를 입고 또 그 위에 밥 딜런의 스웨터를 하나 더 입고 있었다. 앨범 자켓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오던 날도 그랬다. 코트를 덧입어 좀 뚱뚱해 보이는 여자친구에 비해 밥 딜런은 재킷 단추도 다 채우지 않았다. 지금 막 거리에 나선 꾸밈없는 연인들, 밥 딜런은 순수한 사랑의 한 장면을 애써 연출해냈다. 그리고, 아니 그러나, 첫사랑은 곧 끝났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The Lady Is A Tramp>

여자들, 사랑을 찾아 떠돌다

Confused Playboys, Wandering Women, Empty Love

처음 재즈라는 음악을 접했을 때, 나는 재즈가 갖고 있는 태생적 비극의 사연과 무거운 분위기를 짐작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느낌은 재즈의 어두운 탄생 배경과 멀지 않았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과 함께 미국 북부의 도시 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실직자들은 넘쳐났고, 1920년대부터 시작된 남부 흑인 노동자들의 대이동까지 겹치면서 절망은 탄식으로 변해갔다. 재즈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카고와 뉴욕이 있다. 두 도시 시카고와 뉴욕의 공통점을 꼽자면, 거주지나 공연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만 재즈가 유행했다는 점이다. '스윙 골목'이라는 할렘의 52번가와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South Side 12동과 31동 사이의 '블랙 벨트'가 그것이다. 흑인들은 이 거리들을 어슬렁거렸고, 그들을 상대하는 술집들이 곧 자리를 잡았다.

글 | 김영훈 출판인. 공연, IT, 웹기획 등을 했고, 음악 웹진과 잡지를 만들었다. 출판사 '생각의 나무' '이른 아침' '오픈하우스'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현재 문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출판사를 준비 중이다.

재즈, 길에서 태어난 음악

1923년 이후 킹 올리버King Oliver 악단을 통해 등장한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도 그런 케이스였다. 성장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그가 어떻게 시카고에 정착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의 트럼펫터로 그리고 재즈 보컬리스트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시카고를 석권한 루이는 곧바로 뉴욕에 진출한다. 바로 52번가다. 트럼펫의 사운드를 목소리로 옮긴 그의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멜로디는 가사를 압도했고, 연주자의 애드리브에 맞춰 자유롭게 가사를 반복하고 흥얼거리는 즉흥적인 스캣Scat 뜻 없는 음절을 가사로 바꾸어 즉흥적으로 노래하기을 구사했다. 스탠다드 넘버에 강점을 가진 그의 스타일은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나 빙 크로스비Bing Crosby에게도 중요한 모티브를 주었다.
여기, 빙 크로스비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시칠리아 출신의 17살 악동이 있다. 그는 빙 크로스비처럼 파이프 담배를 물고 제법 그럴 듯하게 포즈를 취한다. 이 자가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취직을 위해 이력서를 들고 돌아다녔지만 이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자신에 대한 박해가 흑인들이 받는 냉대와 닮았다며 52번가를 들락거렸다. 그는 클럽의 흑인 연주자들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재능은 피부색을 가리지 않는다"고 훗날 술회한다.

프랭크 시나트라,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다

웨이터와 가수를 병행했던 프랭크는 스무 살에 첫 번째 레코딩의 기회를 잡았고 이후 승승장구했다. 그 중 한 곡이 바로 <The Lady Is A Tramp>이다. 이 곡은 1937년 성공을 거둔 뮤지컬의 삽입곡으로 2년 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미키 루니와 주디 갈란드의 주연인 영화 <Babes In Arms>에도 등장한다. 이 영화에는 명곡이라 할 <My Funny Valentine> <Where Or When> 등도 담겨 있다. 화려한 스윙 사운드로 무장한 <The Lady Is A Tramp>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자들의 욕망을 표현한 곡이다.
"히치하이킹을 하거나 걷거나, 화물열차에 무임승차를 하곤 하죠.(중략)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나는 그저 헤매고 떠돌 뿐이죠."
뉴욕의 할렘가를 거니는 여자들의 풍경,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곡은 단숨에 히트곡이 되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특히 어린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 여자들은 그에게 순정을 바치고 싶어 했다. 1939년 7년 간의 연애를 거쳐 낸시와 결혼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인종 편견이 없는 사회를 갈구했던 그는 사랑에도 가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우정으로 착각했고,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
재즈의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다른 장르의 뮤지션들에 비해 유독 바람둥이들이 많다. 나는 그들을 쉽게 사랑의 화신쯤으로 치부해버리곤 했고, 그들의 쓸쓸한 노년을 화려한 사랑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사랑을 몰랐던 것 같다. 사회적 핍박,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각광, 돈과 여자와 명예의 범벅 속에서 많은 여자들을 만났을 뿐인 것이다. 그 피상적인, 그래서 화려하지만 늘 부족한 사랑.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에의 갈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팜파의 음유시인
유팡키의 <투쿠만의 달>

노동자들의 길에서 사랑의 노래를 길어올리다

The Last Bard of the Pampas,
Atahualpa Yupanqui's
<Luna Tucumana>

처음으로 팜파Pampas를 여행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칠레에서 국경을 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버스를 탔을 때였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팜파는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처럼 보였고, 하늘이 온통 푸르른 와중에도 저 멀리 지평선 위로는 번개가 수시로 번뜩이는 광경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신비감을 넘어 성스러운 느낌마저 받았다. 그 후 몇 년 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부할 때였다. 어느 날 교외로 나가 야구를 했다. 문득 아주 먼 하늘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고 시합을 계속했다. 그런데 바람이 좀 부나 싶더니 먹구름이 맹렬히 돌진해 오기 시작했다. 불과 30분 뒤 억수 같은 소나기가 우리를 덮쳤고, 비를 피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5분 만에 세찬 비바람에 모두들 혼비백산했다. 팜파를 대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었다. 왜 19세기 아르헨티나의 위정자들이 팜파를 사막, 바다, 야만 등에 비유했는지 알 것 같았다. 현대인의 눈에는 드넓은 팜파가 풍요의 상징이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문명의 불모지, 그리고 나아가 대자연의 위협이 상존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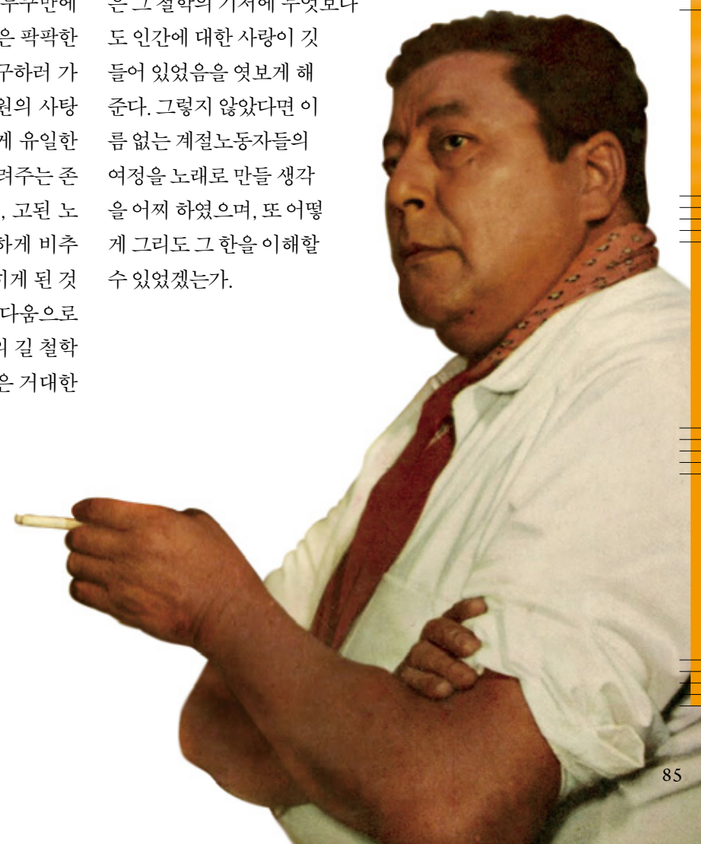
글 | 우석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조교수. 페루 가톨릭 대학교와 스페인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을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 『잉카 IN 안데스』, 『바람의 노래 혁명의 노래』, 『라틴 아메리카를 찾아서』(공저)가 있고, 『칠레의 밤』을 옮겼다.

팜파 최후의 노래꾼, 아타왈파 유팡키

그 광대한 팜파를 유유자적 주유한 이가 있었다. 월드뮤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타왈파 유팡키AtahuaIpa Yupanqui 1908~1992년이다. 유팡키는 흔히 최후의 '파야도르Payador'로 불렸다. '파야도르'란 팜파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꾼이자 노래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기타 하나 달랑 짊어지고 말 한 마리에 몸을 의지하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구수한 입담으로 각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중세 유럽의 음유시인 역할을 한 셈이다. 파야도르는 이미 유팡키의 시대에는 사라진 존재였다. 하지만 팜파를 산책하듯 돌아다니는 유팡키의 삶의 방식이 그에게 '최후의 파야도르'라는 별칭을 안겨준 것이다. 그렇다고 유팡키가 평생을 방랑한 것은 아니다. 또 팜파만 돌아다닌 것도 아니다. 투쿠만이나 코르도바 인근의 세로콜로라도'붉은 봉우리'라는 뜻처럼 안데스와 팜파가 만나는 지대에 은거하는 삶도 좋아했다. 유팡키가 팜파에서 태어나 17세 때 그의 집안이 투쿠만에 정착했다는 점이 중간지대에 대한 애착을 낳았으리라. 아무튼 유팡키는 세상에서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고 말하곤 했다. 머나먼 길을 가는 고단함을 생각하기보다 '끝없이 어디엔가 다다르는' 것을 즐길 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갈림길에 다다르고, 꽃 한 송이에 다다르고, 나무 한 그루에 다다르고, 모래벌판에 드리워진 구름에 다다르고, 개울에 다다르고, 산 정상에 다다르고, 기이한 돌에 다다를 때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계절노동자들의 정한情恨을 담다

투쿠만에서 음악 인생을 시작한 유팡키는 <투쿠만의 달Luna Tucumana>이라는 명곡을 남겼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아리랑>에 필적하는 노래로, 고원지대인 칼차키에서 출발해 타피 계곡과 아체랄 평원을 지나 투쿠만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은 팍팍한 삶 때문에 매년 사탕수수 수확기마다 일자리를 구하러 가던 계절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으레 아체랄 평원의 사탕수수밭에 투입되었다. 노래 속에서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달이다. 왜 고향을 떠나 길을 가는지 헤아려주는 존재이고, 멀고도 험한 여정을 밝히는 동반자이며, 고된 노동의 현장인 아체랄 평원의 사탕수수밭을 포근하게 비추어주기 때문이다. 이 노래가 국민적인 노래로 꼽히게 된 것은 민초들의 한을 달에 투영시키며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결이 유팡키의 길 철학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다. 팜파나 안데스 같은 거대한 자연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줄 알았고,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희망의 일단을 놓지 않을 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투쿠만의 달'은 그 철학의 기저에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깃들어 있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름 없는 계절노동자들의 여정을 노래로 만들 생각을 어찌 하였으며, 또 어떻게 그리도 그 한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프로젝트 밴드 '카도'의
≪뮤직 오브 신중현 Vol.1≫

신중현의 순수와 사랑이 되돌아오다

Walking Back to Analogue Love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신중현의 음악이 돌아온다. 돌아와도 아주 특별하게 돌아온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한 신중현은 그 시절 국내에서는 생소한 서구 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창조적으로 가공하여 '한국 록의 대부'로 불리었다. 그랬던 그가 은퇴 선언 후 모처럼의 연말 공연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귀환이 더 특별한 것은 이 앨범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베이스연주자 송홍섭을 주축으로 한 프로젝트 팀 '카도CADDO'가 신중현 전성기의 음악을 새롭게 재해석한 앨범 ≪뮤직 오브 신중현 Vol. 1≫을 발표한 것이다.
밴드 카도는 송홍섭과 더불어 신윤철(기타), 신석철(기타), 김책(드럼), 황유림(보컬) 등 5인조로 구성됐다. '카도'란 북미의 용맹한 인디언 부족을 뜻한다. 신중현은 이 땅의 척박한 음악 풍토에 록으로 도전한 인물이니 카도는 다름 아닌 '록 음악의 추장' 신중현을 말하는 것이다. 카도 멤버 가운데 신윤철과 신석철은 각각 신중현의 둘째, 셋째 아들이다.

글 | 임진모 음악평론가. 1992년부터 가요, 팝 등 대중음악 평론을 시작했다. '제5회 다산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2006 MBC연기대상 라디오부문 공로상'을 수상했고 현재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한다. 그간의 평론작업을 집대성하여 『가수를 말하다』『우리 대중음악의 큰 별들』 등을 펴냈다.

'Run'에서 'Walk'로 돌아간 녹음방식

이번 앨범 ≪뮤직 오브 신중현 Vol. 1≫ 작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프로젝트의 지향이 반反디지털이라는 점이다. 제 아무리 온통 디지털로 도배되는 세상이라지만 신중현 전성기 음악은 아날로그 시대의 음악이다. 그 시절 그 사운드 그대로를 좇아 후대들에게 신중현 음악의 진정성과 고유성을 전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속도의 관점에서, 뛰지 않고 걷는 쪽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즉 '런'에서 '워크'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솔직히 지금의 아이돌 댄스음악은 너무 빠르고 분주하며 그리하여 정 붙이기가 어렵지 않던가. 카도 멤버들은 "그때 신중현 음악의 사운드는 이랬다! 이랬어도, 지금의 사운드와 판이했어도, 그 창의성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난다!"고 열변한다.
카도는 느림과 걷기 미학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 옛날에 그랬듯이 '릴 테이프'에 의한 녹음 방식, 이른바 아날로그 녹음 방식을 택했으며 모노Mono 믹싱을 취했다. 여기에다 다섯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 곡 전체를 한방에 녹음하는 과거 '원 테이크' 방식을 고집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그들은 지금 레코딩 방식이 음악 본연과 너무 멀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요즘은 녹음할 때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음정과 박자가 틀려도 해결되고, 그리하여 가수는 심한 경우 완창도 해보지 못하고 녹음을 완료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기술 만능의 폐해가 따로 없다.

신중현의 온습한 사랑 노래 재해석

카도의 반 디지털 작업이 이룬 결과물이 신선하다. <소문났네> <님은 먼 곳에> <하필이면 그 사람> <그대는 바보> <후회> <거짓말이야>는 정말이지 1969년과 1970년에 김추자가 노래하던 때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다. 여섯 곡 모두 신중현 선생이 '사단의 특급스타' 김추자에게 만들어준 곡들이다. 비록 낡은 터치가 퍼져 있지만 음악은 생물처럼 살아 꿈틀댄다. 두터운 듯해도 인간적이고, 투박한 것 같아도 자연스럽고, 오래된 것 같아도 윤택한 필이 전편을 관통한다.
카도 멤버들은 각자의 파트를 알아서 스스로 디자인하여 연주에 임했다고 한다. 즉 작위적인 편곡을 따로 하지 않고 라이브 공연하듯 녹음을 한 것이다. 카도가 원했던 것은 자유, 자연스러움, 사랑이다. '자유와 정의가 황금빛 신용카드보다 소중했던/ 시절은 갔다'는 최영미의 시 「10월의 교정」의 한 구절처럼 지금의 음악은 예술성을 묻어버리고 상업성으로 치닫고 있다.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중심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신중현 음악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것은 삶과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오늘에 되새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중현 음악을 단순히 우리 시대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신중현이 한국 대중음악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그 시절의 순수와 사랑을 소환하는 것이다. 카도 앨범에 수록된 다섯 곡 모두의 키워드는 '사랑'이다. 디지털 세계에는 없는 온기와 습기, 인간적 터치가 있다. 그 온습溫習과 인간적 터치 때문에 타임머신을 태워 40년 전으로 보낸다 해도, 그의 음악을 듣는 우리는 사랑을 만끽한다. 신중현 음악은 여전히 위대하다.

© 정정호

잔나 난니니의
<Bello e Impossi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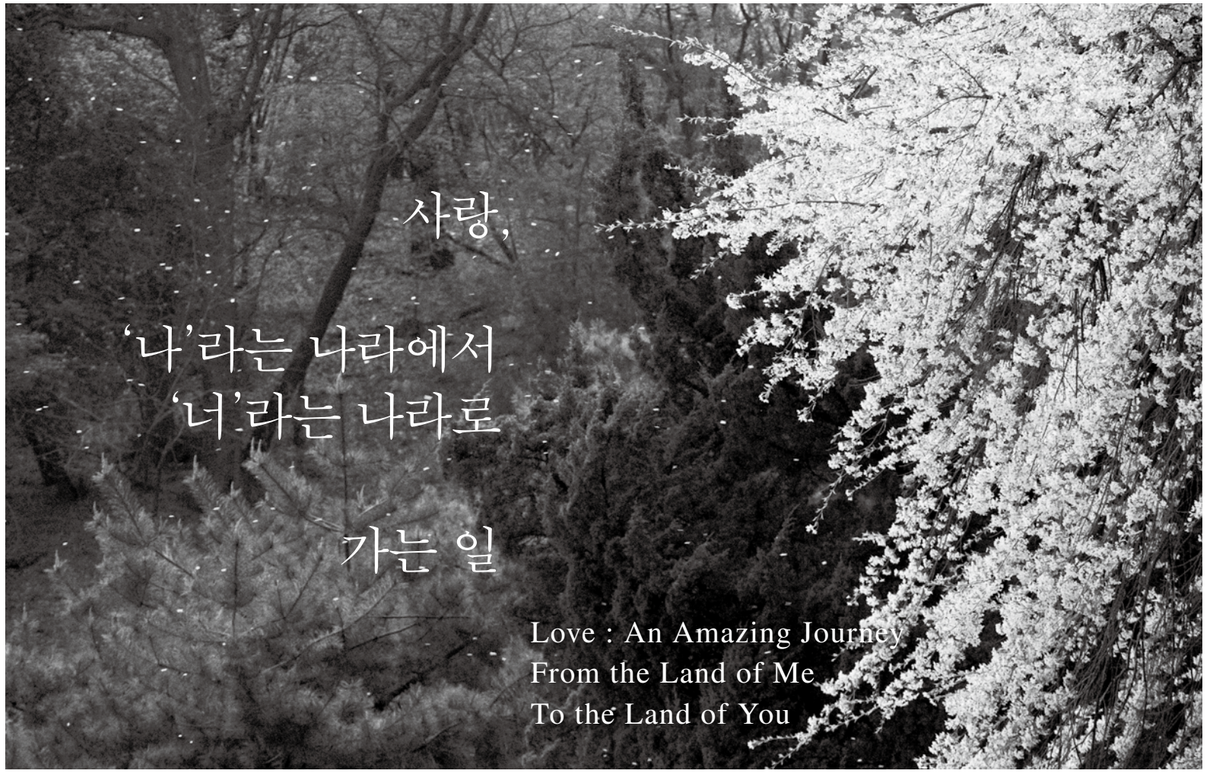
사랑,
아름답고
불가능한

The Beauty of the Impossible and the Unattainable

글 | 김갑수

지금도 형이 생각나네. 죽도록 춥고 외로워서 강릉행 고속버스를 무작정 탔다고. 마냥 달리고 달리다가 바다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그때 형의 고통이 무엇이었더라. 여자였나? 삶의 막막함 때문이었을까? 그냥 대책 없는 감상주의 때문이었을지도. 한시도 손에서 떼놓지 않던 휴대용 시디플레이어가 주머니 속에 있었고 그래, 그 철썩철썩 온몸을 때리는 경포대 파도소리를 배경음으로 무한반복 노래 한 곡을 계속 들었다지. 샤이 라이츠Chi-Lites의 <내 생애 가장 추운 날The Coldest Day Of My Life>. 8분이 넘는 길고 긴 노래 속에 실제로 파도가 치고 바이올린이 흐느껴 우는, 흑인 남자 싱어들의 하모니가 처절하게 점점 고조되어 가는 그 노래. 아, 같은 그룹의 노래 <나에게 부치는 편지Write A Letter to Myself>도 문득 떠오르네. 그때는 형도 나도 젊었지. 아니 어리디 어렸지. 세상은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모든 기성이란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경멸하며 피해야만 할 성벽이자 절벽처럼 여겼었지. 그래서 마구 돌아다녔지. 차비만 있으면 아무데고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지. 간혹 깔끔한 여행객들에게 부랑자 취급을 받을 때면 배낭 속에 들어 있던 루카치 책을 떠올리며 킬킬 허영에 찬 웃음을 흘리곤 했지.

지금 내게는 얼마든지 차비가 있건만 어디로도 떠날 수가 없네. 그때의 고통이, 꼭 끼는 장갑처럼 익숙했던 막막함이 멀리멀리 사라져 버렸으니까. 형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버리고 이렇게 오두마니 앉아서 홀로 생각의 여행을 떠나보네. 유튜브 속으로. 허허로운 가상공간 속으로. 형, 혹시 어디서라도 지금껏 음악을 듣고 있나? 그럼 유튜브에서 잔나 난니니Gianna Nannini라는 이탈리아 여성 로커를 찾아봐. 거칠고 험하게 내지르는 자그마한 여성이야. 웃기게도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이라네. 벨로 에 임포씨빌레Bello e Impossibile. 아름다움과 불가능함쯤 되는 의미의 노래겠지? 잔나는 간절함이 무언지 아는 여인 같아 보여.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갈증이 무엇인지 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뮤지션 같아 보여. 모든 이룰 수 없음, 모든 불가능함은 아름답잖아? 우리들의 생애는 불가능한 일기장이야. 잔나 난니니의 거친 포효를 찾아 들어보라구.



© 이한구

사랑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곳은 길이 된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도 걸을 수 있다. 바람만 가득한 숲을 향해서도, 벚꽃이 꿈처럼 흩날리는 밤 속으로도, 펑펑 쏟아지는 흰 눈 속으로도. 사랑이 한순간에 모든 곳을 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저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는 사랑에 닿으려면 나는 이곳으로부터 저곳으로 걸어가야 한다.

당신에게로 걷는 길은 설레는 만큼 두렵다. 발밑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도 들린다. 물웅덩이에 첨벙 빠지기도 한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나무 밑에 한동안 주저앉아 있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종종 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나를 저편에서 기다리던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운 희디흰 사과 꽃에서 열매를 생각할 때, 당신을 향해 걷고 있던 내가 그 사과 꽃에서 곧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릴 희디흰 나비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글 | 함돈균 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06년 계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이래 한국문학에 대한 비평을 써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김달진문학상 젊은비평가상을 수상했다. 평론집으로 『예외들』 『얼굴 없는 노래』가 있으며, 이상 문학 연구서 『시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펴냈다.

한 나라가 간다、
단 하나의 적막한 길

오는 나비이네
그 등에 무엇일까
몰라 빈 집 마당켠
기운 한낮의 외로운 그늘 한 뼘일까

(…)

돌보는 이 없는 대낮을 지고 눈시린 적막 하나 지고
가는데, 대체
어디까지나 가나 나비

그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싶은 날들 있었다

김사인, 「나비」 중에서

사랑은 오는 나비다. 가는 나비도 사랑이다. 사랑의 길은 나비다. 사랑의 속도는 나비의 속도. 한 없이 가볍고 한없이 투명해서 보폭도 세상의 일반적 속도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랑의 길로 오는 나비의 등이 지니고 있는 것은 '한낮의 외로운 그늘 한 뼘'. 사랑의 길로 가는 나비가 지고 가는 것은 '눈시린 적막 하나'. '한낮의 외로운 그늘 한 뼘'이 전부라고 해도 '돌보는 이 없는 대낮의 적막'이 모두라고 해도, 그 환하고 깨끗한 시간 앞에서라면 '고요히 무릎 꿇고 싶은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랑의 길이다.
세상의 모든 곳이 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때,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외로운 적막'만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오는 순간, 모든 길은 사라진다. 오직 당신에게로 가는 단 하나의 길만 남는다. 이미 나 있든 안 나 있든 간에 내가 걸어감으로써 비로소 내 길이 되는 세상의 길처럼, 사랑 또한 그렇다. 모든 길을 삼키는 길이 사랑의 길이라면, 그 유일한 길을 무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밤하늘의 별에 자신들의 방향을 일임하는 유목민들의 그것처럼 "한 나라가 간다(行國)"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이원, 「한 나라가 간다」). 사랑의 걸음은 '나라는 나라'에서 '너라는 나라'로 옮겨가는 걸음이다.

폭설의 밤길을 둘이 걷는다、
순수의 길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중에서

폭설은 모든 길을 지운다. 그리고 세상을 오로지 흰색으로 나타나게 한다. 세상의 풍경이 연인들에게 사랑의 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설경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이 길은 연인들에게 길 이전에 오로지 '희다'의 세상으로서만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발이 빠진다는 것을, 녹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설원雪原도 곧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한참 폭설이 내리고 나서다. 이것이 눈이 가진 순수의 힘이다. 사랑이 가진 힘이다.
사랑하는 나타샤에게 가난해서 차마 건네지 못한 말이 있다. 그 말을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살금살금 띄엄띄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푹푹 나린다". 하지만 첫 연에서 내 사랑으로 인해 내리는 눈과는 달리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그래서 소주를 마시는 동안 내리는 두 번째 연의 눈은 이 사랑의 환경이 지닌 어려움과 이로 인한 화자의 고뇌를 암시한다. 그런 밤에 화자는 '출출이'(뱁새)가 울 만큼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오막살이)에 살자"고 한다. 길이 모두 사라져 흰색밖에 존재하지 않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간들 '나타샤와 나'가 눈 속에 자꾸만 더 '푹푹' 빠지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길이었던 사랑의 길은 이제 모든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길이 사라진 곳에 있는 길 아닌 길이 된다. 그 길 아닌 길에서 눈과 구분되지 않는 흰 울음을 우는 흰 당나귀까지 데리고 가는 '나타샤와 나'의 사랑의 동행은 난처한 일이 되고 만다.
'난처難處'는 말 그대로 처한 곳이 어지럽다는 뜻이다. 그 뜻대로 가야 할 명확한 길을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깊은 산골 오두막으로 향하자고 한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백白의 세계는 사랑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다. 사랑의 길이 순수한 백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저 좋아서의 맹목이 아니라면 누가 눈이 푹푹 쌓이는 밤길을 걷겠는가. 모든 지상의 존재가 목적도 이유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사랑의 길은 '백의 순수'에서 이렇게 불현듯 출현하며 사랑의 걷기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지속된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행移行의 길

나는 산에서 행복한 꽃들을 따다 네게 주리, 초롱꽃,
개암, 그리고 키스의 야생 바구니들을.
나는 바란다
샘물이 벚나무와 하는 것과 같은 걸 너와 함께 하기를.

파블로 네루다, 「매일 너는 논다」 중에서

'오래 걸으면/ 장화 속의 공기가/ 붉은 솜처럼 젖어들'어도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저편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걸을수록 당신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향해 걷는 것은 나를 떠나는 것이다. 사랑의 걷기는 나를 떠나 당신에게로 가는 '이행의 걷기'다. "징검다리. 십이월 초. 흠뻑 젖은 양말로/ 이 별에서 저 별로/ (……)건너뛰면서// 대답해 보아/ 나는 누구의 연인인가?/ 얼어붙은 자신의 발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진은영, 「방랑자」)으며,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지워지고 당신이 나타난다. 걸을수록 길(의 풍경)은 선명해지고, 나는 희미해진다. 사랑과 걷기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희미해질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둘이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걸으며 예쁜 초롱꽃을, 쌉싸름한 개암을 눈 안에 담는다. 내 눈에 담는 순간 행복한 초롱꽃이 되고 세상에 하나뿐인 개암이 된다. 꽃과 열매를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로 걷는다. 그럴 때마다 당신을 향한 키스는 간절해진다. 꽃과 열매를 가진 당신이 저쪽에 있어 이쪽의 나는 간절하다. 샘물은 간절하게 솟는다. 간절하게 솟을 때 샘물은 벚나무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샘물에 벚나무는 잎을 띄워줄 수도 있다. 벚나무는 바람의 물결을 샘물에 새겨줄 수도 있다. 그것은 벚나무의 숨결이다. 샘물은 아래로 스며들어 벚나무의 뿌리에 스미고 있다. 샘물이 벚나무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매우 호젓하고 간절하게 내내 지속되는 일이다.

샘물은 달콤하고 벚나무는 아름답다. 그러나 이 달콤한 감각의 촉발과 아름다움의 향유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바란다/ 샘물이 벚나무와 하는 것과 같은 걸 너와 함께 하기를"이라는 프러포즈가 가능한 때는, '나'의 자리를 지우고 '너'의 자리로 서로 옮겨가는 이행의 걷기를 할 때다. 이 걷기는 생각보다 놀랍고 행복하다.

사랑이 오는 순간,
모든 길은 사라진다.
오직 당신에게로 가는 단 하나의 길만 남는다.

밤하늘의 별에 자신들의 방향을 일임하는
유목민들의 그것처럼
한나라가 간다.

© 이한구

<현기증> <제3의 사나이>의
사랑의 길들

길에서 만난 사랑
길에서 떠난 사람

Love, Loss and Silence on the Road

길이 떠남이라면 사랑은 머묾이다. 길이 지나침이라면 사랑은 마주침이다. 19세기 시인 보들레르는 파리의 번화가에서 스쳐 지나가는 여인의 눈동자에 찰나적으로 매료되었던 그 '살 떨리는 집중'을 「지나치는 여인에게」라는 시로 남겼다. 그 이후 '길과 사랑의 가능성'은 시, 노래, 영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주되어 왔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길 위의 사랑을 다룬 영화의 명장면을 소개한다.

글 | 정성일 영화평론가. 프랑스 문화원에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글을 계속 쓰다가 대학에 갔다. 성균관대학교 3학년 때 쓴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 평론은 지금의 악명(?)을 고스란히 예고한다. 1989년에 창간한 <로드쇼>의 편집차장을 시작으로, 1995년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던 해에 태어나 '90년대 시네필 문화'를 낳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키노>를 이끌며 영화 비평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사색에 잠길 것입니다. 그건 철학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위기를 만나고 거기에 맞서 싸워 이겨낼 것입니다. 그건 모험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설득하면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건 정치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에서 보았던 사랑의 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께서 길에서 만났던 사랑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 당신의 되찾은 시간.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길 위에 펼쳐진 풍경의 기호들에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길의 소리들의 신호에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사랑에 찬 세상. 사랑의 속삭임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현기증>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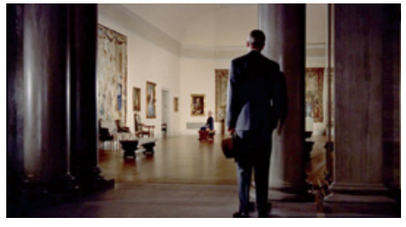
<현기증Vertigo,1959년>
홀린 듯 쫓던 시선의 길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길에서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 길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산책 중에 만난 사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그저 한눈에 빠져버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내 눈을 훔쳐간 것일까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기호들은 변덕스럽고 종종 변장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사랑 사이에 칸막이를 해놓아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니까요. 첫사랑의 눈길에 담긴 긴장. 어쩌면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그 불안의 시간을 떠올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에서의 미행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무대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형사 스카티는 범인을 쫓다가 그만 높은 옥상 빌딩에서 범인은 도망치고 자신은 발이 미끄러져 지붕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구하려다가 대신 떨어져 죽은 동료 경찰 때문에 스카티는 그때부터 고소공포증에 시달립니다. 이게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형사 일을 그만두고 시시한 의뢰나 받는 탐정이 된 그는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아내인 마들렌이 수상하니 그녀의 뒤를 밟아 달라는 것입니다. 무심결에 받은 의뢰로 미행을 결심한 친구의 아내를 보는 순간 스카티는 그만 한눈에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금발. 마치 자신을 제발 쫓아와 달라는 것처럼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듯하다가도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마들렌은 샌프란시스코의 한가로운 대낮을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 기나긴 미행의 장면은 정말 거의 홀린 듯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평론가들이 이 장면을 일러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카티는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마들렌의 포로가 되어 그녀를 따라 거리를 떠돌기 시작하고, 마들렌은 무덤이 펼쳐진 대낮의 공동묘지를 들른 다음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점의 초상화 앞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림. 스카티는 마들렌의 등 뒤에 멀찌감치 서서 그녀만을 바라보다가 그림에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때 스카티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들렌이 들고 있는 작은 장미 꽃다발과 그림 속의 여자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모양까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림 속의 여자를 조금 더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여인이 머리를 둥글게 묶은 모습과 마들렌의 머리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는 그녀의 머리 뒷모습에 다가간다는 표현 대신 차라리 그녀의 머리가 자석처럼 카메라를 끌어당긴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속도로 이끌립니다. 물론 그것은 스카티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심리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랑의 기호에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에 둘러싸인 기호들.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신호들. 사랑이 시작될 때 그 사랑의 왕국은 미지의 영토일 것입니다. 그곳에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는 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가 입구인가. 혹시 내가 붙잡은 문고리는 입구가 아니라 출구인 것은 아닐까. 혹은 창문인 척하는 벽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영화 <현기증>에서 스카티가 마들렌을 미행하는 길은, 이 사랑의 길을 더할 나위 없이 요사스럽고도 신비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길들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설령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그 길을 맛보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길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에 선 신비로운 여인을 뒤쫓아 갈 때 거기에는 오로지 시선만이 있습니다. 나를 잡아당기는 시선. 그 선을 따라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 시선은 말합니다. 제발 돌아보아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당신이 마치 공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기 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길이라는 숨바꼭질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 기다리는 것은 무시무시한 음모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중단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사랑의 길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현기증>은 피감시자와 사랑에 빠진 감시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스터리 로맨스다. 히치콕은 평소 실내 장면을 중심으로 연극적인 연출을 즐기지만, <현기증>은 금문교, 세콰이어나무 숲 등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곳곳을 누비며 촬영했다. 샌프란시스코를 북적거리는 미국의 대도시가 아닌 한적하고 낭만적인 유럽의 도시처럼 묘사한 것이 인상적이다.

<제3의 사나이The Third Man,1949년>
홀로 남겨진 침묵의 길

그런 다음 이번에는 정 반대편에서 사랑의 마지막 길인 이별의 길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캐롤 리드의 <제3의 사나이>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당시의) 소련 4개국이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황폐하기 짝이 없는 이 고전적인 도시에 실직 상태인 미국인 삼류 소설가 마틴스가 찾아옵니다. 옛 친구 해리가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마틴스가 듣는 것은 친구의 죽음 소식입니다. 친구에게 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안나가 위조 여권으로 곤경에 처한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마틴스는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를 부른 친구 해리가 가짜 페니실린을 밀매하는 암시장의 거물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죽은 줄 알았던 해리의 묘에서 다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마틴스는 연합군을 도와 친구 해리를 추적하고, 안나는 제발 그에게 해리를 가만 놓아두고 미국으로 돌아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망설이던 마틴스는 연합군에게 협력해서 해리를 추적하고 함정에 빠진 해리는 하수구를 이용해 도망치지만 결국 사살됩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의 차례입니다. 하염없이 낙엽이 떨어지는 비엔나의 늦가을, 혹은 지금 막 시작한 겨울. 영화에서 시종일관 흐르던 오스트리아의 민속악기 치터의 선율이 가슴을 저며 오기 시작합니다. 단 한 대의 악기 치터를 연주하는 안톤 카라스의 슬픈 손놀림. 이번에는 진짜 해리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바바리코트의 깃을 올린 안나도 그 장례식에 왔습니다. 마틴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안나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연합군 장교의 차에 실려 떠나던 마틴스는 그녀를 스치고 지나가다가 무언가 그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잠시만 내려달라고 합니다. 한없이 늘어선 가로수들. 나뭇잎들이 눈물을 흘리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1

02

01 <제3의 사나이>는 '흑백영화 고전명작 베스트 5'에 반드시 이름이 오르는 걸작으로, 1949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기도 하다. 해리의 가짜 장례식에서 안나와 마틴스가 만나는 장면이다.

02 <제3의 사나이>의 명장면 중 하나. 비엔나 하수구 안에서 수수께끼 같은 주인공 해리 라임의 드라마틱한 도주와 그를 쫓는 집요한 추격신이 전개된다. 뚜렷한 명암의 대비, 시종일관 집요하게 몰아대는 음악 등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03 '롱테이크' 기법의 바이블로 꼽히는 <제3의 사나이>의 마지막 장면. 숨 막히는 화면의 고요를 안톤 카라스가 켜는 오스트리아 민속악기 치터의 현음이 덮는다.

03

카메라는 길 한복판에 서서 저 끝에서부터 걸어오는 안나를 보여줍니다. 마치 소실점과도 같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안나. 길가에 기대어 선 마틴스. 한 걸음, 두 걸음. 일 분도 넘게 계속 멈추어선 카메라. 그러나 안나는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마틴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버립니다. 마틴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텅 빈 길. 하염없이 뻗은 길. 이제 길 위에 혼자 남은 마틴스. 이별도 사랑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별의 길도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이때 혼자 남겨진다는 말은 남은 시간을 오로지 추억에 의지하여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틴스는 이 길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낙엽이 지는 길을 보면 그가 어디에 있건 마틴스는 이 길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청춘의 시간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까?

미술로 보는 길 위의 연인들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Together on the Path : Lovers' Journeys Portrayed in Art

인생은 흔히 길에 비유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홀로 걸어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기도 한다. 혼자 가는 길은 자주 외롭고 더러 벅차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를 찾아 인연을 맺기도 한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둘만의 인생 행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저 묵묵히 한 사랑의 생애를 살아낼 뿐이다. 서로 아끼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불화와 화해를 반복하며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 사랑의 길은 이어질 것이다. 종종 이별이라는 파국을 맞기도 하면서. 누구도 이러한 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 사랑의 길들은 각기 어떤 표정들을 갖고 있을까.

글 | 박영택 성균관대에서 미술교육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10년간의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생활을 거쳐 미술평론가로, 또 경기대 예술학과 교수로 지내며 미술을 바라보는 그만의 시각을 갈고닦고 전수하며 살고 있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얼굴이 말하다』『수집미학』『테마로 보는 한국 현대미술』을 펴냈다.

<신행新行>
김홍도
종이에 담채
27×22.7cm
18세기
이 그림은 신부 집을 향하는 신랑 일행을 담았다. 맨 앞에 청사초롱을 든 사람 뒤에서 기러기를 안고 있는 이를 '기럭아비'라고 한다. 기러기는 한 번 짝이 정해지면 평생을 함께하고, 만약 짝을 잃게 되면 혼자 사는 새이다. 또한 늘 사이좋게 화답하며 차례를 지켜 날아다닌다. 혼례를 치를 두 사람도 절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춘 기러기를 본받으라는 뜻이 담겼다.

풍속화가로 유명한 조선시대 김홍도의 그림 중에 <신행>이란 그림이 있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으러 가는 첫 길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단원 김홍도는 영조 21년인 1745년에 김해 김씨 중인中人 집안에서 출생했다. 10대 때 안산에서 유명한 문인화가 강세황과 문학가 이용휴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문에 전반의 교양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물한 살에 도화서圖畵署 화원畵員이 되었다. 이후 정조 재위 24년을 거쳐 순조 6년 1806년까지 이 땅에 살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대체로 태평했고 나라 살림도 넉넉했으며 흔히 조선 후기의 문예부흥기라고 일컬어진다. 그가 살았던 세월이 좋았으므로 그의 그림에는 낙천적인 분위기가 떠돌고 무엇보다도 조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특히 정조는 그를 총애해서 숱한 그림을 남기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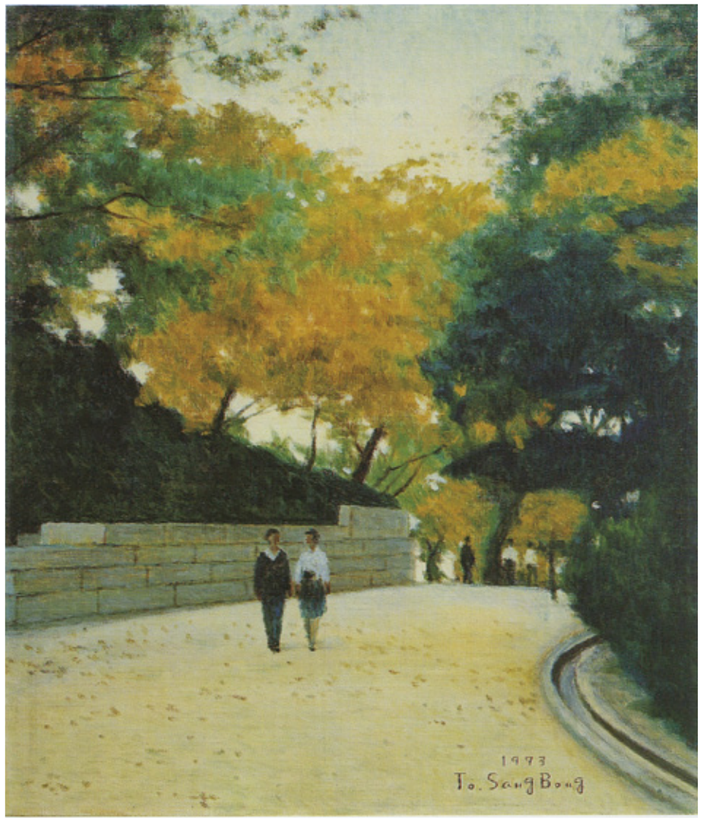
당시의 조선은 조선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한 문화 논리를 정립하는 등 전반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문화 각 방면에서 조선의 고유색이 더욱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 시대를 살았던 단원의 (풍)속화는 당시 조선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원은 산수며 꽃, 새, 동물, 풍속화, 고사 인물, 신선, 초상화는 물론 불화에서 삽화까지 온갖 종류의 그림을 다 잘 그린 화성畵聖이었다.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화가요, 글씨도 대단히 잘 썼으며, 문학 면에서도 뛰어났고, 더욱이 대금이며 거문고를 잘하여 음악가로도 이름이 났으니 이른바 르네상스적 전인全人이라고 할 만한 교양을 갖춘 화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다

<신행>은 김홍도의 속화집의 한 장면이다. 신랑이 초행을 간다. 혼사가 치러질 신부 집을 향하는 것이다. 대례청이 차려지고 상견례를 올리게 될 것이다. 혼사에서 신랑이 가는 초행길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가 누군가의 반려로 살아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첫 길이기에 그렇다. 그 길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앞에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길인가. 신랑은 신부 집으로 향하기 전에 관례冠禮를 올린다. 일종의 성인식이다. 상투를 튼 것은 비로소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다. 신랑은 축복을 받으며 나귀 등에 올라타고 집을 나선다. 인도꾼이 앞장을 서고 몇몇의 수행원들이 동반한다. 모퉁이를 돌아 신부 집에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림 속 인물들이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수백 년 전의 조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되살아 온 느낌이다. 단원의 이 풍속화는 단지 신행 장면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당시 사람들에게 혼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비원 풍경>
도상봉
캔버스에 유채
53×45.5cm
1973년

도천陶泉 도상봉은 형식적인 새로움보다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시한 화가다. 도천이라는 호는 '도자의 샘'이란 뜻으로 그의 조선백자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다. 1930년 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꽃 · 정물 등을 주로 그렸다. 고궁은 정물과 더불어 그가 즐겨 그렸던 소재다.



영원한 사랑을 꿈꾸다

한가한 고궁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의 모습이다. 연인인지 부부인지는 알 수 없다. 낙엽이 스산하게 떨어지는 고궁 길을 남녀가 걸어오고 있다. 저 뒤편으로 몇몇의 사내들이 지나간다. 그들을 뒤로하고 남녀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 태양빛이 이들이 걷는 길을 환하게 밝힌다. 발 아래로는 낙엽들이 뒹군다. 도상봉1902~1977년의 <비원 풍경>이다. 그는 한국 구상화의 대표 작가다. 그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흐릿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지닌 풍경을 선사한다. 캔버스 천의 고운 결을 살려가면서, 그 천의 결 속으로 물감이 스며들 듯 고르게 퍼져 나가게 하는 기법을 구사한다. 그러자 이제 막 흰 캔버스 천 위에 붓이 지나간 듯 가벼운 진동이 일어나고, 잔잔하게 전개되는 터치에 따라 아롱지는 색채의 광휘는 마치 파득거리는 빛처럼 전 화면을 뒤덮는다. 도상봉 특유의 붓질로 사랑하는 남녀의 행복한 동행을 무척이나 서정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남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궁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인생길을 떠올릴 것이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원을 할지도 모르겠다. 아득한 옛 왕조의 흔적이 서린 곳에서 유한한 생애를 넘어 영원을 기약하고, 덧없는 사랑의 서약을 아득한 시간의 자취 앞에서 불멸로 삼고 싶은 것이다.

길 위에서 사랑하다

휴일이면 연인이나 가족들은 공원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추억을 만들고 그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한다. 인효진의 <Paradise Island_Lovers>는 휴일날 일산 호수공원을 찾은 연인들이 보내는 여유로운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작가는 연인들이 공원의 풀밭이나 산책길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포즈에 주목해, 호수공원에 모여든 연인들의 행동 양식을 기록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사진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공원을 찾을까? 그곳에 나 있는 산책길을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있거나 풀밭에 누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할까? 그곳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며 무엇을 보상받고 싶어 할까? 어떤 기대와 환상에 잠기는 것일까?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가족이나 연인들이다. 그들은 둘씩, 혹은 서너 명씩 모여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호수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깨를 감싸고 앉아 있거나 풀밭에 누워 있고, 더러는 입맞춤을 하고 더러는 사진을 찍는 데 몰두한다.

이 사진 속에는 두 쌍의 연인들이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며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하다. 지나는 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는 듯이 붙어 있는 것이다. 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공원에서 벌어지는 이 행태(?)는 민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간절해 보인다. 주중의 바쁜 시간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들이 휴일을 맞아 이렇게 '꼬옥' 붙어서 친밀한 시간, 사랑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이곳은 일종의 낙원이자 현실의 끝이며 일상의 경계인 양 자리한다. 이 세상이 아닌 어딘가 낙원에 와 있는 양,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아름다운 인공의 풍경을 배경으로 저렇게 몸을 밀착시킨 채 휴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쓸쓸한 풍경이다.

<Paradise Island_Lovers>
인효진
디지털프린트
120×80cm
2001년

이 작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일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현대인의 인공낙원' 연작 중 하나다.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마치 연출한 것과 같은 드라마틱한 장면의 포착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색채에 대한 개입은 현대인들의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을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귀로>
김상우
캔버스에 유채
112×162.2cm
2011년

김상우는 주관을 배제한 채 사진처럼 극명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의 화가다. 서울 압구정동 골목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는 그의 극사실주의적인 경향이 잘 드러나 있다. <2011 서울미술대전, 극사실회화 – 눈을 속이다>展에 출품된 작품이다.

사랑의 길에
쓸쓸한 일상이 스미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은 서울의 어느 거리의 모습이다. 높게 솟은 건물들과 늘어선 전봇대, 어지러운 전선줄, 밀집된 건물에 매달린 간판과 이제 막 불을 밝힌 네온들이 반짝이고 있다. 그림의 하단에는 어둑해진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들과 주차된 자동차들이 보이고, 언덕길을 내려온 듯한 남녀 두 명이 눈에 띈다. 역광을 받아 아스라이 번지는 빛 속에서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어딘지 적막하고 가라앉아 있는 듯하다. 낮에는 서로 뒤엉켜서 잘 가늠되지 않던 간판들이 이제 조금씩 사위어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면서 환하게 달려든다. 작가 김상우는 어둠이 들이닥치기 직전의 이상한 고요를 안겨주는 일몰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언덕을 내려오는 이 남녀는 연인으로 보인다.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함께 퇴근을 하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자신들만의 오붓한 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핏 저 뒤편 경사진 언덕 너머에 자리한 삶의 격전지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환하는 생존자들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작고 어둡게 묘사되어 있고, 이들이 속해 있는 공간은 인공의 구조물들이 폭력적으로 들어차 있다. 치솟은 전봇대와 건물들 바로 아래에 신체의 일부가 잘린 채 그려져 있는 두 인물은 그들이 매일같이 겪어내야 하는 도시의 일상이 만만치 않은 무게임을 보여준다.

이들 위로 펼쳐진 풍경이 너무 어둡고 무겁다. 그림 중심의 하단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 두 남녀는 아름다울 것도 없고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은, 매일의 일상이 전개되는 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오갈 것이다. 저 언덕을 넘어서 일터로 나갈 것이고 다시 언덕을 넘어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매일의 발걸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도 같고, 이들 연인의 구두 뒷굽이 아스팔트 위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느껴질 것도 같다. 너무 평범하고 익숙한 장소가 홀연 그림 속에 재현되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이 익숙한 공간과 그 안에서 전개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 공간은 나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 안의 삶 또한 나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After Walk & Talk

Bicycle Gallery 자전거에 탐닉하다
두 바퀴의 존재 체험

Place Names in Literature 문학과 지명
어둑어둑한 갯벌 너머 오이도가 있다

Outdoor Spirit 김화성 기자의 소요유逍遙遊
푸하하! 나, 살찐 보름달 아래 늑대 되리!

A Taste of Korea 한국의 맛
만두, 맛있는 호기심

Wayfarer Tales 과객열전過客列傳
사라진 부안행궁을 찾아가다

Life & Brands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액티브 아웃도어 라이프

© 이한구

마니아가 말하는 자전거의 여섯 가지 매력

두 바퀴의 존재 체험

Experiencing Existence on Two Wheels : The Six Charms of the Bicycle

자전거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힘만으로 굴러간다. 극히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는 개인적인 소장품이지만, 그 능동적인 속성은 인간의 활동 반경과 감각 지층을 바꿔놓았다.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고 자전거가 사람을 만드는 존재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물아일체감을 선사하는 자전거의 매력에 대해, 반이정이 여섯 가지로 압축했다.

클레멘트 세이프티 바이시클
Clement Safety Bicycle
1889년에 프랑스에서 제작. 아름다운 풀 서스펜션 프레임의 세이프티 자전거. 통고무 타이어의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 앞, 뒤에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두바쿠 Bicycle Gallery

이 지면에 소개된 자전거들은 LS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두바쿠 Bicycle Galle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용산타워 2층 로비에 마련된 이 갤러리는 소장하고 있는 희귀 자전거 유물들을 20대씩 교체 전시하며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관람 문의 : 02-799-7169

도로 위에서 차량보다 보행자나 자전거를 예우하는 교통 정서가 도심 깊이 뿌리내린 유럽과는 천양지차인 한국 땅에, 지난 수년 간 자전거 유행이 급물살처럼 지나갔다. 유행이 휩쓸었지만 한국의 자전거 문화는 유럽만큼 성숙했다고 믿기 어렵다. 여전히 차량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열악한 도로 사정, 강의 흐름을 따라 일반도로와는 동떨어진 곳에 축조된 자전거 도로의 편협한 위치,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해야 맞는 줄로 오해하는 상당수의 시민(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도로로 주행해야 맞다), 이런 조건이 만드는 높은 교통사고 가능성. 그러나 자전거 타기를 훼방하는 요인이 꼭 주변 환경에만 있진 않다. 자전거 주행으로 옷을 적시는 땀과 체력 고갈에 대한 괜한 근심, 거기에 몰취향한 자전거 복장이 만든 자전거족에 대한 위화감까지! 지난 수년 간 한국 사회를 휩쓴 자전거 유행이 이제 한풀 꺾였는데, 이처럼 자전거를 둘러싼 대중의 우려나 선입견이 자전거 입문을 가로막는 탄탄한 진입 장벽이었던 건 틀림없다. 비교적 서울 도심 전 구간을 꾸준히 자전거로 왕복하는 라이더로서 필자는 자전거 애호가만이 체험하는 자전거의 고유한 매력 가운데 여섯 가지를 압축해서 풀어보련다.

글 | 반이정 미술평론가. 자전거 7대를 타고 다니는 자전거마니아. <중앙일보> <한겨레21>에 미술비평을, <한겨레> <경향신문>에 시평을 연재한다. 최근 영화 <여덟 번의 감정>에 카메오로 출연해 원래 가졌던 '배우의 꿈'을 살짝 이뤘다.

사진 | 김도형 사진가. 대학 졸업 후 서울문화사에서 사진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했다. 스튜디오 에이 파트 Studio A Part의 실장으로 다양한 매체에 패션 화보와 인물 사진을 싣고 있다.

하나. 몰입 – 주행의 태도

인적 드문 오솔길을 한가롭게 라이딩하는 게 아닌 이상, (특히 도로 위를 주행한다면) 자전거 탑승자는 전후좌우 사방의 교통 사정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라이딩은 사고 위험을 동반하는 유희여서 주행 자체가 이미 깊은 몰입을 요구한다. 때문에 평소 같으면 거슬렸을 차량 소음이나 흔히들 우려하는 추위나 더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의식되지 않는다. 전후좌우를 살피며 주행에만 신경을 모으는 자전거 라이더의 태도는 명상 삼매경에 빠진 수행자의 그것과 닮은 구석이 있다. 한쪽이 동적이고 다른 쪽이 정적이라는 방식 상의 차이 빼곤.

둘. 자존감 – 주행의 주체

이 글에서 열거하는 자전거 매력 여섯 가운데 만족지수가 가장 높은 항목일 것이다. 자전거 라이더는 전방에서 펼쳐질 예측 불가의 조건들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전진한다. 전후좌우에서 이동하는 차량 흐름을 예측하고, 차도로 진입할 기세인 보행자나 차의 동향을 살피면서 자전거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한다. 혹은 도로 위에 놓인 장애물의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릴 가능성과 멀리 보이는 교통신호등이 바뀌는 타이밍을 예견하면서 주행한다. 자전거의 전후좌우에서 전개될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가속을 붙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 허용되는 시간은 고작 수십 분의 1초이다. 촌각을 다투는 결정이지만 보통은 착오 없이 잘 수행된다. 이 모두를 자신이 통제하는 와중에 라이더는 전지적 시점을 체험한다. 전지적 시점의 쾌감은 '몸을 움직여서 먼 거리를 다녀왔다'는 식의 자전거 후일담으로는 담아내기 힘든 자기 완결의 체험이다. 차량의 흐름, 교통신호의 변경, 도로로 진입할 차나 보행자에 대한 예측은 비단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도 비슷하게 겪는 경험일 것이다. 다만 자전거 라이더의 경험이 남다른 이유는 자동차 중심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 교통 상황에서 도로 위의 소수자가 느끼는 각별한 자존심에 있다.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할 때 자전거(기계)와 라이더(사람)사이의 동지적 일체감은 유별날 수밖에 없다.

셋. 반복 운동 – 주행의 문법

자전거의 전진 원리는 페달 회전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생기는 동력이다. 초보자라면 당장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숙련된 자전거 라이더는 이미 회전 가속이 붙은 페달 위로 양발의 힘을 고르게 안배하는 법을 체득한다.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자전거 주행에 필요한 적당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녀와도 숨이 차지 않는다. 아울러 페달 회전이라는 반복적 수행으로 심신에 안정된 리듬이 스며든다.

넷. 물아일체감 – 주행의 생리

기계(자전거)와 사람(탑승자)이 주행을 통해 일체감을 느낀다는 라이더들의 고백은, 설령 똑같은 체험을 하지 않고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자전거의 자리에 자동차나 컴퓨터 따위를 대입해도 의미는 유사하게 통할 것이므로. 자전거와 라이더의 일체감은 자전거의 속력이 라이더의 운동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그런데 다른 경로로도 자전거와의 물아일체는 경험할 수 있다. 바퀴를 타고 전달되는 울퉁불퉁한 바닥면의 충격파는 서스펜션이 장착된 자전거(산악자전거가 대표적인 경우)라면 충격을 세심하게 경감시킬 테지만, 서스펜션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자전거 탑승자는 바닥에서 전달되는 섬세한 충격을 핸들을 쥔 손바닥과 페달에 올린 발바닥과 안장 위에 올린 엉덩이를 통해 전달받는다. 심각한 충격만 아니라면 바닥면의 재질감을 자전거와 라이더가 함께 나누면서 일체감을 맛보게 된다. 함께 촉감을 나눴다는 공감대!

로드바이크 Roadbike
1929년 프랑스에서 제작. 도로 경주용 자전거로 당시 변속기 시장을 이끌던 프랑스의 샹플렉스 제품이 장착되어 있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다섯. 인체 경험 – 주행의 전제 조건

자신의 투병기에서 "경험은 어떤 더 높은 목표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말한 소설가 팀 파크스에 공감한다. 경험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덧붙여 "말은 감각을 묘사할 뿐 경험할 수는 없기에 (중략)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장악력을 잃게 된다"라고도 썼다. 전업 글쟁이로서 깊이 공감한다. 현대인의 인체는 육체노동자가 아닌 이상 자기 인체를 직접 쓰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체를 쓰는 것은 '일상'과는 별개의 '여가'라는 영역 안에 한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자전거 문화가, 일상과 결합된 유럽과는 달리 '여가'의 형태로 주말에 교외를 다녀오는 식으로 정착된 건 그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인체 경험을 '여가'에 묶어두기보다는 실제 삶에 결합시켜서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더 값질 것이다.

여섯. 소장 및 관람 욕구 – 주행 너머의 매력

자전거 취미는 곧잘 자전거 타기에만 국한되어 칭찬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전거 매력에 관한 반쪽짜리 평가일 것이다. 라이더는 여러 자전거 모델을 향한 소유 욕망과 집안에 세워둔 자전거를 무념무상하게 지켜보는 것에서도 깊은 충족감을 맛본다. 마니아가 아니라면 감별하기 힘든 자전거 표면의 매끈한 재질감, 자전거의 재료가 주는 질감, 자전거 프레임의 잘 빠지고 유려한 라인에서 시각적 쾌감을 맛본다. 자전거 타기가 고유한 매력을 가진 것처럼, 자전거의 외관에서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자전거 마니아에게 소수의 감별자만 아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트러스 브릿지 로드스터Truss-Bridge Roadster
1910년 미국에서 제작. 무기 제조사인 아이버 존슨 Iver Johnson 사가 이 자전거를 제작하였는데, 교각 구조의 프레임 제작으로 가장 유명했다. 당시 최초의 흑인 자전거 경주 선수인 메이저 테일러Major Taylor를 후원하여 수많은 대회의 수상을 이끌어냈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빅트릭스 Victrix
1923년 덴마크 제작. 차체, 포크, 핸들바, 시트 포스트를 모두 강철 스프링으로 제작했다. 프레임을 용접하지 않고 각 부분의 나사산을 각각의 러그에 끼워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두바쿠 Bicycle Gallery 소장.

<염전과 기찻길>
윤후명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38cm
2008

윤후명의 『협궤열차』와
수인선 일대의 지명들

어둑어둑한 갯벌 너머 오이도가 있다

The Meaning of a Crow's Ear : Over the Mudflats to Oido

얼마 전 소설 『협궤열차』를 다시 펴낸 기념으로 홍대 앞의 한 서점에서 '문학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 사회자는 '옛날 꼬마 열차를 타고 선생님의 삶과 문학에 대한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했다. 이번에 책을 내고 행사를 치르면서 지난 세월 내가 속했던 그 공간과 시간이 아련하게 떠올라 예전의 나를 다시 찾아가는 듯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또 그 과거가 되찾을 의미가 있었다는 뜻이니, 나는 충실하게 살아온 것이다.

이번에 소설을 다시 펴내게 된 것만 해도 그렇다. 몇 해 전에 중국 베이징의 한국문화원 개원 기념행사에서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협궤열차』를 쓰신 작가세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그 책을 읽고 협궤열차를 타러 간 적이 있었노라고 말했다. 절판된 책을 기억해주는 것은 작가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내 책을 기억해주는 한, 나는 그 과거를 현재와 함께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협궤열차가 다니던 예전 수인선 노선도

글 · 그림 | 윤후명 시인, 소설가. 그의 문학은 줄곧 삶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탐구에 바쳐져 왔다. 시집 『명궁』『쇠물닭의 책』, 소설집 『둔황의 사랑』『협궤열차』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국민대 문창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야목 · 어천 · 마도 · 사강, 아름답고 정겨운 이름들

그러나 실상 그 '꼬마 열차'는 이제 어디서고 볼 수가 없다. 수인선이 개통되어 예전의 그 철로 위로 전철이 다니게 되었다 해도 그것은 '협궤'의 좁은 철로가 아니다. '협궤'란 보통의 철로를 '광궤'라고 부르는 데 대해 레일 사이가 훨씬 좁은 철로를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작은 철'이라고도 했었다. 철로 사이가 좁기 때문에 열차도 폭이 좁고 작을 수밖에 없다. 잘못하여 트럭과 부딪치면 나자빠지는 쪽은 열차가 되기 십상이라고 했다. 이 열차가 인천의 송도역과 수원역을 오갔던 것이다.

나는 이 열차를 타고 오이도 가는 길의 염전이나 소래의 갯벌가 어시장은 물론 야목, 어천 등지를 돌아다녔다. 마도와 사강 같은 지명들도 그 언저리에 들었다. 아름답고 정겨운 이름들은 작품의 무대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 무렵의 생활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쓰기도 했다.

"산과 호수와 바다가 어울려 있는 그곳은 서울 변두리 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도를 이루고 있었지요. 모든 밥벌이가 서울에 있던 그 무렵 우리는 몸부림치며 서울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푼 챙겨서 돌아와 양식을 마련한 다음, 버려진 논밭, 버려진 웅덩이, 버려진 모래언덕을 거쳐 마지막 포구로 가곤 했소. 온통 죽은 듯한 잿빛 포구의 갯고랑을 타고 바닷물이 들이차오고 마침내 깃발을 꽂은 통통배들이 숨을 고르며 들어오는 것이오. 오젓거리 육젓거리 새우들이 염전의 소금 더미처럼 쌓이면 망둥이 서대 장대에 상괭이 시육지도 미끈거렸지요."

*야목野牧: 조선시대 때 마을 앞에 넓은 들(野)이 펼쳐져 있고 산기슭에는 초목이 우거져 있어 소를 키우는 데(牧) 좋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천漁川: 고기가 많이 잡히는 냇가라는 뜻이다. 마도麻道: 중국과 해상을 통해 무역이 활발하던 조선 초에 중국 사신이 마의(麻衣, 삼베옷)를 입고 마도면 해문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다녔다 하여 마도로 불리게 되었다. 사강沙江: 조수가 드나들어 '모래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사강은 인천을 오가는 배와 인근 마산포와 대부도를 잇는 뱃길이 닿았던 지역이다.

‘오이도’ 고갯길을 넘어가면 바다가 열리고

오이도烏耳島는 이름으로 보아 섬이지만 당시에도 섬이 아니었다. 다만 마을에서 고갯길을 넘어가면 문득 시야가 한꺼번에 열리며 바다가 펼쳐지기에 섬으로서의 느낌이 바로 와닿았다. 뜻밖에 백사장이 나타나고 횟집들이 늘어서 있는 바닷가 마을. 갓 잡아온 동죽조개로 끓인 칼국수는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는 우스개를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이’ 즉 ‘까마귀 귀’란 무슨 뜻일까? 이 이름이 특이해서인지 여러 시인들의 시에도 종종 등장했었다. 김종철 시인은 그의 시 「오이도」에서 읊고 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신지.
낡은 그물코 한 올로 몸을 가린 섬을 본 적이 있으신지.
……

하지만 어느 누구도 ‘까마귀 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섬의 모양이 까마귀 귀를 닮아서 그렇게 붙여졌다는 어떤 이의 설명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까마귀에게 귀가 있기야 있겠지만 과연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아주 옛날에는 ‘오질이도’로 불렸다고 책에 적혀 있을 뿐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오이도에서 까마귀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오이도든 오질이도든 한 가지 꼬투리는 ‘까마귀’에 남아 있다고 그 무렵부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까마귀는 ‘까만 거’며 그것은 ‘검다’라는 것과 연관지어 ‘검〈곰〈굼〈감’의 우리 고대 신앙 체계의 맥에 닿아 있다. 또 한 번 쉽게 말해 그것은 ‘신령스러운 섬’인 것이다.
저물녘 협궤열차가 어둑어둑한 갯벌을 멀리 바라보며 달린다. 오이도는 그 너머 어디에 있다. 나문재와 퉁퉁마디의 붉디붉은 극채색 역광逆光도 어둠속에 묻혀간다. 거뭇머뭇 흔들리듯 서 있는 소금창고들도 낮게 엎드려 대지에 몸을 기댄다. 곳간에 들지 못한 소금 알갱이들에 별빛이 흩어져 빛난다. 잘각잘각 숨소리를 내며 살아 움직이는 것은 협궤열차뿐. 흐릿한 차창 불빛에 그리운 사람은 실루엣만으로 저곳으로 멀어져 간다.

안산 사리포구, 젓갈 같은 시를 낳다

사람들은 흔히 초지진이라면 강화도를 떠올린다. 그것은 제2초지진이며 실상 제1초지진이 안산 땅에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곳에 세워진 별망성도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기 전의 그 버려진 땅이야말로 일견 황량하게만 보일지라도 곳곳에 신령스러움을 간직하고 내게 문학을 향한 깊은 마음을 심어주려는 것 같았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둠이 짙어지면 가사미산의 내 거처로 돌아와 홀로 원고지를 펼쳐 놓고 나는 그 땅의 신격을 내 글에 담아낼 수 있기를 빌었다. 비록 젓갈 같은 고달픈 살림살이었을망정, 아무리 하루하루 연명하며 한 줄 글로 한 끼 밥을 얻는 생활이었을망정 나는 비굴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 생활의 여독 때문인지 내게는 젓갈에 대한 시가 몇 편이나 있다.

새우젓의 새우 두 눈알
까맣게 맑아
하이얀 몸통에 바알간 꼬리
옛 어느 하루 맑게 돋아나게 하네
달밤이면 흰 새우, 그믐밤이면 붉은 새우
그게 새우잡이라고 배운 안산 사리포구
멀리 맑게 보이네
세상의 어떤 눈알보다도 까매서
무색한 죽음
지금은 사라진 사리포구
삶에 질려 아득히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의 까만 두 눈
옛 어느 하루 맑게 돋아나네
그게 사랑의 뜻이라고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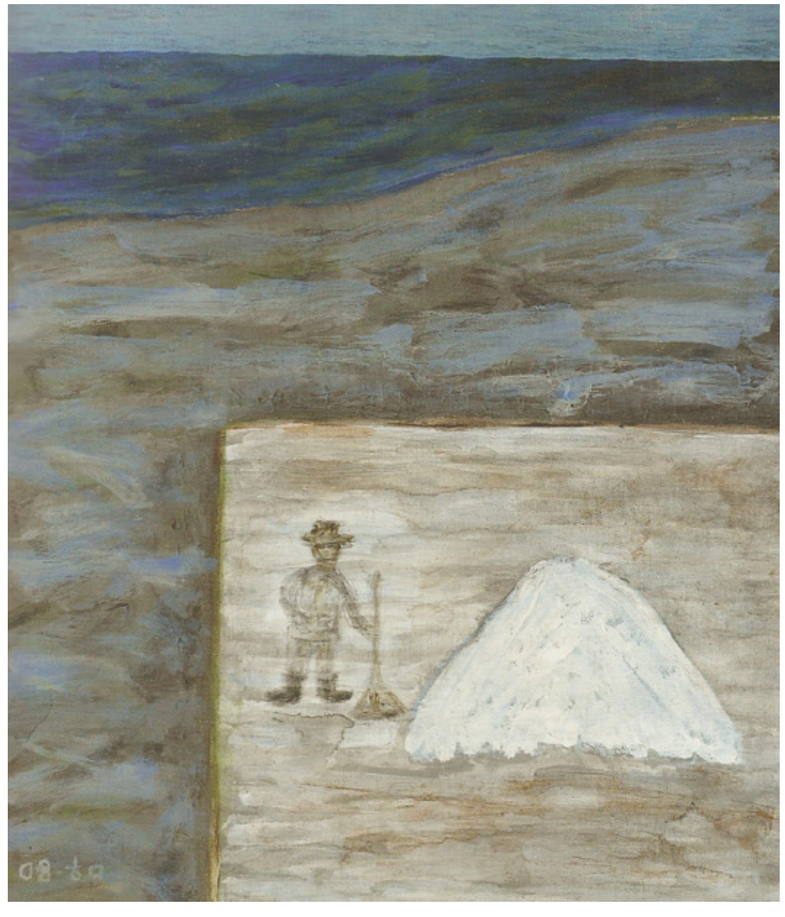
고맙게도 얼마 전에 <일요신문>에 실린 「새우젓」이라는 시다. 예전에 협궤열차가 달리던 그곳에 새우젓으로 황량한 끼니를 잇는 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랑의 뜻’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암묵의 다짐이 깃든 시라고 나는 설명한다. ‘사리’는 새우잡이 배들이 줄지어 들어오던 포구였다. 지금은 ‘사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포구 또한 시화호에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그곳에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조금 때면 ‘어이쿠’ 소리를 지르며 술자리를 옮겨 다니던 풍경은 어디서도 찾을 길 없다.

새우젓을 읊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바다를 품은 고래

새우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왔다가 사로잡힌 돌고래가 어쩌다 눈에 띄었다. 나는 박제로라도 그놈을 집에 갖다 놓고 싶었다.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꼬리지느러미를 얻어와 처리하여 벽에 걸었다. 그러나 결국 오래 놔둘 수는 없었다. 내가 그것을 벽에 걸어 놓고자 했던 뜻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비록 황량한 땅에서 새우젓을 읊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바다를 품은 고래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음을.

사진 제공 : 인천 남동구청

<소금 아저씨>
윤후명
캔버스에 아크릴릭
53×45.5cm
2008



윤후명의 『협궤열차』는 1990년대 초반의 수인선 협궤열차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협궤열차가 오가던 벌판은 작가에게는 더없는 쓸쓸함과 황량함이 가득한 추억의 공간이다. 장난감 같은 두 량짜리 협궤열차는,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가장 먼 곳으로 사라져가는 눈물겨운 형상을 하고’ 희미한 기억 속의 옛 사랑을 찾아가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협궤열차를 매일 만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동, 소래, 달월, 군자, 고잔, 야목, 어천 같은 수인선역 이름들을 만나고, 소음 속에서도 하루 세 번씩 좁은 레일을 잘가닥잘가닥 밟고 가며 경적을 울리는 열차의 소리를 듣는다.”

푸하하!
나, 살찐 보름달 아래
늑대 되리!

Walking the Slow, Winding Road

글 | 김화성 동아일보 기자. 공식 직함은 스포츠전문기자. 스포츠나 걷기뿐 아니라 글, 술, 음식, 꽃, 나무 등에 두루 해박하다. 『꽃밥』『자유와 황홀, 육상』『책에 취해 놀다』『길 위에서 놀다』 등 수많은 책을 썼다.

홀로의 술잔에 조금 취했던 것도 아니다
투명한 대낮 늘 다니던 골목길에서 뜻도 없이
와르르! 하늘을 한쪽으로 밀치며
화형식 불꽃 속의 허깨비처럼 고꾸라졌다
빨간 피 시멘트에 후두둑 쏟아지는데
네, 네에 잘 알겠습니다
오체투지 그대로 땅에 엎어져
눈물나고 평화로워라
온 생애가 일시에 가뿐할 뿐이다
내 몸에 이런 뜨거운 전율이 숨어 있었다니
끝내 빳빳하던 이마
더 이상 낮출 수 없이 겸허히 땅에 대고 보니
온통 아늑한 살결일 줄이야
눈앞에 부서지는 별들을 헤치고 일어나
비로소 사방 돌아다본다
보아라, 이마에 찍힌 이 싱싱한 불두(佛頭)
나 홀연히 니르바나에 임했노라

-문정희, 「낙상」

쯧! 쯧! 내 그럴 줄 알았다. 뭐가 그리 바쁘신가. 바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매서 쓸 수 있는가. 하기야 걷다보면 넘어지는 것은 다반사다. 천천히 간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다. 풀뿌리에 걸려 자빠진다. 돌부리에 걸려 나동그라진다. 갑자기 산짐승이 휙! 지나가는 기척에 "에구머니나!" 고꾸라지기도 한다.
그렇다. 넘어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다.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하다. 먼 길 가다보면 한두 번은 미끄덩! 하게 돼 있다. 그렇다고 산에 걸려 넘어지는가? 아니다. 늘 하찮은 것들에 걸려 넘어진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걸려 코가 깨지고, 발목이 뒤틀린다.

걷기는 영혼을 깨우는 일

인간은 두발 '걷기도사'다. 평생 12만km쯤 걷는다. 미국 인디언이나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무려 160km를 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알렉산더 동방원정대의 도보 이동 거리는 3,200km나 된다. 미국 동부 애팔래치아 종주 코스(메인주 카타딘 산에서 조지아 주의 오글소프 산까지)도 3,200km가 넘는다. 미국 서해안 종단 코스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은 무려 4,285km의 거리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사막과 화산을 넘고 설원을 가로지른다. 곰 등 야생동물의 습격은 일상사다. 먹을 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먹기 일쑤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악마의 코스를 걷겠다고 나선다.
왜 걷는가. 돈이 생기는가. 권력이 생기는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얻는가. 프랑스 전직기자였던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말한다. "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西安까지 1만 2,000km 실크로드 코스를 걸었다. 1만 2,000km라면 단 한걸음도 보태지 않고 1,800만 걸음을 걷는 것이다. 한번 셈해보라. 난 내 존재를 꽉 죄어오는 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토록 실망스럽고 불완전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여행은 내 영혼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무덤처럼 그대로 있으면 어둠의 유혹에 이끌리고 말 것이다."
고대 서양에선 남자 어른의 평균 보행 속도를 시속 5km 정도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했다. 현대 영국군도 20kg의 배낭과 장비를 들고 하루 도보 이동 거리를 25km(5시간 기준)로 정했다. 물론 평탄한 길을 걸을 때 그렇다. 산길이라면 한 시간에 2km쯤 걷는다고 보면 된다. 요즘 제주올레길 걷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기준 25km쯤 걷는다.

서울의 산들을 종주하다

늦가을, 한강남쪽 강변을 따라 걷는다. 한강은 북한산을 바라보며 W자로 휘돌아 흐른다. 언뜻 멀리서보면, 중년 여인의 풍만한 엉덩이 같다. W자 한가운데, 즉 항문 괄약근 부근이 바로 중랑천 하구(서울숲)와 압구정동 일대로 이어지는 곳이다. 둥근 곡선을 이루며 흐르던 한강이 문득 이 부근에서 오물오물 주름 잡혀 들어간다. 영락없는 똥구멍이다. 푸하하! '욕망의 배출구'다.
한강 북쪽엔 다섯 개의 산이 연달아 펼쳐진다. 이른바 '불수사도북'이다. 불암산(507.7m), 수락산(637.7m), 사패산(552m), 도봉산(740m), 북한산(836.5m)을 한데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내로라하는 산꾼들은 너도나도 '불수사도북' 능선을 종주한다. 45km(도상 거리 36.3km)를 마라톤하듯 단숨에 주파한다. 한 해 봄가을 두 번 '5산 종주대회'도 열린다. 우승자 기록은 7시간 대. 일반인들은 20시간 안팎 걸린다.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 일요일 오후에 목적지에 닿는다.
한강 북쪽 다섯 개의 산은 거의 바윗길이다. 오봉 인수봉 노적봉 만경대의 젖빛 바위들이 우뚝우뚝 알통을 내민다. 그만큼 땅기운이 강하다. 수락산 바위 암벽 정상과 하산길 기차바위(홈통바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도봉산은 온통 기암괴석으로 쇠말뚝과 쇠줄에 의지해야 겨우 지날 수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북한산은 또 어떤가. 원효능선과 의상능선을 가보면 안다.
한강 남쪽에도 다섯 개의 산이 있다. '삼관우청광'으로 불리는 삼성산(478m), 관악산(632m), 우면산(293m), 청계산(618m), 광교산(582m)이 바로 그렇다. 대부분 흙산이다. 능선 길이만 따진다면 불수사도북보다 길다. 하지만 관악산 일부 코스를 제외하곤 그다지 험난한 지역이 없다. 오르락내리락 오솔길을 가듯 아기자기하고 재밌다. 초보자들에게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도 20시간 안팎이면 종주를 마칠 수 있다. 종주 시간은 불수사도북과 비슷하다.

삶이여, 시대여, 고이지 말고 흘러라

늦가을 한강은 숨죽여 흐른다. 쥐죽은 듯 흐른다. 강물 가운데 물줄기는 언뜻 보면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가장자리의 물 주름을 보고서야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강물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다. 강물보다 빠른 사람들은 '빠릿빠릿' 진둥걸음 걷는다. 동동걸음 종종걸음을 친다. 강물보다 느린 이들은 어슬렁어슬렁 걷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찰하며 간다.
문득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강물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진보'라면, 강물보다 천천히 가는 이들은 '보수'일 것이다. 강물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것에 앞서가면 진보이고, 그 흐름보다 좀 천천히 가면 보수일 것이다.
봄가을 강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여름 장마철 강물은 거세고 빠르다. 한겨울 강물은 흐르는 듯 마는 듯 느릿느릿하다. 강물은 때론 진보이고(여름), 때론 보수적(겨울)이다. 그러다가 봄가을 담담하게 흐를 땐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굳이 분류한다면 중도쯤 될까.
사람들은 "진보다, 보수다" 깃발을 올리며 박 터지게 싸운다. 진절머리 난다. 저마다 "내가 옳다"며 눈에 핏발을 세운다. 서로 돌을 던지며 증오와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한 구절과 똑같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사랑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도 없는데/돌을 맞고서 울며 지내노라"
흔히 보수는 부패로 썩어서 망하고, 진보는 노선 다툼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 보수는 머리가 깡통이면서 탐욕스럽고, 진보는 편협하면서 말이 많다는 이유다. 하기야 보수주의자는 글씨가 크고, 진보주의자는 글씨가 깨알처럼 작다던가. 보수파는 뭘 쓰려고 해도 아는 게 없으니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쓰고, 진보주의자는 하나하나 따져서 쓰다보니 종이 한두 장으론 모자란다는 것이다. 푸하하! 그런데 한국 사회에 과연 보수, 진보가 있기나 한 것인가.
강물은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릿느릿, 그저 아래로 흐를 뿐이다. 때와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게 흘러갈 뿐이다. 문제는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이다. 바로 '꼴통'들이 문제다. 보수꼴통, 진보꼴통, 마초꼴통, 할아버지꼴통, 공무원꼴통, 목사님꼴통, 스님꼴통…. 시대의 강물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냥 "보수다, 진보다" 말다툼만 하는 사람.
도대체 5산 종주를 빨리 하면 뭐가 그리 위대한가! 백두대간을 빠짐없이 밟은 사람과, 중간 중간 빼먹고 종주한 사람이 뭐가 그리 크게 다른가. 지리산둘레길 680여리(약 272.4km)를 열흘에 마치면 어떻고, 20일 걸려 한 바퀴 돌면 또 어떤가. 열흘 걸린 사람이 옳은가, 스무 날 걸린 사람이 옳은가. 문제는 한 번도 지리산둘레길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열흘이 옳다, 스무 날이 옳다"고 입씨름하는 사람들 아닌가.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까닭

두둥실 밤하늘에 뜬 달 항아리. 설악산 백담계곡 100개의 못에 100개의 달이 뜬다. 뜰채로 아무리 건져봐도 스르르 다시 물속에 잠겨 말갛게 웃는다. 100개의 달은 어느 못에 있건 다 똑같다. 달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까. 삶에 무슨 '파派'가 있을까. 저마다 온몸으로 부딪치며 사는 게 삶 아닌가. 남한테 폐가 되지 않는다면,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면 그만 아닌가.
바람이 분다. 물 주름이 일렁인다. 흔들리는 물에 비친 달빛은 눈부시다. 고요한 물에 비친 달빛보다 훨씬 밝다. 달빛이 움직이는 물에 반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담한 물속에 담긴 달은 고혹적이다. 그윽한 아름다움이 있다. 달은 진보의 반짝임과 보수의 깊이를 모두 아우른다.
강물은 바다에서 몸을 푼다. '바다'는 '바닥'에서 'ㄱ'자 하나 떨어져나간 것. 그거 하나 지우기 위해 바다는 수천 수억 년 제 살을 바위에 부딪치며 속울음을 울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바다'가 되었다.
제발 남에게 함부로 돌 던지지 말라. 짱돌이 되지 마라. 노둣돌, 주춧돌, 디딤돌이 되라. 동네 어귀 묵묵히 서 있는 선돌이 되라. 제 몸 부딪쳐 불을 만드는 부싯돌이 되라.
고은 선생은 왜 늑대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 '해가 진다/내 소원 하나/살찐 보름달 아래 늑대 되리'라고 노래했을까. 밥그릇 싸움에 좀팽이들만 득시글거리는 세상. 몽골 벌판을 달리는 광야의 늑대가 그리웠을까. 히말라야 설산의 수컷 늑대 한 마리. 벼랑 끝 절벽, 깊은 동굴 속에서 제 상처를 핥는다. 꺼이꺼이 속울음을 운다. 밖엔 주먹만 한 눈발이 펄펄 내리고 있다. 꽈당! 엉금엉금 한겨울 강원도 눈밭 길. 한순간 벌러덩 넉장거리로 나자빠졌다. 눈에 번쩍이는 별 부스러기들. 입안에 찝찔한 피 맛. 정신이 아득해진다. 한동안 눈밭에 누워 멍하니 맑고 푸른 하늘을 본다. 문득 아득하게 밀려오는 강 같은 평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땅바닥에서 찾은 행복.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서서 걸어왔구나. 하늘, 하늘로만 손 뻗치며 살아왔구나! 너무 빠른 길, 곧은 길만 찾아,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강물이 왜 구불구불 흐르는지 그걸 까맣게 몰랐었구나!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구부러진 길」

한 · 중 · 일 만두 이야기

만두, 맛있는 호기심

A Long Tradition of Dumplings : Korea's 'Mandu' and Its East Asian Cousins

만두는 내밀한 속맛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음식이다. 상차림을 푸짐하게 해주는 고급요리로도 손색이 없고, 끼니와 끼니 사이 출출함을 달래주는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겨울철 영양식이기도 하다. 얇은 외피로 감싼 야무진 매무새는 미각을 더 자극하니, 만두는 시대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모양과 맛을 선보여왔다.

글 |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1990년대 초반부터 업무 차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향토음식을 맛보기 시작, 그렇게 맛본 음식이야기를 모아 『소문난 옛날 맛집』 『미각의 제국』 등의 책을 펴냈고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3년간 연재한 글을 모아 『맛있는 여행』을 출간했다.

사진 | **박정훈**

만두란, 밀가루 등의 반죽을 얇게 펴 그 안에 여러 재료를 넣고 싼 다음 익혀 먹는 음식을 말한다. 세계 곳곳에 이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 있다.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폴란드의 페로기, 네팔의 모모, 남아메리카의 엔파나다, 중국의 바오즈, 일본의 교자 등등이 널리 알려졌다. 만두의 조리적 장점은 피로 싸여 있는 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로 인해 소가 보이지 않으니 이를 먹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음식 먹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런 까닭에 만두와 같은 음식이 온 지구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한국 만두와 가장 유사하며 조리법에서도 오래도록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만두는 중국의 바오즈 또는 교오즈, 일본의 만쥬 또는 교자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현재 한국인이 즐기는 만두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그것과 어찌 융합되고 분화되어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다.

회회아비, 고려에 만두를 전파하다

2008년 개봉한 <쌍화점>이라는 영화는 고려가요 '쌍화점雙花店'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됐다. 그러나 고려가요의 이름과 그 시대적 배경만 따왔지 가요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고려가요 쌍화점은 한 여인네가 이곳저곳에서 남자의 유혹을 받는다는, 요즘으로 보면 '야설'에 드는 노래이다. 그 첫 소절은 이렇다.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 신뒨,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쌍화를 '상화霜花'라 쓴 문헌도 있다. 쌍화점은 '쌍화 또는 상화를 파는 가게'라는 뜻이다. 이 쌍화 또는 상화가 만두 비슷한 음식이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만 조선말까지는 상화가 문헌에 흔히 보인다. 1809년 빙허각 이씨가 엮은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상화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해 쓰는데, 밀기울죽과 누룩가루를 섞어 하룻밤 삭힌 것을 반죽에 더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막걸리를 써도 된다 하였다. 이렇게 발효를 하면 반죽이 부풀게 되고, 여기에 껍질 제거한 팥을 넣고 둥근 모양을 만들어 시루에 찐다. 이 조리법대로라면 지금의 찐빵과 흡사하다. 제주도에서는 밀가루에 술을 더하여 부풀린 반죽으로 떡을 만드는데, 이를 상애떡이라 부른다. 상화가 '상애'로 남아 있는 것이다.
쌍화점에 등장하는 회회아비는 이슬람교도의 아랍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는 원에 의해 복속된 기간이 상당하다. 원은 당시 다민족의 세계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고려도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고려시대 아랍인이 경영하는 가게의 아랍식 만두가 현재 우리가 먹는 만두 또는 찐빵의 '원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만두는 밀가루가 있어야 가능한 음식이며, 중앙아시아가 최초의 밀 재배지였으므로, 회회아비에 의한 만두의 전파는 고려에서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01

01 편수片水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서 정사각형으로 썬 후 오이, 소고기, 표고버섯 등의 만두소를 넣고 네 귀를 서로 붙여서 익혀 먹는 만두다. 큼직큼직하게 썬 신선한 오이의 아삭함과 버섯과 소고기가 선사하는 쫄깃함이 잘 어우러진다. 더운 날씨에 상하기 쉬운 재료인 돼지고기를 넣지 않고 야채를 주재료로 만들어 냉장고가 없던 시절부터 여름철에 주로 먹었다. 편수는 '규아상' 혹은 '미만두'라고도 한다.
02 한국 만두는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긴 계절음식으로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 직접 손으로 빚어내는 손만두가 제격이다. 북쪽지방 만두는 재료가 푸짐하고 양념 맛이 적어 슴슴하며 모양이 크고, 남쪽지방 만두는 간이 세고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 두 가지 특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서울식 만두는 두부와 숙주나물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섞어 넣은 반달형의 얌전한 모양으로 송편보다 조금 크다. 궁중에서 흘러나온 반가음식으로 재료의 맛이 살아있어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하다. 주로 찐만두로 간장에 찍어 먹거나 만두국, 떡만두국으로 즐겨 먹었다. 촬영협조 : 서울 부암동 '자하손만두'

02

03

04

05

만두는 귀한 음식이었다

고려가요에 상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만두는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밀이 귀하였기 때문이다. 밀이 한반도에서 재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재배 시기가 같은 보리에 밀려 재배 면적이 적었다. 한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선택하면서 '입식粒食'의 전통을 세우고 '분식粉食'을 별식으로 밀어버린 결과이다.

밀이 없다고 아예 만두를 빚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메밀은 한반도 어디서든 잘 자라고 재배기간도 무척 짧아 한반도의 농민은 밀 대체 곡물로 메밀을 선택하였다. 1670년경 안동 장씨가 쓴 『음식디미방』에는 메밀만두가 기록되어 있다. "메밀가루를 눅직하게 반죽하여 개암알만큼씩 떼어 빚는다. 만두소 장만은 무를 아주 무르게 삶아 덩어리 없이 으깨고 꿩의 연한 살을 다져 간장 기름에 볶아 백자, 후추, 천초가루로 양념하여 초간장에 생강즙을 하여 먹도록 한다"라고 적혀 있다. 메밀은 밀과 달리 발효를 하여도 부풀지 않는다. 따뜻한 상태에서는 흐물흐물 힘이 없고 식으면 딱딱해진다. 만두로 찔 만한 재료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메밀로라도 만두를 빚어 먹으려 했다는 것은 만두가 주는 매력이 상당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의 만두가 대부분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지 않고 빚는 까닭도 이 메밀만두에 익숙해진 입맛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화상이 키운 만두 시장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외식업을 주도한 이들은 화상華商이었다. 이들에 의해 한반도의 만두는 실로 다양해졌다. 화상은 주식으로 만두를 흔히 먹었는데, 이를 만들어 한민족에게 팔았다. 돼지고기와 부추로 소를 만들어 큼직하게 부풀려 쪄낸 왕만두, 조그맣게 빚어 끓는 물에 슬쩍 데쳐낸 물만두, 납작하게 빚어 팬에 튀기듯 구운 군만두 등등을 내었다. 그러나 화상의 시대는 길지 않았다. 일제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화상들이 이 땅을 떠났다. 이어 한국전쟁과 남북분단도 화상이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화상이 만들어놓은 만두 시장을 한국인이 접수하였다. 마침 미국이 원조물자로 밀가루를 공급하면서 만두 장사들이 시장 좌판과 길거리를 점령하였다.

한국식 전통 만두를 앞세운 식당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외식업계에 등장하는데, 1980년대 한국의 외식산업이 부피를 키우면서 덩달아 생겨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에 대한 수요가 집안에서 먹던 만두를 불러낸 것이다. 외식시장에 나온 한국 전통 만두는 평양식이니 개성식이니 하여 북녘 음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부추, 배추, 무, 두부 등을 소로 쓰고 큼직하게 빚어 끓는 물에 슬쩍 데쳐 내거나 고기국물에 담아 만둣국으로 낸다. 설날 시절식時節食으로 남녘에서는 떡국을, 북녘에서는 만두를 먹었고, 따라서 북녘의 만두가 전통 음식에 가깝다 하는 인식이 번진 결과로 읽힌다. 중국인이 춘절 시절식으로 만두를 먹는데, 중국과 가까운 북녘의 땅이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에서는 설 음식에 만두가 없다.

같은 음식 다른 이름 만터우 · 바오즈 · 교오즈 · 만쥬 · 교자

만두의 유래에 제갈량 이야기가 항상 따른다. 제갈량이 강을 건너려는데 풍랑이 심하여 그 연유를 알아보니 강의 신이 사람의 머리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여 그런다 하였고, 제갈량은 사람의 머리 대신 돼지고기를 넣은 밀가루 반죽의 음식을 강에 던져 풍랑을 멎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 음식의 원래 이름이 '만두蠻頭, 만족의 머리'였다가 '만두饅頭'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근거도 없고 맛깔스럽지 못한 음식 유래 전설이다.

만두는 중국에서 '만터우'라고 발음한다. 터키에는 만트, 우즈베키스탄에는 만띠라는 음식이 있다. 물론 만두 모양의 음식이다. 밀 재배 문명의 확산 경로를 보면,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지가 중국에 앞선다. 만트나 만띠가 만터우로 발음되고 '饅頭만두'로 적혔다가 한반도에는 만두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두가 1,600년대부터 조선의 문헌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상화보다는 덜 쓰였다. 음식 이름에 '머리 두'자가 붙어 있으니, 꺼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饅散만부'라 쓰기도 하였다.

현재 중국의 만터우는 소를 넣지 않은 밀떡을 말한다. 한국의 중국집에서 내는 꽃빵 같은 음식이다. 제갈량의 그것처럼 소를 넣은 것은, 특히 둥그런 모양의 찐 만두를 '바오즈包子'라고 한다. 약간 길게 빚어 구운 만두는 '교오즈餃子'이다. 일본에서는 또 다르다. '만쥬饅頭-まんじゅう'는 흔히 반죽을 부풀려서 찐 만두, '교자餃子-ぎょうざ'는 군만두를 뜻한다. 고기소만두는 '니쿠만肉饅', 팥소만두는 '앙만餡饅',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는 만쥬가 과자의 한 형태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있다. 밤, 호두 등등의 소를 넣고 틀에 넣어 굽는 과자도 만쥬라고 한다. 예를 들면, 호두과자 같은 것도 일본에서 보면 만쥬의 하나이다.

03, 04, 05 만두는 중국에서는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애용된다. 중국 만두가 한국이나 일본 만두에 비해 유독 큰 이유다. 중국 풍속에 따르면 새로 만나는 사람, 즉 손님이 오면 국수를 먹고 손님이 돌아갈 때는 만두를 먹는다. 국수를 먹는 이유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자는 의미이고, 만두를 먹는 이유는 혹여 나쁜 일이 있었걸랑 만두 속에 싸서 모두 삼키고 가라는 의미다.
촬영협조 : 인천 차이나타운 '원보(元寶)'

06

07

08

09

한국에는 독특한 이름의 만두가 있다. 찐빵이다. 찐빵은 그 만드는 방법이나 형태로 봐서는 만두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규합총서』의 상화와 가장 비슷하며, 중국의 더우바오즈豆包子, 일본의 앙만餡饅과 같은 음식이다.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찐빵을 팥만두 또는 팥소만두라 부르지 않는 것일까.

찐빵이라는 말은 구한말에 빵이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생긴 조어이다. 일제강점기 때 신문 기사에 나오는 찐빵 조리법을 보면,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은 밀가루 반죽을 찌는 것은 지금과 같으나 그 안에 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다르다. 그 당시에 화상이 운영하는 만두 가게가 많았을 것인데, 거기서는 팥을 넣은 만두도 팔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화상의 만두 가게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한국 만두 가게에 이 찐빵이 꼭 있기 때문이다. 소 없는 찐빵이 사라지면서 만두 가게의 팥소만두를 두고 누군가 찐빵이라 이르면서 이 말이 번졌을 것이다. 호빵은 1970년대 어느 식품기업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는 인스턴트 앙만을 본떠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붙인 이름이다. '호-'라는 접두어가 붙은 것은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그 당시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호빵에는 팥 외에도 채소가든 것이 있는데, 이는 지금의 한국 음식 관습에서는 만두라 하여도 되는 음식이다.

팥소만두가 찐빵이 된 사연

06, 07 바삭하고 육즙이 가득한, 직접 빚어 구워낸 일본식 군만두 교자. 프라이팬에 굽다가 물을 끼얹어 속까지 익히는 요리법이 특징이다. 촬영협조 : 서울 팔판동 '하치(HACHI)'

08, 09 찐빵은 근대에 발달한 것 같지만 역사를 찾아보면 고려 말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중국 만두가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임정인이라는 중국 사람이 고기 대신 단팥을 넣어 만든 것이 시초였다. 서민들보다는 주로 왕과 귀족, 승려들이 먹었다. 임정인은 지금도 일본 화과자의 시조로 받들어진다. 우리 찐빵은 일제 강점기 때 만두가게를 하던 화상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 찐빵의 최초의 고객은 서민들이었다. 촬영협조 : 서울 무교동 '산하네분식'

찐빵 하나에 한중일의 음식문화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음식 이름에는 간혹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음식에서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묻어날 때가 있다.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음식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욕구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것이다. 빵은,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귀한 음식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가 넉넉하였지만 당시 우리 부엌의 빈약한 조리 기구로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었다. 빵집도 중소도시 정도는 되어야 있었다. 빵 가격은 무척 비쌌고, '있는 집 자제들'이나 먹는 고급 음식이었다. '서민의 자제들'은 팥소만두 정도에 만족해야 했었는데, 이게 빵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발견하였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를 찐빵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찐빵이라는 이름에는 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찐빵 속 팥소처럼 틀어박혀 있는 것이다.

강세황 부자가 남긴 기록을 따라

사라진 부안행궁을 찾아가다

Buan Haenggung : On the Trail of a Lost Palace

누구에게나 고향을 벗어나 특별한 인연을 맺은 지역이 한 둘쯤은 있다. 까닭 없이 마음이 가기도 하고 우연히 남다른 인연이 맺어진 곳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남들이 다들 찾아가고 좋아하는 명소인 것만은 아니다. 영조 시대의 유명한 화가이자 문인인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그의 둘째 아들 삼당재三當齋 강흔姜忻, 1739~1775에게 전라북도 부안이 그런 곳일 듯하다. 강흔이 부안현감을 지낸 덕에 그들은 부안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그 인연은 일방적이지 않다. 강세황 부자에게 부안이 특별한 것처럼, 부안이란 지역에게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 지금껏 아무도 부안에 두 사람이 남겨 놓은 자취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부안을 거쳤던 많은 과객들과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이 미처 표현하지 않은 부안의 풍경과 사연을 그 부자는 다양한 글로 남겨 두었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 2백 년도 더 흐른 부안의 옛 풍경을 더듬어 찾아가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부안의 옛 풍경 가운데서 특히 지금은 사라진 행궁行宮을 찾아보는 것은 더더욱 흥미로운 걸음이 될 법하다.

01 부안행궁이 있었던 격포항 위쪽 봉화산 정상의 봉수대. 문헌에는 '월고리 봉수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격포리 봉수'라고 불렸다. 1995년 총 5기의 봉수대 중 1기가 복원되었다. 02 '동여도東輿圖'의 부안 일대 부분. 행궁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강흔의 「하설루기」와 강세황의 「격포유람기」

이전에 몇 차례 변산의 풍광을 보러 부안을 찾아 채석강과 격포항을 들렀으나 행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강세황 부자가 남긴 글과 옛 지도를 손에 들고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다. 늦가을 단풍을 즐기며 먼저 부안 읍내로 들어갔다. 강흔이 머물렀던 상소산上蘇山 아래 부안 관아는 새로 지은 군청이 위용을 뽐내며 들어서 있다. 강흔이 현감으로 재직할 때에는 후선루候仙樓, 부풍관扶風館, 역락헌亦樂軒, 단소헌但嘯軒, 망월루望月樓, 제민헌濟民軒 등의 관아 건물이 있었다고 했다. 옛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군청 오른쪽 경사지에 향교만 덩그마니 서 있다. 지방의 옛 도시는 대개 관아는 사라지고 향교만 남아 있다. 부안 향교는 독특한 지형에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흔은 읍내를 에

글 | **안대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 후기 한문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벽광나치오』『선비답게 산다는 것』『정조의 비밀편지』『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등의 공저와 번역서 포함 총 24권의 책을 낸 한국의 파워라이터다.

03

부안행궁,
천혜의 요새에 지은 왕의 별궁

워싼 소나무 숲을 인상 깊게 묘사했다. 향교에 서서 바라보니 읍내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은 여전하다. 250년 뒤에도 같은 모습을 확인하니 반갑다.

강흔은 1769년 가을 부안현감에 제수되어 마을 친구인 조경심趙景心과 함께 부임하였다. 그는 1763년 8월에 25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얼마 뒤 영남 지방에 잠깐 근무하며 영남 각지를 두루 돌아다닌 적도 있다. 글을 잘 한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부안에서 돌아온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37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에서 부안의 추억은 유난히 도드라진다. 부안에서 그는 읍지邑誌를 만들고 관아 그림에 서문을 썼으며, 후선루를 새로 세우고 낙성식을 열었다. 그가 지은 「하설루기賀雪樓記」에는 폭설이 내린 후선루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며 눈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멋지게 묘사되어 있다. 늦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이 지역의 눈을 묘사한 기발한 작품이다.

부임한 이듬해 봄에는 남들처럼 아버지를 모셔서 이름난 명소도 구경시켜드렸다. 아들 덕에 강세황은 1770년 5월 채석강과 격포진 일대를 유람하고서 「격포유람기遊格浦記」를 남겼다. 일행은 아름다운 변산 해안을 따라 계화도와 왕등도를 바라보고 해창海倉을 지나 채석강을 구경하였다. 채석강은 바위가 너무 아름다워 돌을 몹시 좋아한 미불米芾, 1051~1107이 이곳에 왔다면 돌마다 일일이 절하느라 무릎으로 기어서 지나갔을 것이라며 웃음을 터드렸다. 채석강 바위의 멋을 이보다 멋지게 표현한 것은 없으리라.

일행은 격포진 바닷가에 있는 만하루挽河樓에 올라 바다를 구경했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1리쯤 떨어진 곳에 회화나무 몇 그루가 울울하게 서 있었고 처마가 날아갈 듯 솟아 있는 건물이 보였다. 바로 부안행궁이었다. 행궁을 둘러보고 다시 행궁 동쪽에 있는 봉수대에 올라 다섯 개의 봉수대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아쉽게도 강세황의 여행기는 거기에서 끝난다.

강세황이 써 놓았듯이 격포진, 지금의 격포항에는 행궁이 분명 멋진 모습으로 있었다. 행궁이란 국왕이 전란과 온천욕 등의 목적으로 거둥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이다. 온양과 의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강화도, 그리고 수원의 화성행궁이 유명한 행궁이다. 행궁이 설치된 곳은 대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상하게도 부안에도 행궁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전문가를 포함하여 부안 사람들도 아는 이가 없다.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 기록도 거의 없다. 강세황 부자의 글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640년에 전라감사 원두표元斗杓와 삼남순검사三南巡檢使 박황朴潢의 건의로 진을 설치한 뒤 1724년에 전라감사의 건의로 부안행궁을 지었다고 강흔은 밝혔다. 부안의 전적을 참고하여 기록했으므로 강흔의 기록은 믿을 만하다. 그런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왜 행궁을 지었을까? 부안은 지세가 험준하고 좁으나 험한 바다를 앞에 둔 요새로서 강화도까지 돛배로 하루면 도달하는 천혜의 요새다.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도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선배의 말이라고 강흔은 전해 놓았다. 진과 행궁을 설치한 것은 수도 방위를 위한 조정의 원대한 책략이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이 강흔의 「격포행궁기格浦行宮記」에 상세하게 실려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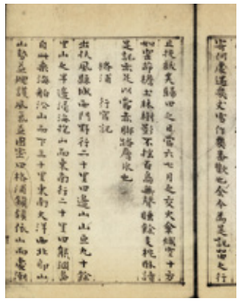
그렇다면 강흔의 말은 정말일까? 1747년 원두표의 현손인 원경하元景夏와 1791년에도 이우진은 각각 상소를 올려 서울을 방어하는 길목이 강화도이고, 또 그 강화도를 방어하는 길목은 격포진이므로 비상 사태에 임금이 묵을 행궁을 바닷가 비밀스런 장소에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그 봉화대가 풍광도 아름답다고 찬미하였다.

서해에서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에 위치했고, 군사적 중요성도 있는 행궁이라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은 말해준다. 그렇다면 강흔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행궁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격포행궁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04

"행궁은 동향을 하고 있고 뒤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다. 봉우리 뒤는 큰 바다로서 사면이 행궁을 둘러 감싸고 있어서 바닷가에 위치한 줄을 더더욱 알 수 없다. 정전正殿은 열 칸이고 동서 날개집은 여덟 칸인데 누각이 네 칸이고 행각行閣이 네 칸이다. 바깥문은 세 칸이고 안문은 두 칸이다. 담으로 둘러쳤는데 단청은 퍼나 벗겨졌으나 규모는 거창하였다. 변산의 승려를 불러 모아 지키게 하였다."

이 대목은 지역을 관할한 현감의 보고서 같다는 느낌을 던진다. 행궁의 좌향坐向과 규모를 비롯한 현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려들이 차출되어 지키고 있다는 것도 당시 군사제도를 엿보게 한다.



05

03 월고리 봉수대 아래쪽의 부안행궁 터. 지금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잡풀만 무성하다.

04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모인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녹색 비단으로 만든 녹단령綠團領을 입고 있는 강세황의 초상. 흉배에 학이 두 마리인 것을 보면 당상관임을 알 수 있다. <강세황 초상>, 작가 미상, 비단에 채색, 50.9×31.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5 『삼당재고三當齋稿』 3권에 수록되어 있는 「격포행궁기」와 「부안현지」 서序.

옛 행궁 터에는
아름다운 풍광만이

위 대목을 포함하여 그의 글에 자세하게 묘사된 행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군청도 주민들도 행궁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하므로 위치도 아는 이가 없었다. 옛 지도와 글에서 묘사한 대로 격포항 서쪽 지역을 찾아갔다. 다행히 일흔이 넘은 노인 한 분이 행궁이 있던 곳이라며 안내해주었다. 격상 아래 궁항弓亢 위쪽에 있는 공터였다. 바로 뒤쪽 봉우리에 봉수대가 복원된 것을 보면 위치상 맞는다. 정말 바닷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늑한 곳이다. 옛날 다섯 기의 봉화가 설치된 월고리 봉수대가 지금은 하나만 복원되어 있었다.

그 봉수대에서는 바다가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강흔이 "행궁 정전 뒤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봉수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일만 리에 층층이 이는 파도가 눈 아래 아스라하다. 서쪽으로 고군산도나 계화도와 같은 여러 섬을 바라보니 바둑판이 벌어져 있고 별이 펼쳐진 듯하다. 주변 풍경을 두루 살피면서 감개한 기분으로 배회하였다"라고 감회를 적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다.

늦가을이라 그런지 행궁이 있던 폐허는 을씨년스러웠다. 전략적 요충지로 비상시에 국왕의 거처로 쓰고자 했던 행궁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락하기가 쉬웠나 보다. 1752년 전라감사 서명구徐命九가 행궁이 너무 퇴락하여 강화도를 보완하는 군사적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중수하여 복구한 것을 보면 퇴락과 중수가 반복되었던 듯하다. 강세황 부자가 찾아갔을 때는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행궁이 당당한 위용을 갖추었을 때다. 그 이후 수십 년 뒤에 그려진 옛 지도에는 뚜렷하게 표시되던 행궁의 모습이 객사 정도로 표시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였다. 격포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행궁의 위상도 흔들리자 세상사 그렇듯이 관리의 부실과 건물의 퇴락이 찾아왔을 것이다.

행궁 터에서 바라본 격포항만.

부안현감 강흔이 그곳을 찾았을 때부터 벌써 그런 기미가 보였다. 그가 격포진 장교를 불러 군비 상황을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다. 1리밖에 있는 대변정待變亭이란 무기고에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명색이 수군인데 배 한 척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흔은 외적이 침입하면 대비책이 없다며 위기 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현감이란 지방관이 어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수군 요충지가 배 한 척, 무기 하나 없는 상황이니 행궁이 유지되기는 어려웠으리라. 그저 껍데기만 수군일 뿐 전선을 만들 목재인 소나무를 관리한다는 구실로 주민만 수탈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격포진이 있던 곳에는 8년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방영한 지 10년 가까이 지나서 찾는 이 없는 쓸쓸한 곳이라 때가 되면 폐허나 철거로 귀결될 듯하다. 가짜 역사 유적을 억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역사상 근거가 있는 행궁을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한다면 어떨까? 부안행궁은 조선시대 역사의 현장이다. 강세황 부자가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글을 근거로 복원한다면 부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더 돋보이게 만들 것이다.

LIFE & BRANDS

No. 02
Winter 2012

발림무용단 이지선 단장의
액티브 아웃도어 라이프
삶도, 아웃도어도 도전이다

워킹 스타일에서 스키 룩까지

From Walking Style to Ski Look

진행 정재연 이은선 | 사진 김도형

입김이 하얗게 부서지는 겨울날, 전통 무용인 이지선이 한강의 석양을 등지고 걷는다. 공연, 수업, 회의, 연습으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매일의 일정은, 어김없이 파워 워킹으로 마무리된다. 일분 일 초를 가쁜 호흡으로 채우다보면 어느 새 추위는 저만치 물러나고 몸은 뜨거워진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열정이 차오르는 벅찬 순간이다. 주말에는 가까운 스키장으로 향한다. 처음 스키를 타던 날, 온몸에 전해 오던 날카로운 첫 활강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슬로프를 따라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이는 느낌은, 무용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했다. 설원 위의 춤이라니! 그 짜릿함을 느낀 뒤 그녀는 스키와는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때 알았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의 참다운 의미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충만한 순간의 기쁨을. 만약 부상이 두려워 스키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인생의 큰 즐거움 하나를 놓쳤을 게 아닌가. 도전에 따르는 결과는 그 다음의 일이다.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깨달음만으로도 도전의 가치는 충분하다.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의 공식'을 체득한 그녀는 전통 무용인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을 추구한다. 눈 위를 질주하듯 무대 위의 자유를 꿈꾸는 무용인, 이지선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 본다.

제품 문의
-
프로스펙스 W
02-797-3100
PROSPECS

피퍼포먼스
02-540-1082
PeakPerformance

법고창신法古創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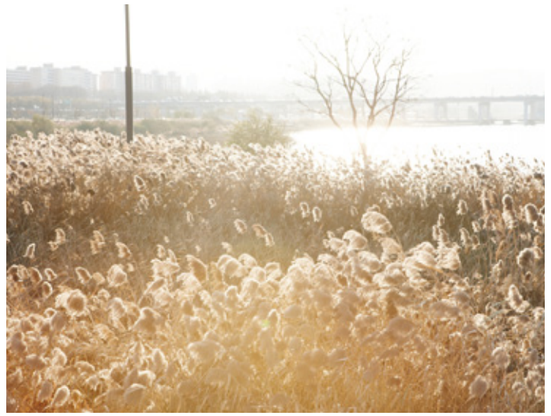
옛 것을 본받아 새 것을 창조하다

6살 어린 나이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습실에 들어서던 그 날, 이지선은 직감했다. 무용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임을. 크고 작은 시련이 찾아올 때도 오직 무용만이 자신의 삶이라는 확신으로 마음을 곧추세웠다. 일구월심 운명에 복종하고 시간에 충실했던 무용가 지망생은, 어느 덧 세계를 무대로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다.

"며칠 전 일본 문화청 주최로 제27회 국민대축제가 도쿠시마 현에서 열렸어요. 발림무용단이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참가했죠. NHK생방송으로 방영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건네시고 성원을 보내주셨죠. 앞으로 우리 전통 춤 문화를 올바르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 시간이었죠."

이지선은 말한다. 독특한 장단과 호흡, 버선발의 디딤새, 전통 의상이 주는 고운 색채는 오로지 한국의 전통 무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이 같은 우리 전통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녀는 직접 안무가로 나섰다. 음악에서부터 의상, 분장, 조명, 무대장치 등 공연의 전 과정을 총괄 기획한다. 춤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명확히 전달하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창작 무용을 무대에서 선보일 때면 매번 떨리고 설레요. 잘 할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고 무대에 올라 몰입하다보면 어느새 춤에 빠져들어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느껴요. 관객과 하나 되는 순간이죠."

전통 무용을 계승한 이수자이자 새로운 전통 무용의 개발에 힘쓰는 안무가, 그리고 발림무용단 단장으로서 그녀는 2013년에도 국내외의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춤의 진가를 널리 알리려는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이어질 것이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갈고 닦아 빛을 내다

무용을 통해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35년 간 한 길을 걸어왔다. 과거와 현재가 그랬듯이 미래에도 무용과 함께하는 인생을 꿈꾼다. 그 긴 여정에 지치지 않기 위해, 지나친 근심과 피로를 덜어내기 위해, 그녀는 걷는다. 한 걸음씩 성큼성큼 내딛다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무용 작업에 관한 영감이 떠오른다. 더 나은 무용가로 사는 법을, 그녀는 파워 워킹에서 배운다.

억새가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난다. 오랜 시간 빛과 바람 속에서 부드러운 선을 얻은 억새처럼 그녀의 몸도 구부러진다. 접혔던 부채가 펴지듯 전신을 쭉쭉 펼친다. 반복 훈련으로 몸동작에 결을 만든다. 발은 발뒤꿈치부터 앞까지 차례대로 완벽하게 딛고 단전에 힘을 주며 시선을 멀리 두고 걷는다. 호흡이 깊어지고 두 발이 제 힘으로 움직이는 동안, 비비킹B.B.King의 유려한 재즈 선율에 휩싸일 때면 오직 세상에 혼자만이 존재하는 듯 자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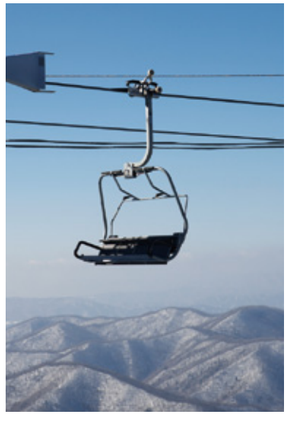
파한破閑

굳은 것, 고인 것, 묵은 것을 타파하다

일본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용평 스키장에서 주말 스키를 탄다. 힘든 공연을 무사히 치러낸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휴식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활강 직전 슬로프 정상에 서서 아래를 굽어본다. 스키를 타기 전 심호흡을 하는 그 순간은 무대 위에 오르기 전만큼 설레고 흥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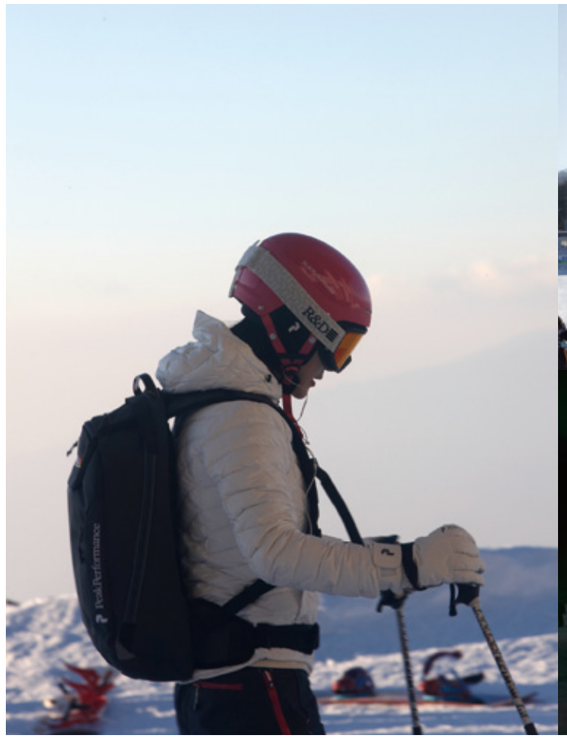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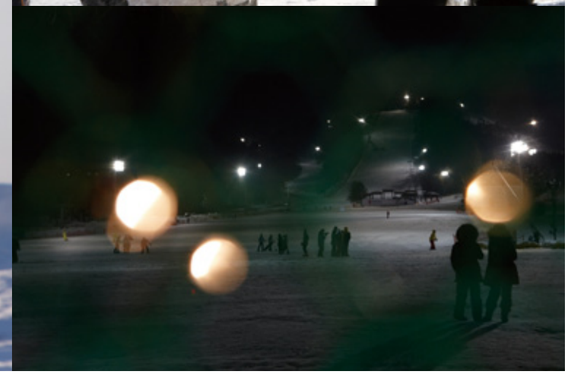
'파한破閑'은 2012년 9월 발림무용단 25회 창작 무용극의 타이틀이다.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었던 나이 열아홉부터 스키를 탔다. 대학 시절, 평일에도 수업과 연습이 끝나면 서울 인근의 스키장을 찾아 혼자 야간 스키를 즐겼다. 차가운 밤공기를 갈 지之 자로 가르며 슬로프를 질주하다보면 젊은 날들의 열정과 패기가 되살아난다. 어느 새 굳어가는 습성과 사고와 감각들, 모든 단단한 것들이 대기 속에 녹아내린다.

한국 무용은 호흡과 하체의 디딤새, 굴신이 중요하다. 스키는 이 모두를 충족시켜 주는 스포츠다. 무릎을 이용한 굴신과 리드미컬한 동작은 무용에도 그대로 쓰임새를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용가로서 부상의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스키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언젠가는 캐나다의 헬리스키Heliski에 도전할 것이다. 일반 스키장이 아닌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헬리스키, 그 고감도 스릴을 꼭 느끼고 싶다. 그녀를 도달해야 할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스키는 우아한 도전이다. 무용가이자 안무가이며 교육자, 그리고 무용단장으로서 이지선의 삶도 어제의 자신을 극복해나가는 도전의 행보다. 한국 무용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다진다.